

연구보고서 2023-1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김성아
노현주·박형준·신영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형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3-1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49-2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3.10>

발|간|사

살아갈 집,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예금, 노후자금 등 자산은 삶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하지만 다수의 문헌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에 주목해왔다. 이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에 주목하면서 기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청년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실제 삶에 가닿는 발견을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보장, 즉 사회안전망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생애 과정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이 연구는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신영규 부연구위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박형준 연구위원, 노현주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한창근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자문 의견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	23
제2절 생애 관점의 의의와 적용	26
제3절 소득·자산 기반 복지의 개념과 범위	33
제4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모형 개괄	37
제3장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43
제1절 문제 제기	45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46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53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60
제5절 소결	73
제4장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75
제1절 문제 제기	77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79

제3절 연령과 출생코호트에 따른 소득, 자산 수준	82
제4절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90
제5절 소결	114
제5장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119
제1절 문제 제기	121
제2절 분석자료	123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131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140
제5절 소결	151
제6장 생애 관점 자산 기반 복지 사업 사례 분석	157
제1절 자산 기반 복지 사업 개관	159
제2절 국내 사례	162
제3절 해외 사례	187
제4절 소결	19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1
제1절 요약 및 결론	203
제2절 정책적 함의	209
참고문헌	221



부록	237
[부록 1]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237
[부록 2]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249
[부록 3]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261

표 목차

〈표 1-1〉 빈곤 여부에 따른 거주주택 보유 가구 분포	18
〈표 2-1〉 모(母)의 출생코호트별 자녀의 출생코호트 분포	31
〈표 2-2〉 분석자료 개요	39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 방법	48
〈표 3-2〉 연도별 연령집단 분포	50
〈표 3-3〉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보유 인구 비율	52
〈표 3-4〉 연도별 개인 단위 소득, 자산, 부채 기초통계량	53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초통계량	55
〈표 3-6〉 소득, 자산, 부채 수준 영향요인	57
〈표 3-7〉 연도별 소득, 자산, 부채의 상관계수	61
〈표 3-8〉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상관계수	62
〈표 3-9〉 연도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66
〈표 3-10〉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별 연령집단 분포	68
〈표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69
〈표 3-12〉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짓	71
〈표 4-1〉 출생코호트-시점별 표본 수	81
〈표 4-2〉 연령-코호트별 소득과 자산 모두 비빈곤인 비율	104
〈표 4-3〉 연령-코호트별 소득 비빈곤이면서 자산은 빈곤인 비율	106
〈표 4-4〉 연령-코호트별 소득 빈곤이면서 자산은 비빈곤인 비율	107
〈표 4-5〉 연령-코호트별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인 비율	108
〈표 5-1〉 국가별 주택점유형태의 역사적 변화와 구조: 네 가지 유형	122
〈표 5-2〉 LWS 자료의 국가 및 시점 구성	124
〈표 5-3〉 LWS 국가 및 대한민국의 자산 구성	128
〈표 5-4〉 비교 대상 국가 분석자료의 연령집단 분포	132
〈표 5-5〉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혼인상태	133
〈표 5-6〉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분포	149
〈표 6-1〉 생애주기별 자산 기반 정책 사례	160



〈표 6-2〉 청년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163
〈표 6-3〉 저소득층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174
〈표 6-4〉 노인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179
〈표 6-5〉 농지연금 지급 방식	181
〈표 6-6〉 주택연금 지급 방식	184
〈표 6-7〉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185
〈표 6-8〉 NISA 종류별 특징	192
〈부표 1-1〉 자산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237
〈부표 1-2〉 2012~2022년 경상소득 10분위별 분포	240
〈부표 1-3〉 2012~2022년 총자산 10분위별 분포	240
〈부표 1-4〉 2012~2022년 총부채 10분위별 분포	241
〈부표 1-5〉 2017~2022년 경상소득 및 총자산 10분위별 결합 분포	241
〈부표 1-6〉 2012~2022년 경상소득 10분위별 분포	244
〈부표 1-7〉 2012~2022년 총자산 10분위별 분포	244
〈부표 1-8〉 2012~2022년 총부채 10분위별 분포	244
〈부표 1-9〉 2017~2022년 경상소득 및 총자산 5분위별 결합 분포	245
〈부표 1-10〉 2017~2022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집단 분포	247
〈부표 2-1〉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49
〈부표 2-2〉 개인노동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0
〈부표 2-3〉 소득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2
〈부표 2-4〉 총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3
〈부표 2-5〉 부동산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4
〈부표 2-6〉 자산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5
〈부표 2-7〉 공적이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6
〈부표 2-8〉 공적이전(공적연금 제외)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7
〈부표 2-9〉 소득 비빈곤/자산 비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8
〈부표 2-10〉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59



〈부표 2-11〉 소득·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260
〈부표 3-1〉 비교 대상 국가의 처분가능소득 및 총자산 10분위별 결합 분포	263
〈부표 3-2〉 비교 대상 국가의 처분가능소득 및 총자산 5분위별 결합 분포	265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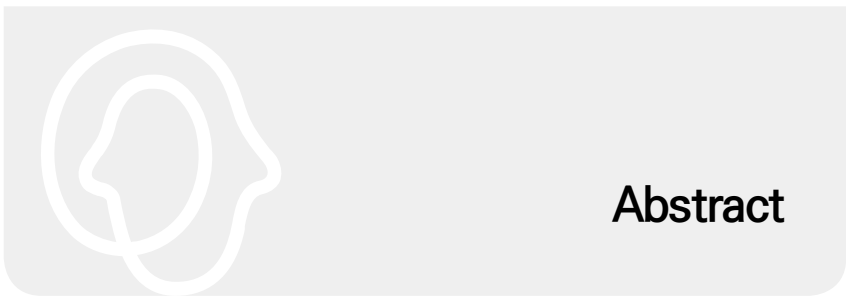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16
[그림 1-2] 청년 가계부채 증가율	16
[그림 1-3] 미혼 남녀의 결혼 결정 시 고려 요소	16
[그림 1-4]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	17
[그림 1-5] 노인 빈곤율 추세	17
[그림 2-1] 모달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	28
[그림 2-2] 가구주 연령집단별 시장소득 및 소비지출	28
[그림 2-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구성	28
[그림 2-4] 가구주 연령집단별 지출 구성	28
[그림 2-5]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구성	28
[그림 2-6]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구성	28
[그림 2-7] 출생코호트별 생애사 궤적	32
[그림 2-8] 가계 저축률(1975~2020년)	34
[그림 2-9]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기준금리 추이(1986~2023년)	35
[그림 2-10] APC의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 방법	41
[그림 3-1]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59
[그림 3-2]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상관계수	62
[그림 3-3]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 지수(Shorrocks)	64
[그림 3-4] 소득·자산 결합 빈곤 개념	65
[그림 3-5]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67
[그림 4-1] 코호트별 경상소득 분포: 2006~2021년	83
[그림 4-2] 연령집단별 경상소득 분포: 2006~2021년	84
[그림 4-3] 코호트별 개인노동소득 분포: 2006~2021년	85
[그림 4-4] 연령집단별 개인노동소득 분포: 2006~2021년	86
[그림 4-5] 코호트별 총자산 분포: 2006~2021년	87
[그림 4-6] 연령집단별 총자산 분포: 2006~2021년	88
[그림 4-7] 코호트별 경상소득·총자산 분포: 2006~2021년	89

[그림 4-8] 코호트별 개인노동소득·총자산 분포: 2006~2021년	90
[그림 4-9]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92
[그림 4-10] 개인노동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93
[그림 4-11] 소득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95
[그림 4-12] 총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97
[그림 4-13] 부동산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98
[그림 4-14] 자산 빈곤(순자산 기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00
[그림 4-15]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01
[그림 4-16] 공적이전소득(연금 제외)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03
[그림 4-17]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10
[그림 4-18]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12
[그림 4-19] '소득·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114
[그림 5-1] LWS의 변수 구성	125
[그림 5-2] LWS 국가의 자산 구성	127
[그림 5-3]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자산 구성	135
[그림 5-4]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수준	138
[그림 5-5]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자산 간 상관계수	140
[그림 5-6]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간 상관계수	142
[그림 5-7]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무조건부)	145
[그림 5-8]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147
[그림 6-1]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달체계	166
[그림 6-2] 청년도약계좌 사업 집행 절차	168
[그림 6-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체계	170
[그림 6-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절차	172
[그림 6-5] 농지연금 추진체계	182
[그림 6-6] 주택연금 전달체계	186
[그림 6-7] 미국 모기지과 역모기지(HECM)	189



[그림 6-8] 주택연금 가입 유지 현황	198
[그림 7-1] 개인 및 가구 단위 생애 관점 소득과 자산 분포	204
[그림 7-2] 주요국의 생애 관점 균등화 가구 소득과 자산 분포	205
[그림 7-3] 연금통계(2016~2021) 작성 구조	218
[부그림 1-1]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	239
[부그림 1-2] 연령집단별 균등화 가구 소득, 자산, 부채	239
[부그림 3-1]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비율	261



Abstract

A Study on the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over the Life Cycle and Policy Responses

Project Head: Kim, Seo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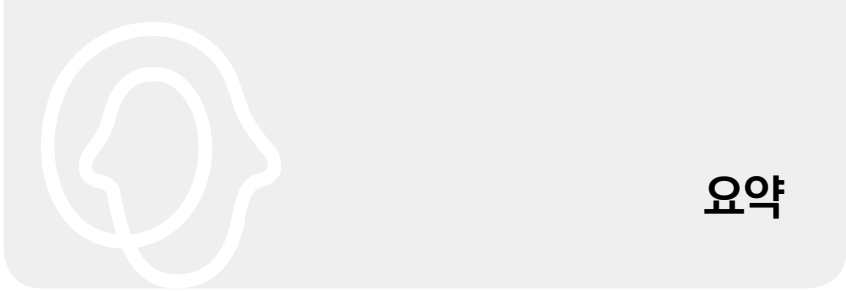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over the life cycle, including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er adulthood, and to provide evidence-base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income-asset-based welfare systems. The study's results confirm the existence of a lifetime trajectory in which income is used to form and utilize assets while maintaining daily life through expenditure. The gap in economic capability, which includes income and assets, is influenced by class and intragenerational disparities. The current generation of young adults is beginning to earn income as they complete their education and gain skills. Midlife is when individuals are at their peak earning,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children. However, they are still at risk of poverty. The current generation of older adults is susceptible to both income and asset pover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take aggressive measures to reduce poverty rates among the elderly. Additionally, the process of using income to meet expenses and forming and utilizing assets has been reevaluated from a

Co-Researchers: Noh, Hyunju, Park, Hyung-John, Shin, Young-Kyu

2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life-course perspectiv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aligning it with existing asset formation and utilization policies.

Keyword :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 Life cycle perspective, Income-asset-based welfare system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수준에 이르렀다.¹⁾ 유소년인구와 청년,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두 축은 청년과 노인이다. 청년은 교육 이수 후 경제적 독립과 관계 독립, 주거 독립 등 일련의 이행기 과업을 이수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서(Billani & Lie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김성아 외, 2023a) 중장년이 되고, 점차 노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청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의 궤적을 잇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생애 관점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비교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목표는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의 수요자 관점에서 국내외 소득·자산 기반 복지 정책을 검토하여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1) 통계청. (2023.11.29.).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12 에서 2023.11.30. 인출

2. 선행연구 검토

한 사람의 삶에서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누리는 데에 소득과 자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소득은 개인과 가구 단위 양질의 삶을 실현하는 주요한 물질 기반이고, 자산은 현재와 미래 삶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제이다. 이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성인의 생애 관점에서 조망한다.

경제학자인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중장년기에 정점을 찍는 소득과 전 생애 동안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한 사람의 경제적 삶의 궤적을 개념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애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청년기에 소득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소득의 정점을 찍는 중장년기까지 점차 소득 수준이 증가하며,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노년기에 소득이 급감한다. 경제활동기에는 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축적하여 자산을 형성한다. 경제활동이 안정되는 후기 청년기 이후부터는 소득의 순초과액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보다 부채를 통해 자산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장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소득의 초과분을 활용해 점차 부채를 순자산으로 전환한다. 노년기에는 자산을 소득원으로 활용해 지출을 부담하여, 전 생애에 걸쳐 전부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세대 관점에서 청년과 중장년, 노인 세대는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내재하였고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세대 간 관계가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는지 혹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세대 내 불평등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근거를 들어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정책 영역에서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는 ‘가계

가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복지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집단적 행태를 말한다. 혹은 '저축과 자산의 축적을 지원하고 개인과 가족은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전략이기도 하다. 전자가 가계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산 기반 복지의 의미를 말한다면, 후자는 복지체제로서의 자산 기반 복지를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부터 자산을 축적하는 주된 행태가 저축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실물자산,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자산 기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지탱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산 기반 복지'를 확장해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제'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기반 복지 제도의 범위가 단순히 자산 형성과 자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소득과 자산의 중첩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 유동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두 방향의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3.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국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실태를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개인 단위 분석을 시도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 수준의 경향을 실증분석하여 생애주기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태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구 단위 분석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조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높아지고 노년기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인적 자본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와 은퇴 이후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노년기에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높아,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에 의한 경제력과 자산에 의한 경제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에서 청년기부터 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소득과 자산 중 한 차원이 빈곤한 집단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소득이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한국복지패널 2~17차 개인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APCD 분석을 수행하여 2006~2021년의 소득, 자산, 공적이전, 소득·자산 결합 빈곤에 대한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실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투입한 모든 종속변수에서 연령 효과와 코호트의 효과가 함께 발견되었다.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소득 수준과 소득 빈곤 위험, 자산 수준과 자산 빈곤 위험, 공적이전소득으로 측정된 복지 혜택의 수준 모두 다른 코호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호트를 통제한 연령 효과에서는 50세부터 64세까지 연령집단의 열

악함이 일관되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 중장년층은 자산 축적이 불리하여,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할 여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적인 자산 수준이 불리할 뿐 아니라 자산 빈곤 위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빈곤 지위의 모든 유형에서도 이들 연령대의 빈곤 위험은 높았다.

현시점에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1962~1966년생 코호트, 그리고 연령 효과에서 관찰되었던 50세부터 64세 사이 연령집단의 열악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출생코호트와 연령집단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분석 기간인 2006~2021년 동안 두 차례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1962~1966년생 코호트의 자산 형성은 여의치 않았고, 50~64세 사이의 연령집단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결국 은퇴 전까지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연금 기여가 이들 집단의 노년기 경제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주요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정제된 분석자료인 룩셈부르크자산조사(LWS)를 주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LWS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LWS의 가구 단위 구성에 부합하도록 활용하였다. 자가주택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구성비를 활용해 2020년 노르웨이, 2019년 영국, 2019년 미국, 그리고 2022년 한국을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은 생애 궤적을 따라 청년기부

터 점차 증가해 중장년기 후기 혹은 노인 초기에 고점을 보이고 점차 감소하는 역U자의 형태를 보인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에서 모두 조건부 모형의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비조건부 모형에 비해 낮는데, 이는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 숙련의 인적 자본이 소득과 자산을 비례적으로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에서는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약간씩 증가해 노년기에 높아지고, 미국은 청년 초기에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다소 높다가 30대 후반부터 비교적 평탄해 보인다. 영국과 한국은 비교적 평탄한데, 이 또한 생애주기 가설에 의해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기 부모 세대의 경제력으로 자녀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소득과 빈곤의 결합 빈곤 분포는 한국이 다소 특이한 사례로 확인된다. 노르웨이와 영국, 미국에서 청년과 장년기에 자산 빈곤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집단 유형이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은 반면, 노인 집단은 소득이 빈곤한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6. 생애 관점 자산 기반 복지 사업 사례 분석

자산 기반 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길버트와 테렐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을 분석했다. 국내 사례로는 생애 과정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중 청

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용 가능한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사업을 살펴 보았다. 단, 중년층 대상 자산 기반 정책은 현행 사업 중 특화된 사업이 부재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을 대신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국내 자산 형성 사업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최종 저축 잔액을 확보 하도록 하는 발달계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산 활용의 경우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국내의 역모기지 사례 모두 공적 기관이 보증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으로 연계 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국내 자산 기반 복지 사업 및 제도 중 청년기 대상 제도는 주로 자산형성 사업이지만, 일정 기간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가입하는 동안 목돈 운용의 부자유로 인해 중도 해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요구된다. 중장년의 경우 노후 준비를 통해 노년기 빈곤을 예방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중장년층의 생애 과업에 특화된 사업이 부재하다. 노년층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입률 및 유지율 등을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사업에 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생애 과업에 특화된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요자가 개별 사업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의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물리적 접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수준의 충분성이나 유동성으로 인한 가입상태 유지에 대한 부담 등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을 활용해 지출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생애 궤적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오히려 동일 연령대에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소득과 자산을 누리는 수준이 높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 출생코호트, 즉 현세대 노인이나 중장년에 비해 현세대 중장년이나 청년들이 동일 생애주기에 누리는 경제력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력, 즉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계층, 혹은 세대 내 격차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현세대 청년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숙련을 쌓으면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구 단위 분석을 보면 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공유하면서 실제 경제적 생활 수준은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부모 세대의 조력으로 생애주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는 것일 수 있다.

중장년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이다. 이들은 소득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세대 중장년, 특히 1960년대 출생코호트는 가구 단위 경상소득은 급감하는데 개인노동소득은 높다. 노후를 앞둔 중장년들은 부모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온 세대이다. 그런데 정작 현세대 중장년들은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세대 노인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에서 모두 취약하다. 중장년 이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경향과는 상이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의 높은 빈곤율과 소득과 빈곤 간 결합 빈곤 양상은 현세대 노인의 코호트 효과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활용해 생활을 영위하고 자산을 형성,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애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지만, 기존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정책과의 정합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애 관점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다차원을 고려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경제적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지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청년기에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소득 유동성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련을 쌓아 생애주기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기의 생애 과업에 민감해야 한다. 현세대 노인 코호트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자산 유동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 내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을 이용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 생애 재무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빈곤율을 완화하여 기본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제가 현시점에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전 생애 소득·자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체계를 구조화해야 한다. 기존의 자산 형성과 자산 활용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자산 기

12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반 복지의 범위를 확장해 소득과 자산의 중첩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책, 삶의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의 공공화를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생애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기반으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소득·자산분배지표로 확대하고, 연금자산 및 장기 저축을 포함하는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요 용어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자산 기반 복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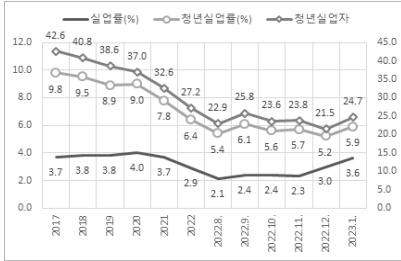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수준에 이르렀다.¹⁾ 유소년인구와 청년,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두 축은 청년과 노인이다.

현세대 청년은 녹록지 않은 삶의 여건을 직면하고 있다. 성인으로의 이행기(transition to adulthood)로 정의되는 청년기는 교육 이수 이후 경제적 독립(school-to-work transition), 가족을 형성하는(family formation) 등 관계 독립, 주거 독립(independent residence) 등 독립된 성인으로의 이행기 과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시기다(Billani & Lie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김성아, 김문길, 나원희, 강예은, 한영섭, 2023a).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청년기의 성인으로의 이행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학자금부채 외 주택 마련이나 자산증식을 위한 청년의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2] 참조).

1) 통계청. (2023.11.29.).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12 에서 2023.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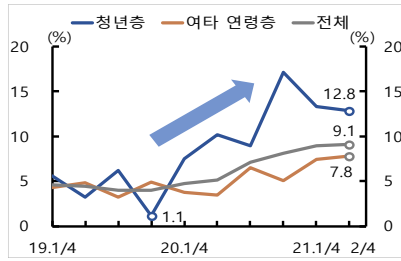
16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3.3.23.). 가계 저축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51> 에서 2023.8.3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1-2] 청년 가계부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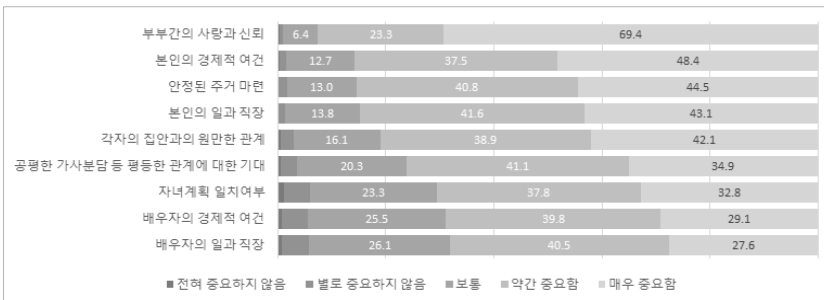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2023.9.26.).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한국은행 보도자료. p.3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9725&menuNo=200690> 에서 2023.9.30. 인출.

청년이 주거 등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삶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실례로 미혼 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데,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안정된 주거 또한 매우 중요하거나 약간 중요한 정도가 85%에 이르는 주요 고려 요소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미혼 남녀의 결혼 결정 시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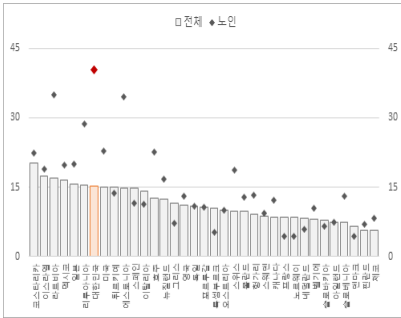
(단위: %)



주: '매우 중요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통계청. (2022.8.29.). 미혼남녀(19~49세)의 결혼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도, 가족과출산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_2021CG028&conn_path=12 에서 2023.2.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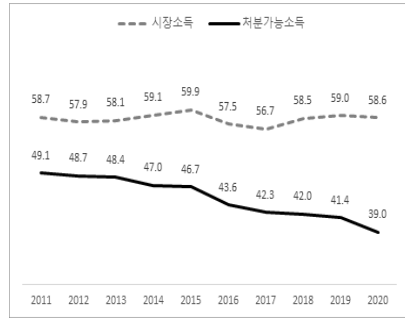
현세대 노인의 삶도 녹록치 않다.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그림 1-4] 참조).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6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기초연금액 인상 등 공적이전 수준을 높이는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최근 40%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그림 1-5] 참조).

[그림 1-4]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



자료: OECD. (2023).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3.11.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1-5] 노인 빈곤율 추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노인 빈곤 문제는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요소인 자산, 특히 거주주택을 노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주택 연금의 가입률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고령자의 1% 내외에 불과한 등 실질적인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그러나 국내에도 빈곤하고 거주주택이 있는 가구가 존재한다. 특히 가구 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에서 빈곤하고 거주주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27.0%에 이른다(<표 1-1> 참조). 즉, 노후 자산활용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존재한다.

〈표 1-1〉 빈곤 여부에 따른 거주주택 보유 가구 분포

(단위: %)

〈 전체 가구 〉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			
구분	거주주택 있음	거주주택 없음	전체	구분	거주주택 있음	거주주택 없음	전체
비빈곤	49.3	27.0	76.3	비빈곤	40.4	11.8	52.3
빈곤	11.6	12.1	23.7	빈곤	27.0	20.8	47.8
전체	60.9	39.1	100.0	전체	67.4	32.6	100.0

자료: 김성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1의 표

주: 김성아 외(2021, p.81)의 분석 자료 및 방법을 준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원자료 저자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두 축 중 한 축을 차지한다. 그리고 청년은 교육 이수 후 경제적 독립과 관계 독립, 주거 독립 등 일련의 이행기 과업을 이수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서(Billani & Lief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김성아 외, 2023a) 중장년이 되고, 점차 노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청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의 궤적을 잇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생애 관점에서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비교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목표는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의 수요자 관점에서 국내외 소득·자산 기반 복지 정책을 검토하여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적 관련성에 대한 생애 관점의 이론적 의의와 함께, 생애 관점 소득·자산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생애 관점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실증분석한다. 한국의 최근 횡단면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와 함께, 주요 코호트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 그리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주요국의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소득·자산 기반 정책을 분석한다. 국내외 자산 형성과 활용에 대한 소득·자산 기반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청년기 자산 형성, 중장년기 자산 구축, 노년기 자산 활용에 이르는 생애 관점의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미성년기, 즉 아동과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원가족 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기이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적 관련성에 대한 생애 관점의 이론적 의의를 재검토하고, 생애 관점 소득·자산 분석모형을 정교화한다. 또한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을 위한 쟁점을 검토한다.

둘째, 소득·자산 결합 분포에 대한 국내외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현재 횡단면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을 통해 소득·자산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패널 자료를 이용해 주요 코호트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종단 추세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코호트 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연령, 소득·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비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현재 횡단면 결합 분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국내외 자산 기반 복지 정책을 검토한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 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자산 형성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기반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모형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

제2절 생애 관점의 의의와 적용

제3절 소득·자산 기반 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4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모형 개괄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

한 사람의 삶에서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누리는 데에 소득과 자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소득은 개인과 가구 단위에서 양질의 삶을 실현하는 주요한 물질 기반이고, 자산은 현재와 미래 삶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제이다. 독립된 성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소득을 활용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한다. 살아가는 공간으로 주거를 이용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형성해두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 이후 숙련이 쌓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유분을 저축하며 자산을 늘리기도 한다. 혹은 실물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수의 문헌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에 주목해왔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공유하는 가구 혹은 인구의 비율로서 빈곤율을 산출하거나, 소득 분포, 특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분위배율, 분위별 점유율, 팔마비율(Palma ratio)을 이용해왔다(Shammas, 1993; Kuhn, Shularick, & Steins, 2020; Balestra, & Oehler, 2023; 김성아, 2021). 여러 연구에서 공통되는 발견은 현대에 들어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불평등도 함께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 집단이 점유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자산을 소득 분포와 함께 확인해왔다. 소득과 자산의 비

율(Wealth-to-income ratio)을 쓰는 경우도 있다(Chauvel, Bar-Haim, Hartung & Van Kerm, 2018; Kuhn, Shularick & Steins, 2020; Chauvel, Bar Haim, Hartung, & Murphy, 2021). 이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포를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비율이 특정 시점의 소득 증가율이나 자산 평가액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소득·자산 결합액을 활용하기도 한다(Kuypers, Figari, & Verbist, 2021). 이는 수치를 요약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산율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소득과 자산의 입체적인 결합 분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UN, 2011, p.4). 그럼에도 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소득 불평등의 양상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사회이동성을 저해하고 중산층의 삶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Chauvel, et al., 2021).

국내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성명재, 2011; 전병유, 정준호, 2014; 김민정, 2016; 김진영, 2017; 정준호, 2018). 초창기 연구인 성명재(2011)를 시작으로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기를 교차하여 가구 혹은 가구원의 위치를 파악하고(전병유, 정준호, 2014; 김민정, 2016; 정준호, 2018),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전병유, 정준호, 2014; 김민정, 2016; 정준호, 2018). 특히 소득과 자산 분포가 0에 편중된 특성에 의해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값을 병행해 확인하였다(전병유, 정준호, 2014, 정준호, 2018). 그 외에도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에 의해 구별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거나(김진영, 2017), Shorrocks(1978)의 이동성 지수(이하 $M(P)$)²⁾를 산출해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을 검증하기도 했다

2) $M(P)$ 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부모 세대의 소득 분위

(전병유, 정준호, 2014; 정준호, 2018).

성명제(2011)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간 분위별 결합 분포를 분석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을 산출하고, 금융자산, 주택자산, 부동산 자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기타자산을 합산해 총자산을 산출했다. 그 외 소비지출과 부채를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가구 단위 분석을 시도했으며, 소득과 총자산 간 상관관계는 2007년 0.46278, 2008년 0.43445, 2009년 0.34742로 세계금융위기 직후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성명제, 2011, p.110).

전병유, 정준호(2014)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산 분포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와 유사하지만, 소득별 자산 분포는 상위층에 집중되어 미국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이동성 지수(M(P))는 0.7705, 스웨덴은 0.8712인데, 한국은 0.7953으로 미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스웨덴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한국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가 미국의 양상과 유사하다(전병유, 정준호, 2014, p.15).

정준호(2018)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분석했다. 수도권의 M(P)는 0.820 정도인 데에 비해 비수도권은 0.807로 나타났다(정준호, 2018, pp.168-169). 소득과 자산 간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하거나 수도권이 약간 높은 반면, 소득과 자산의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는 비수도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정준호, 2018, p.171).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가 약간 더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자녀 세대의 소득 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뜻한다. 즉, 한 유형의 분위에서 다른 유형의 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말한다. 전병유, 정준호(2014)와 정준호(2018)는 소득 분위에서 자산 분위로, 혹은 자산 분위에서 소득 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산출하였다.

김진영(2017)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와 세대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기를 교차하여 분위가 대칭되는 집단 외 소득 대비 자산이 많거나 매우 많은 집단, 자산 대비 소득이 많거나 매우 많은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집단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고령층은 소득 대비 자산이 많은 집단에, 청년층은 자산 대비 소득이 많은 집단에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비함수를 추정했는데, 이때 가구주 연령이 41세인 경우 소득과 자산을 통제한 소비가 극대화되는 연령대별 소비의 이차함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소득 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는 소득과 자산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많을수록, 최소 40대 중반 이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김진영, 2017, pp.88-89).

제2절 생애 관점의 의의와 적용

이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성인의 생애 관점에서 바라본다. 성인기는 소득 활동과 자산 형성 및 활용의 일련의 과정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생애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단으로는 한 사람의 청년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의 생물학적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횡단으로는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의 사회학적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 그리고 지금 청년이 중장년이 되면서 새로운 청년 세대에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 중장년이 노인이 되면서 세대를 차지하는 코호트가 교체된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는 생애주기와 세대는 연속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변화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연대한다. 그러므로 생애 관점으로 보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는 한 사람의 생애주기와 다

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읽힐 수 있다. 이어지는 이 절에서는 생애 관점을 적용하는 데에 생애주기 가설과 세대 관점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생애주기 가설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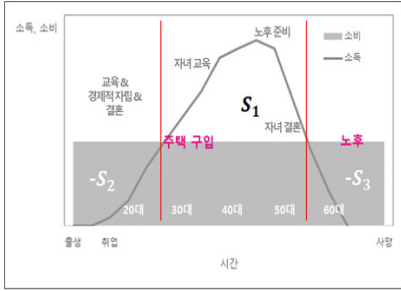
한 사람의 생애는 태어나 성장하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며 관계를 형성하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현대 복지국가의 슬로건이기도 하다(Beveridge, 1942). 한 개인의 수 십년에 걸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삶은 가족과 친구, 이웃, 동료, 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삶의 물리적 기반은 소득과 자산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학자인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Ando & Modigliani, 1963)은 중장년기에 정점을 찍는 소득과 전 생애 동안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한 사람의 경제적 삶의 궤적을 개념화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 가설을 한 사람의 생애에 이렇게 적용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돌봄을 받으며 교육 등 자립을 준비하는 미성년 시기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원가족, 주로 중장년기인 부모의 소득으로 교육비 등의 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2-1], [그림 2-4] 참조).

생애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청년기에 소득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소득의 정점을 찍는 중장년기까지 점차 소득 수준이 증가하며,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노년기에 소득이 급감한다([그림 2-3] 참조). 그러므로 경제활동기에는 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축적하여 자산을 형성한다([그림 2-1]의 s_1 , [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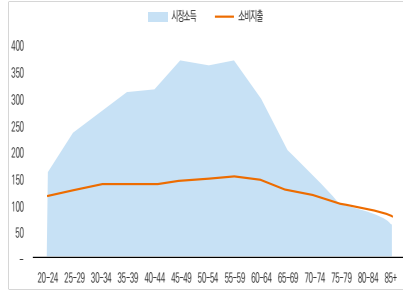
28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그림 2-1]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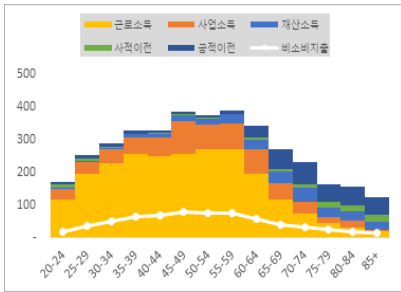
자료: 김성아 외(2021)의 p.26 그림을 수정·보완

[그림 2-2] 가구주 연령집단별 시장소득 및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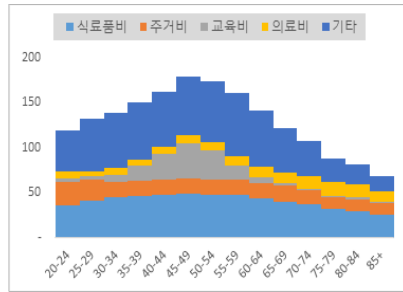
자료: 김성아(2021)의 p.70 그림

[그림 2-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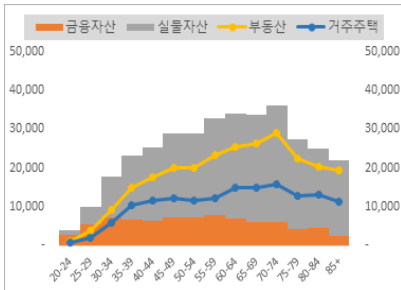
자료: 김성아 외(2021)의 p.71 그림

[그림 2-4] 가구주 연령집단별 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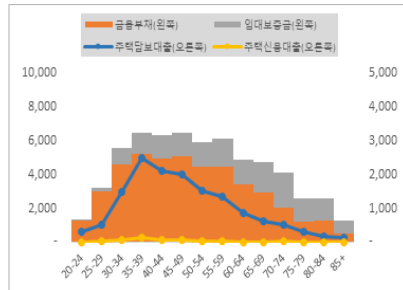
자료: 김성아(2021)의 p.73 그림

[그림 2-5]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구성



자료: 김성아 외(2021)의 p.75 그림

[그림 2-6]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구성



자료: 김성아(2021)의 p.77 그림

경제활동이 안정되는 후기 청년기 이후부터는 소득의 순초과액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보다 부채를 통해 자산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한다([그림 2-6] 참조). 부채는 고소득자 및 고신용자의 경우 자산 증식을 위해 미래 자산을 끌어당겨 미리 쓰는 음(-)의 자산으로도 불린다. 중장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소득의 초과분을 활용해 점차 부채를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초기 노년기에 자산의 최고액을, 후기 청년기에 부채의 최고액을 보인다([그림 2-5], [그림 2-6] 참조).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개인이 소득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경제활동기 이외 시기에는 자산을 소득원으로 활용해 지출을 부담하여, 전 생애에 걸쳐 전부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2-1]의 $S_1 - (S_2 + S_3) = 0$).

청년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은 다수의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도 현실성이 입증되었다([그림 2-2], [그림 2-5 참조]). 그러므로 생애주기 가설은 청년기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기의 자산 축적, 노년기의 자산 활용에 이르는 소득·지출 및 자산·부채의 궤적을 연동하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세대 관점과 의의

생애주기 가설을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소득과 자산으로 들여다보려는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에서 개인들은 생애사적 사건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연결되기 때문이다(신광영, 2014).

세대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연령

층의 사람 전체”이다.³⁾ 서로 다른 연령대의 세대는 동시대를 살면서 비동시성을 가지고(Mannhaim, n.d., 2021), 각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생활한다. 유사한 용어로서 코호트는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이다.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을 출생코호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대는 코호트의 특성을 내재한다.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로 대표되는 원가족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며 자산을 형성한다. 그리고 독립과 결혼, 출산과 양육, 은퇴와 사망 등 일련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변화를 이전 세대로부터 학습하고 동 세대와 공유한다. 동시에 외환위기나 팬데믹 같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코호트 규모 등의 집단적 조건에 맞물려(신광영, 2014, p.22) 생애 단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다음 <표 2-1>은 모(母)의 출생코호트별 자녀의 출생코호트를 보여주고 있다. 1940년대에 태어난 현재 80대 정도 여성의 자녀 중 72.4%가 1960년대생으로 60대 정도이다. 1950년대 출생코호트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자녀의 67.4%가 1970년대생으로 현재 50대 정도이다. 현재 50대 정도가 되는 1970년대 출생코호트 여성의 자녀 중 46.2%는 현재 30대 정도인 1990년대 출생코호트이고, 47.0%는 현재 20대 정도인 2000년대 출생코호트이다. 점차 모(母)의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함께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20~3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간격을 두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며 삶의 노하우, 인적 기반과 경우에 따라 물질 기반을 전수받으며 독립한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이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를

3) 표준국어대사전. (n.d.a). 세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6464&searchKeywordTo=3 에서 2023.8.28. 인출

4) 표준국어대사전. (n.d.b). 코호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945&searchKeywordTo=3 에서 2023.8.28. 인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양한다.⁵⁾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동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생애주기에서 서로 다른 생애 경험을 하면서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

〈표 2-1〉 모(母)의 출생코호트별 자녀의 출생코호트 분포

(단위: %)

구분		모(母)의 출생코호트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1950년대	1940년대
자녀의 출생 코호트	2010년대	94.9	62.7	5.8	0.0		
	2000년대	5.1	36.7	47.0	2.0	0.0	
	1990년대		0.6	46.2	35.7	1.5	0.0
	1980년대			1.0	59.3	26.5	0.6
	1970년대				3.0	67.4	15.3
	1960년대					4.6	72.4
	1950년대						1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20년 기준 자료로, 기혼여성의 현재 5세 단위 연령 범위와 첫 출산연령 5세 단위 범위를 비교하여 자녀 연령 범위를 산출한 후 10년 단위의 출생코호트로 재분류함.

자료: 통계청. (2023.11.29.).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에서 2023.11.30. 인출 후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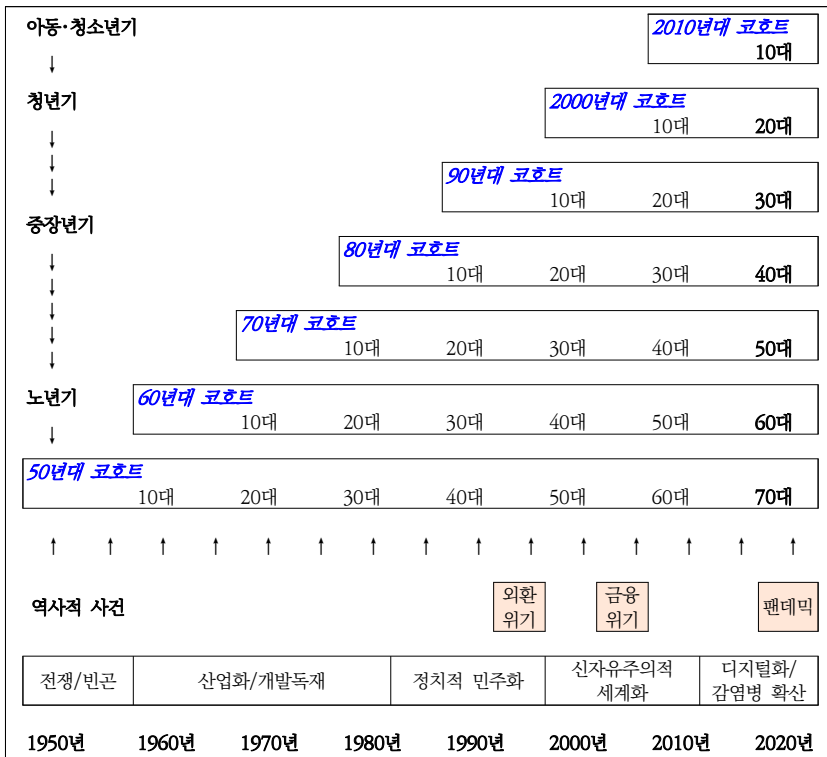
가족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비동시성을 한 사회로 확대할 수도 있다. 다음 [그림 2-7]은 우리나라 출생코호트별 생애사적 사건을 도식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와 출생코호트는 직교한다.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은 그 시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게는 그저 들어본 일이다. 예를 들어 최근 청년세대들에게 1988년 올림픽은 역사책에서 본 사건인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청년과 중장년, 노인 세대는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5) 여기에서 연금 등 공적 제도의 역할은 논외로 한다.

다른 역사적 경험을 내재하였고,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후 압축적으로 성장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입성한 최초의 사례이다(임은진, 2021.7.3.). 전쟁과 빈곤의 기억을 가진 노인 세대와 디지털화가 일상인 청년 세대 간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 당시 청년기를 시작한 지금의 중장년 집단에게 평생직장의 개념은 희미해졌고, 현재 청년들은 점차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고용(precarious work)이 익숙하다.

[그림 2-7] 출생코호트별 생애사 궤적



자료: 이병훈, 남정민. (2014).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만족에 대한 시계열분석. 신광영, 강은애, 김경희, 남정민, 신진욱, 우명숙, ... , 이병훈(편저).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서울: 한울 아카데미, p.51쪽의 그림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보완함.

이러한 세대 간 관계를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이철승, 정준호, 2018; 이철승, 2019; 이철승, 정준호, 전병유, 2020) 혹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세대 내 불평등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신진욱, 2020; 신진욱, 2022)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제3절 소득·자산 기반 복지의 개념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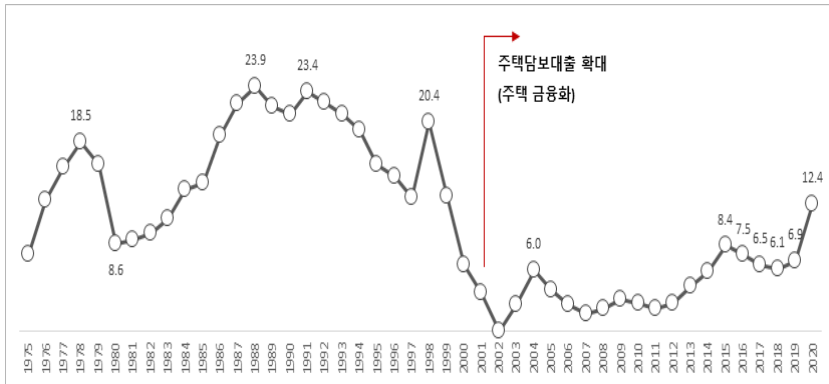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는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복지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집단적 행태를 말한다(김도균, n.d., 2020). 혹은 ‘저축과 자산의 축적을 지원하고 개인과 가족은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전략이기도 하다(여유진 외, 2017, p.276). 전자가 가계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산 기반 복지의 의미를 말한다면, 후자는 복지체제로서의 자산 기반 복지를 말하고 있다.

해외 논의에서 자산 기반 복지는 주로 자가주택 확보(home ownership)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Doling & Ronald, 2010; De Decker & Dewilde, 2010; Lowe, Searle & Smith, 2012; Dewilde & Ronald, 2017; Mosciaro & Aalbers, 2020; Bryant, Spies-Butcher & Stebbing, 2022; Benites-Gambirazio & Bonneval, 2022; Wood, Ong, & Haffner, 2022). 서구에서 자산, 특히 자가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질병이나 실업, 은퇴 등 갑작스러운 추가 소비나 소득 중단에 대응하는 사적 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적 복지, 특히 노후소득보장원으로서의 연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증분석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와 공적 연금이 교환관계(trade-off)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wilde

& Raeymaeckers, 2008; Delfani, De Deken & Dewilde, 2014). 주택은 자산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이용가치가 공존하는 다중적인 기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 산업화 시기부터 자산을 축적하는 주된 행태는 저축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실물자산,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변화해왔다(김도균, n.d., 2020). [그림 2-8]에서는 1975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 저축률의 추이를, [그림 2-9]에서는 1986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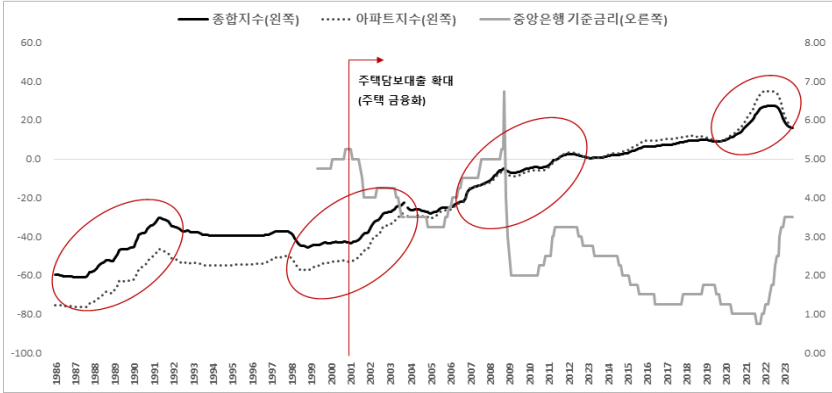
[그림 2-8] 가계 저축률(1975~2020년)



주: 가계 저축률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원자료로 하여 가계순저축을 가계순수입으로 나눈 백분율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점(2001년)은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07, p.1)를 근거로 함. 자료: (가계 저축률) 국가지표체계. (2023.3.23.). 가계 저축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51> 에서 2023.8.31. 인출 후 그림은 연구진 작성;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점) 한국은행. (2007.7.16.).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p.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d=112752&menuNo=200690&searchWrd=%EC%A3%BC%ED%83%9D%EA%B8%88%EC%9C%B5%EC%9D%98+%ED%98%84%ED%99%A9%EA%B3%BC+%EB%B0%9C%EC%A0%84%EB%B0%A9%ED%96%A5&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에서 2023.8.16. 인출

[그림 2-9]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기준금리 추이(1986~2023년)

(단위: 지수(2011.6.=100), %)



주: 월 단위 지수임. 2003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는 ①번 자료에 의해 2011년 6월 지수를 기준값(100)으로 하여 연구진이 재계산한 값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점(2001년)은 한국은행(2007, p. 1)을 근거로 함.

자료: ① (1986.1.~2012.12.) 통계청. (2023.1.3.).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2011.6.=100), 전국 주택가격동향.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N_04_00001&conn_path=I3 에서 2023.8.16. 인출; ② (2003.11.~2023.6.) 통계청. (2023.1.1.23.). 유형별 매매가격지수(2011.6.=100), 전국주택가격동향.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I3 에서 2023.8.16. 인출; ③ 한국은행. (2023). 기준금리 변동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ic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에서 2023.8.16. 인출; ④ 한국은행. (2007.7.16.).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p.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12752&menuNo=200690&searchWrd=%EC%A3%BC%ED%83%9D%EA%B8%88%EC%9C%B5%EC%9D%98+%ED%98%84%ED%99%A9%EA%B3%BC+%EB%B0%9C%EC%A0%84%EB%B0%A9%ED%96%A5&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에서 2023.8.16. 인출.

그림에서 보듯, 1980년대에 가구의 자산은 저축을 중심으로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소위 주택금융이 활성화되었다(한국은행, 2007, 김수현, 2022). 부채를 활용해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편입된다. 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한 후에는 대출과 이자 상환하는 것으로 저축이 대체된다.

[그림 2-9]에서 주목할 것은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가격 인상 시기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주택금융이 활성화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세 번 인상되었다.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인상기에는 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부담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0년대 부동산 가격 인상기에는 이미 저금리 시기였고 팬데믹으로 인해 양적 완화로 금리 인상이 예견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대출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증가했고(한국은행, 2022, p.129), 가구의 대출 상환부담이 증가하였다.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은 가구의 경상비용으로서, 실질 가구소득과 소비가 줄어드는 구성의 역설이 나타난다(정준호, 2022, pp.99-100). 자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축적 방식은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소득과 소비 등 다중적 불평등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의 불평등은 전승되는 것으로도 보인다(신진욱, 이민아, 2014; 백가현, 홍백의, 2015; 정준호, 전병유, 2020). 자가를 획득하는 데에 본인의 경제력과 함께 원가족으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받는 경제력이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과 증여로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승문, 2022).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산 기반 복지’를 확장해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가능성을 다룬다. 이 관점은 기존의 소득 중심의 복지 제도가 자산 불평등에는 대응하지 못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성과 맥을 같이 한다(정준호, 전병유, 2020). 생애주기 가설과 같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소득과 자산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산 분포 혹은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와 연동되어 있다면 자산 기반 복지를 검토하는 데에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산 기반 복지 제도의 범위가 단순

히 자산 형성과 자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소득과 자산의 증척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 유동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두 방향의 논의로 확장될 수도 있다(Dewilde & Raeymaeckers, 2008; Wallace, 2017).

제4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모형 개괄

이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분석하는 데에 일차적인 차별성을 가진다.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삶에서 경제적 웰빙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빈곤이나 불평등에 주목하는 다수의 연구는 소득 혹은 자산의 단일 차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다차원을 결합한 입체적 구조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국내 연구는 2010년대에 일부 이루어졌는데(성명재, 2011; 전병유, 정준호, 2014; 김민정, 2016; 김진영, 2017; 정준호, 2018), 이 연구는 최근까지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데에 두 번째 차별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경제력은 소득 활동을 하고 명의를 가지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가구 안에서 가구원과 공유한다(UN, 2011, pp.24-26). 가구원 A 명의의 주택에서 가구원 B와 C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B와 C 명의의 주택이 없지만 그들도 거주공간의 효용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통계청, 2022.6.28.), 전통적으로 남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된 생계부양자(sole brea-

dearner) 모형이 흐려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증하고 있다.⁶⁾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심판에 제청했고(문병효, 2009),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서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연령 자격을 폐지했다(국세청, 2019.4.30.),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resort)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보건복지부, 2021.9.30.) 등 소득보장정책의 신청자격 기준이 개인화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여기에서는 개인 단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 범위 내에서 가구 소득을 개인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분석과 함께 패널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분석, 그리고 국제비교의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된 분석자료는 다음 <표 2-2>와 같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자료원으로서,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단위 분석이 가능하다. 코호트 분석에 활용하는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가구 소득과 자산을 개인화하여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룩셈부르크자산조사(Luxembourg Wealth Study, 이하 LWS) 또한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화한 가구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다. 분석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 장에서 제시한다.

6) e-나라지표. (2023).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72 에서 2023.8.31. 인출

〈표 2-2〉 분석자료 개요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	LWS
지리적 범위 (모집단)		대한민국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 기준 전국 모든 가구와 가구원)	대한민국 (목표 모집단: 2018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우루과이
주요 변수	소득	가구 단위임. 단,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이용센터(RDC) 이용 시에 한해 개인 단위 분석 가능	가구 단위	가구 단위
	지출	가구 단위		
	자산	가구 단위임. 단,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이용센터(RDC) 이용 시에 한해 개인 단위 분석 가능		
	부채	가구 단위임. 단,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이용센터(RDC) 이용 시에 한해 개인 단위 분석 가능		
	연령	가구주 및 개인		
기간	2012/2017~2022 (공개시점 기준, 2017년부터 행정자료 보완)	2006~2023 (공개시점 기준)	국가별 상이	
생산주기	연간	연간	국가별 상이	
분석방법	원격접근서비스 (RAS)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서비스(LISSY)	
생산/관리주체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IS(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설계 결과. 대전: 통계청, p.2.;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 (LWS)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n.d.).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6.6. 등의 자료를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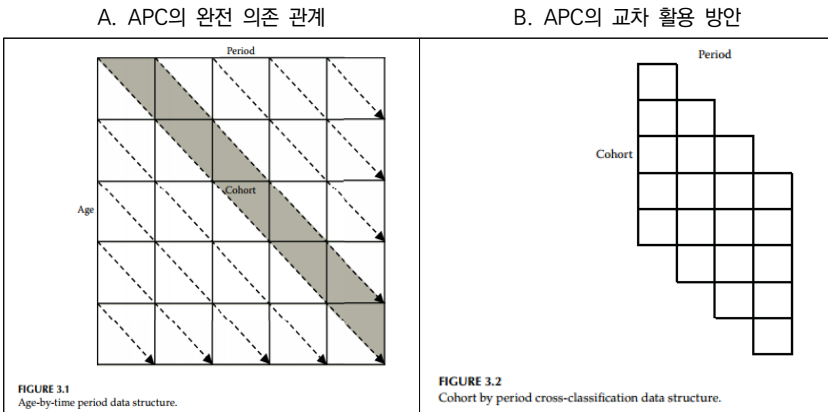
생애 관점, 즉 소득과 자산의 연령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데에는 연령-기간-코호트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 이하 APC)이 유용하다(전상진, 2004). APC는 생애주기에 따라 생애 과업과 필요에 당면하는 사람의 삶 궤적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강조하면서(Burton-Jeangros, Cullati, Sacker & Blane, 2015, p.9) 사회학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생애 단계별 필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 효과(Age Effects)와 기간 효과(Period Effects), 그리고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s)를 구별한다. 연령 효과는 연령집단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나 사회적 경험의 누적,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 변화, 혹은 그 모든 요소의 총합에 의해 유발된다. 학생에서 첫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고, 점차 일에 숙련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은퇴하고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자녀였던 그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역할은 생물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기간 효과는 특정한 시점에 모든 연령집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환경 변화, 경제 발전 등이 해당된다. 2020년에 시작한 팬데믹은 전 지구를 뒤덮은 대표적인 기간 효과이다. 코호트 효과는 특정 연도나 기간 범위 내에 출생 혹은 혼인, 질병 등 특별한 사건을 가진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경험이다. 출생코호트가 대표적이다. 소위 베이비부머나 산업화 세대, X세대, MZ 세대 등 특정 연령집단은 고유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코호트 효과로 추적한다(Yang, Fu & Land, 2004, p.76; Yang & Land, 2013, pp.1-2).

APC는 연령, 기간, 그리고 코호트를 식별하기 위한 변수(예를 들어 출생연도) 중 2개 이상의 변수값과 분석하고자 하는 측정치를 포함한 반복 횡단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나 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 문제는 다음 (수식 1)과 같이 연령과 기간, 코호트가 선형적으로 의

존적(linear dependent)이라는 것이다([그림 2-10]의 A 참조). 이 경우 5년 내지 10년 정도 다연령 혹은 다년간의 집단을 어긋나게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그림 2-10]의 B 참조)(Yang et al., 2004, p. 77; Yang & Land, 2013, p.18).

$$(수식 1) \text{ Age} = \text{Period} - \text{Cohort}$$

[그림 2-10] APC의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 방법



자료: Yang, Y., & Land, K. C. (2013).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Oxfordshire: Taylor & Francis p.16의 그림 3.1과 p.18의 그림 3.2

생애 관점, 즉 소득·자산 결합 분포에서 연령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다음 (수식 2)와 같다. 이어지는 제3장부터 제5장의 실증분석에서 분석자료와 분석 내용에 따라 분석모형을 구현하는 방식은 상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코호트 효과를 탐색하는 제4장의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에 있어 세대 간 혹은 세대 내 실태와 격차의 존재를 탐색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수식 2)

$$y_{ijt} = \alpha_{jt} + \sum \gamma_{jt} agegr_{ijt} + \sum \beta_{jt} X_{ijt} + \sum \pi_{jt} cohortgr_{ijt} + \sum \psi_{jt} year_{ij} + \epsilon_{ijt}$$

여기에서 y_{ijt} 는 국가 j 의 최근 t 연도 가구 i 의 결과변수이고, $agegr_{ijt}$ 는 연령집단 더미이다. 단, 연령은 19세 혹은 20세부터 79세까지 5세 단위로 설정하며,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이는 [그림 2-10]의 B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다. X_{ijt} 는 통제변수 벡터로서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등을 포함한다. 통제변수 또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cohortgr_{ijt}$ 는 출생코호트 집단 더미이다. 역시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기간의 범위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횡단 자료를 이용하는 제3장과 제5장에서는 10세 단위를 쓰고, 제4장 코호트 분석에서는 국가별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코호트를 분류한다. $year_{ij}$ 는 연도 효과이고, ϵ_{ijt} 는 오차항이다. 그러므로 이 모형에서 결과변수, 즉 소득·자산 결합 분포에 미치는 연령 효과는 γ_{jt}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5절 소결

제 3 장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이 연구는 소득으로 측정하는 한 사람의 경제적 웰빙에 자산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득과 자산은 생애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분절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생애 관점을 통해 두 요소의 결합 분포에 주목한다.

이 장은 한국의 상황에 집중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조망한다. 생애주기, 즉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에 대한 연령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의 기간 효과와 특정 기간 내에 사회적 사건을 공유하는 코호트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분석자료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주된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소득과 자산 명목의 개인화 경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가구에서 소득에 의한 지출과 자산을 일부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 분석을 시도하지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간 소득과 자산의 실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생애 관점으로 바라보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과 소득과 자산이 결합된 빈곤 유형이 또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소득과 자산의 경제력이 세대 간 이전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인지, 혹은 인적 자본과 경제활동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기본이기도 하다(Blanden & Machin, 2010). 소득을 지출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일련의 생애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수준의 상관성이 경직적이라면 인적 자본 개발의 의미가 상쇄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후자는 소득과 자산의 두 개 축으로 보는 복합적인 취약성이 집중되는 계층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빈곤은 주거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자산 등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누락할 수 있다. 이에 자산과 소득 간 결합 빈곤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의 이차원에 의해 확인된 경제적 취약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1. 분석자료

이 장에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횡단면 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이다.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한국의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데에 쓰인다.

이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는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된다.⁷⁾ 가구주는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

주와 상관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같은 거처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과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혼 자녀' 등을 포함한다. '현역군인,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 (12개월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가족',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가사사용인, 하숙생 등 동거인'은 조사 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등록센서스 결과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 보통, 섬인 조사구 내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한다.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활용해 추출한 445개 조사구의 6,44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부적격 조사구에 대해서는 대체 조사구를 3회 이내 대체하여 표집 오차를 통제한다. 최종 4,545가구 조사 완료를 목표로 조사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표집오차를 가중치로 보완하여 가구 단위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다(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으로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문항은 공통 문항을 활용하되, 금융 부문은 부채상환능력을, 복지 부문은 노후생활을 부가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는 조사표를 통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부터는 서베이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다. 다만, 2017년은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를 사용한다. 성별과 생년월일, 주소, 성명 등 개인고유정보를 활용한 식별키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다. 활용하는 행정자료는

7)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p.4.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근로·자녀장려금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 사회수혜금 급여지급액,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 연금공단의 연금 소득 및 기여금 자료 등이다.

소득과 지출은 조사시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유량(flow)을 파악하고,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3월 31일 기준의 저장(stock)을 파악한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및 사적 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한다. 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사적 이전지출의 비소비지출을 조사한다. 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저축 등 금융자산을 조사하며, 부채는 담보대출 등 금융부채를 조사한다. 소득과 자산, 부채는 가구원 개인 단위 정보를 조사하여 가구 단위로 합산하고, 지출은 가구가 공유하는 총생활비를 조사한다.

소득 자료의 출처가 상이하므로 이 장에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로 제한한다. 자산은 조사 연도 기준 시점의 값이고, 소득은 조사 이전 연도 연간의 값이다. 여기에서는 조사시점, 즉 자산의 기준시점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 방법

작성 방법	조사 연도(소득 지출 기준연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17년 ('16년)	'18년 ('17년)	'19년 ('18년)	'20년 ('19년)	
조사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7년)				
행정자료 보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용 서비스에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모두 가구 단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 개인의 금융생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개인 단위 정보를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단위의 정보는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중치를 이용해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며, 개인 단위의 정보는 가구 가중치에 가구규모를 곱하여 산출한 개인 가중치를 이용한다. 개인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UN(2011) 등에서 합의해 룩셈부르크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LIS) 등 가계 자료 분석 시 통용되는 것이다.⁸⁾ 분석 과정에서 분석 내용에 따라 가구 가중치 혹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가구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개인 단위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을 시도한다. 지출은 가구 단위의 정보이므로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되, 필요에 따라 부가지표로서 개인 단위의 부채를 함께 검토한다.

2.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

2017년 이후 시간적 범위에서의 개인 단위 자료의 소득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근로소득, 행정자료로 보완한 사업소득, 행정자료로 보완한 재산소득, 행정자료로 보완한 공적이전소득, 조사에 의한 가구 간 이전소득,

8)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a). Methodological Notes.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5.11.

그리고 조사에 의한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의 합이다. 사적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비소비지출을 감하지 않았으므로 경상소득으로 간주한다. 총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이며, 분석자료에서 지분율과 납입횟수를 반영한 값이다. 총자산이나 총부채의 값이 결측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했다.

분석자료의 시점별 5세 단위 연령집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의 성인기를 아우르므로 18세 이하 집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에서 유효표본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 크기이고, 구성비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각 연도 횡단면 시점에 5세 단위별 연령집단에 따라 실증분석할 수 있는 유효표본의 크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연도별 연령집단 분포

(단위: 명, %)

〈 유효표본(가중치 미적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24세	3,540	3,194	3,054	2,896	2,700	2,538
25~29세	2,751	2,504	2,323	2,273	2,168	2,153
30~34세	3,032	2,630	2,307	2,036	1,929	1,937
35~39세	3,608	3,561	3,286	2,951	2,650	2,283
40~44세	3,674	3,494	3,288	3,204	3,049	2,940
45~49세	3,962	3,905	3,662	3,469	3,387	3,108
50~54세	3,728	3,629	3,703	3,603	3,570	3,492
55~59세	4,017	4,095	4,004	3,751	3,500	3,360
60~64세	3,273	3,529	3,743	3,769	3,915	3,889
65~69세	2,586	2,760	2,801	2,947	3,118	3,195
70~74세	2,265	2,273	2,308	2,328	2,470	2,504
75~79세	1,827	2,056	2,051	2,045	2,014	1,988
80~84세	1,225	1,263	1,339	1,424	1,447	1,475
85~89세	503	540	581	646	724	768
90세 이상	165	172	189	202	266	277
전체	40,156	39,605	38,639	37,544	36,907	35,907

〈 구성비(가중치 적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24세	9.5	8.8	8.6	8.3	7.9	7.6
25~29세	7.0	6.7	6.4	6.4	6.5	6.8
30~34세	7.7	6.7	6.1	5.7	5.9	6.7
35~39세	9.6	9.6	9.1	8.5	8.7	8.6
40~44세	10.2	10.0	9.7	9.6	9.4	9.6
45~49세	10.7	10.9	10.6	10.3	10.5	9.6
50~54세	9.8	9.7	10.1	10.2	10.4	10.5
55~59세	9.9	10.2	10.2	9.9	9.5	9.6
60~64세	7.7	8.3	9.0	9.4	9.7	9.7
65~69세	5.6	6.0	6.3	6.9	6.9	6.9
70~74세	4.7	4.8	5.1	5.2	5.2	5.2
75~79세	3.7	4.3	4.5	4.7	4.3	4.0
80~84세	2.5	2.6	2.9	3.2	3.1	3.1
85~89세	1.1	1.1	1.2	1.4	1.5	1.6
90세 이상	0.3	0.4	0.4	0.4	0.6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유효표본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고, 구성비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조사시점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다음 표는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통합한 원자료(pooled data)에서 개인 단위의 명의 기준 소득과 자산, 부채를 보유한 인구의 비율을 연령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소득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95.0%에 달한다. 연령집단별로는 20대 초반에 경상소득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75.7%로 낮은 편이고, 20대 후반 89.6%, 30대 초반 95.3%로 점차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집단은 99% 이상이 본인 명의의 소득원이 있다. 은퇴 이후 연령대인 노인 인구의 소득원은 공·사적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는 인구 비율은 96.1%에 달한다. 총자산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산액이므로, 저축액이 있는 경우 자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집단별로는 20대 초반과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집단의 자산 보유율이 8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인 명의의 부채가 있는 비율은 32.2%로 낮은 편이다. 20대 초반 연령집단의 부채 보유율은 4.0%에 불과하며, 20대 후반 14.9%, 30대 초반 31.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 40대 후반에 48.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후 부채 보유율이 점차 감소해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집단은 1.9%에 불과하다.

〈표 3-3〉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보유 인구 비율

(단위: %)

구분	경상소득		총자산		총부채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9~24세	75.7	24.3	88.4	11.7	4.0	96.1	100.0
25~29세	89.6	10.4	92.9	7.1	14.9	85.1	100.0
30~34세	95.3	4.7	95.9	4.1	31.4	68.6	100.0
35~39세	95.5	4.5	97.4	2.6	43.8	56.2	100.0
40~44세	96.0	4.0	98.0	2.0	47.6	52.5	100.0
45~49세	97.0	3.0	98.3	1.7	48.4	51.6	100.0
50~54세	97.5	2.5	98.3	1.7	45.6	54.4	100.0
55~59세	97.3	2.7	98.2	1.8	41.3	58.7	100.0
60~64세	97.2	2.9	97.9	2.2	33.7	66.3	100.0
65~69세	99.2	0.8	97.0	3.1	26.3	73.7	100.0
70~74세	99.4	0.6	95.8	4.2	18.6	81.4	100.0
75~79세	99.5	0.5	94.3	5.7	13.1	86.9	100.0
80~84세	99.2	0.8	92.3	7.7	7.8	92.2	100.0
85~89세	99.9	0.1	90.2	9.8	4.4	95.7	100.0
90세 이상	99.8	0.3	83.4	16.6	1.9	98.2	100.0
전체	95.0	5.0	96.1	3.9	32.2	67.8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다음 표는 연도별 개인 및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의 기초통계량이다. 여기에서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는 소득과 자산, 부채가 있는 가구원의 해당 연도 값을 합한 값으로 공식 통계량과는 다를 수 있다. 경상소득과 총자산, 총부채 모두 2017년부터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는 개인 단위 소득,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3-4〉 연도별 개인 단위 소득, 자산, 부채 기초통계량

(단위: 만 원/연, 만 원)

〈 개인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소득	2444.1	2582.2	2670.6	2759.7	2880.4	3076.2
총자산	9149.0	10071.4	10237.7	10492.2	11261.8	12238.8
총부채	2250.9	2508.8	2637.6	2821.5	3065.7	3263.3

〈 가구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소득	6357.7	6615.2	6797.8	6896.0	7111.8	7511.7
총자산	24096.2	26120.9	26221.3	26389.7	27876.8	30257.5
총부채	5755.6	6283.6	6594.0	6920.6	7414.2	7759.3

주: 개인 단위 소득, 자산, 부채는 가중치를 적용함. 가구 단위 소득, 자산, 부채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전체 연령집단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1. 연령집단 분포

다음 표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주, 배우자, 자녀로서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족 동거 형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기초통계량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2017년 51.8%에서 2022년 51.9%로 남성에 비해 약간 많다. 평균 연령은 2017년 48세에서 2022년 50.2세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

이고, 가구원 수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3.0명으로 약간씩 감소한다.

가구주가 본인인 경우가 2017년 44.7%에서 2018년 45.3%로 약간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해 2022년에는 48.0% 수준이다. 배우자인 경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1% 내외 수준에서 머무른다.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는 2017년 19.4%에서 약간씩 감소해 2022년 17.2% 수준에 이른다.

교육수준은 연도를 거듭할수록 (전문)대학 이상 집단에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졸 이하인 경우는 2017년 21.4%에서 2022년 19.3%로 감소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같은 기간 43.2%에서 45.6%로 약간 증가했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도 2017년 4.8%에서 2022년 5.1%로 0.3%p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17년 64.0%에서 2018년 64.9%로 약간 증가한 후 2022년까지 62.3%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혼했거나 별거, 사별한 경우는 20147년 12.7%에서 2022년 13.9%로 약간씩 증가해왔고, 미혼인 경우는 2017년 23.3%에서 2020년 22.1%로 약간씩 감소했다가 2022년 23.8%로 약간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2017년 32.5%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35.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1%대를 유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 내외의 수준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대를 유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39.3%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22년에 36.4%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초통계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준거집단=남성) (×100=%)	0.518	0.522	0.521	0.523	0.522	0.519
만 연령(세)	48.0	48.9	49.6	50.3	50.3	50.2
가구원 수(명)	3.2	3.2	3.1	3.0	3.0	3.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4.7	45.3	45.9	46.7	47.1	48.0
배우자	31.1	31.5	31.4	31.4	31.1	30.5
자녀/자녀의 배우자	19.4	18.5	18.3	17.7	17.5	17.2
기타 가구원	4.9	4.7	4.5	4.2	4.3	4.4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4	21.4	21.4	21.6	20.4	19.3
고졸	30.6	30.4	30.4	30.0	30.1	30.0
(전문)대학	43.2	43.3	43.3	43.5	44.6	45.6
대학원 이상	4.8	4.9	4.9	4.9	4.8	5.1
혼인상태(%)						
유배우	64.0	64.9	64.4	64.3	63.6	62.3
이혼/별거/사별	12.7	12.8	13.2	13.6	13.7	13.9
미혼	23.3	22.4	22.4	22.1	22.7	23.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5	32.9	33.3	32.5	33.4	35.4
임시일용근로자	11.4	11.1	11.3	11.2	11.3	1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0	2.9	2.7	2.6	2.7	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5	9.7	9.6	9.5	9.9	9.8
무급가족종사자	3.0	3.0	3.0	2.9	2.9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	1.3	1.5	1.6	1.5	1.5
비경제활동인구	39.3	39.1	38.6	39.7	38.4	36.4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전체 연령집단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다음 표는 개인 단위 경상소득, 총자산, 총부채 수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2017~2022년 통합 자료를 이용하여 〈표 3-5〉에서 확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도 고정효과, 출생코호트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연령과 연령 제곱항의 계수를 보면, 연령대별 소득과 자산, 부채가 위가 볼록한 이차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생애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기를 고

점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생애주기 가설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확인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상소득이나 부채액이 낮은 편이다. 총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혼인상태의 영향력이 개인 단위 소득이나 부채에 미치는 경향과 상이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1-1〉 참조).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기타 가구원에 비해 가구주의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이 높고, 배우자는 소득과 부채 수준은 낮은 반면, 자산 수준은 높다. 자녀거나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는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자산은 유의하게 높고 부채는 유의하게 낮다.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부채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이 높다. 혼인상태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 이혼했거나 별거, 사별한 경우는 유의하게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다.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 소득과 자산, 부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자산, 부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모두 높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 자산과 부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과 자산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부채는 유의하게 높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과 자산이 유의하게 낮지만 부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과 자산, 부채가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데, 특히 소득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구 경상소득과 총자산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가 높은 양의 관계를 보인다. 이 통계치는 연도 고정효과와 출생코호트 고정효과를 모두 통제한 것이다.

〈표 3-6〉 소득, 자산, 부채 수준 영향요인

구분	로그 경상소득	로그 총자산	로그 총부채
여성 (준거집단=남성)	-0.163*** (0.012)	0.157*** (0.019)	-0.227*** (0.031)
연령	0.064*** (0.005)	0.071*** (0.007)	0.036** (0.014)
연령제곱(/100)	-0.039*** (0.004)	-0.049*** (0.006)	-0.047*** (0.013)
가구주와의 관계(준거집단=기타 가구원)			
가구주	0.545*** (0.024)	2.118*** (0.045)	0.383*** (0.106)
배우자	-0.313*** (0.028)	0.545*** (0.048)	-0.355** (0.112)
자녀/자녀의 배우자	-0.039 (0.027)	0.433*** (0.051)	-0.708*** (0.122)
가구원 수	-0.022*** (0.005)	-0.199*** (0.010)	0.002 (0.011)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151*** (0.014)	0.403*** (0.025)	0.137*** (0.036)
(전문)대학 졸업 이하	0.272*** (0.016)	0.819*** (0.029)	0.380*** (0.040)
대학원 이상	0.555*** (0.025)	1.005*** (0.040)	0.579*** (0.055)
혼인상태(준거집단=배우자 있음)			
이혼/별거/사별	-0.026+ (0.015)	-0.651*** (0.031)	0.035 (0.039)
미혼	-0.054** (0.019)	-0.508*** (0.038)	-0.430*** (0.049)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47*** (0.011)	-0.534*** (0.022)	-0.221*** (0.035)

58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구분	로그 경상소득	로그 총자산	로그 총부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129*** (0.018)	0.903*** (0.030)	0.656*** (0.0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568*** (0.012)	0.763*** (0.021)	0.123*** (0.029)
무급가족종사자	-2.981*** (0.041)	-0.092* (0.036)	0.495*** (0.08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162*** (0.025)	-0.182*** (0.047)	0.016 (0.064)
비경제활동인구	-2.198*** (0.015)	-0.445*** (0.018)	-0.128*** (0.034)
로그 가구 경상소득		1.000*** (0.014)	0.274*** (0.019)
로그 가구총자산	0.059*** (0.003)		0.131*** (0.007)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출생코호트 고정효과	Yes	Yes	Yes
상수	5.016*** (0.206)	-4.943*** (0.498)	6.470*** (0.433)
유효표본	217459	220277	69303
adj. R-sq	0.512	0.425	0.170

주: 전체 연령집단 기준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가구 단위 군집 표준오차 (clusterd standard error)임. 가중치를 적용함. +p<0.1 * p<0.05 **p<0.01 ***p<0.001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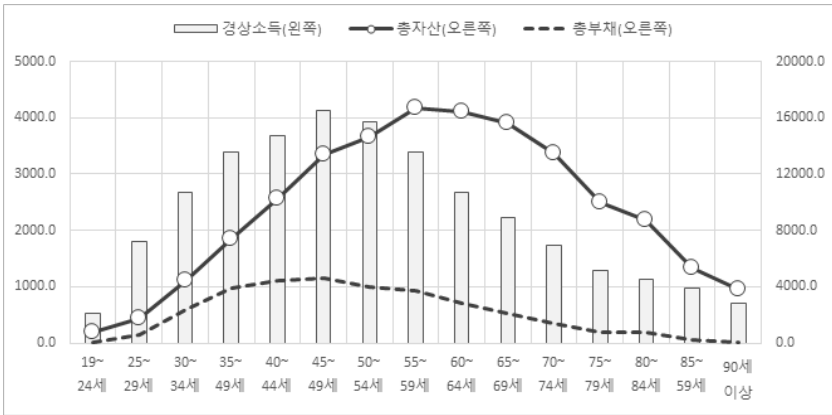
〈표 3-6〉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도 고정효과, 출생코호트 고정효과를 통제했을 때 연령에 따른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이 위가 불룩한 이차함수의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 3-1]은 연령집단별 경상소득과 총자산, 총부채의 수준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9) 생애

9) 가구 단위 및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소득과 자산, 부채의 가구주 및 개인 연령대별 수준은 [부그림 1-1]과 [부그림 1-2]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부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의 형태는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단위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가구주에 한하여 50% 이상인 그 외 가구원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표 3-5〉 참조). [부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균등화한 가구 소득과 자산, 부채는 가구원 개인 단위에서 경향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가구에서 소득을

주기 가설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궤적, 즉 청년기에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40대 후반에 소득이 최고점을 보이며, 노년기까지 소득이 점차 감소한다.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안정되는 30대부터 소비 대비 소득의 초과분을 자산으로 형성하기 시작하여 50대 후반에 최고점을 보인 후 노년기까지 점차 감소한다. 30대에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부채 또한 증가하고, 40대 후반에 최고점을 보인 후, 점차 부채를 상환하여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의 경향은 제2장에서 검토한 생애주기 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림 3-1]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단위: 만 원/연, 만 원)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공유하는 경향에 의해 개인 소득과 자산의 생애 궤적을 추적하기 어렵다.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1.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

생애 관점에서 소득·자산의 결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다음 표와 그림은 연도별 개인 단위 경상소득과 총자산, 총부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과 자산, 부채 간 관계가 비선형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수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함께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변수값의 순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측정 방법이 상이하므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전병유, 정준호, 2014; 정준호, 2018).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과 자산,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과 자산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4 내외에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55 내외에서,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0.38 내외 수준에서 유지된다. 자산과 부채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2017년 0.42 수준에서 2018년 0.435 수준으로 약간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해 2020년대에는 0.33 내외 수준에서 유지된다. 자산과 부채 간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0.16 내외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부채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30 내외 수준에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3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0.2 내외 수준에서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간 상관관계가 부채와의 상관관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3-7〉 연도별 소득, 자산, 부채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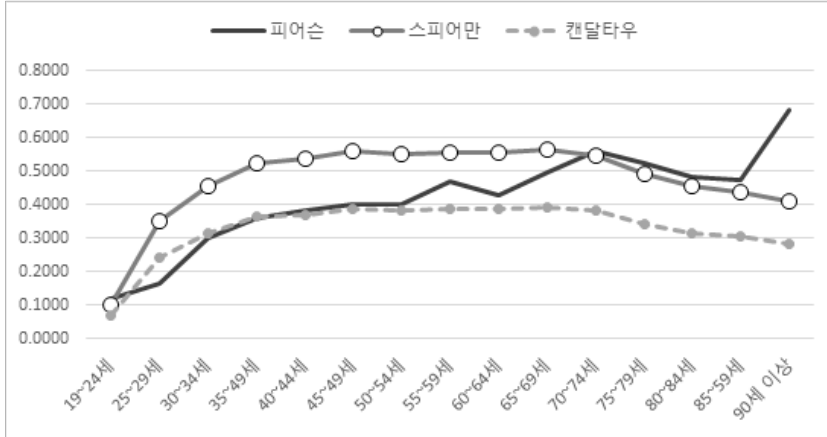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경상소득 -총자산	피어슨	0.4296	0.4169	0.3973	0.3809	0.3849	0.3742	0.3952
	스피어만	0.5432	0.5476	0.5414	0.5424	0.5521	0.5386	0.5453
	켄달 타우	0.3759	0.3789	0.3749	0.3756	0.3829	0.3736	0.3777
총자산 -총부채	피어슨	0.4218	0.4350	0.3666	0.3316	0.3387	0.3362	0.3680
	스피어만	0.2970	0.2959	0.2901	0.2925	0.2889	0.2881	0.2922
	켄달 타우	0.1629	0.1640	0.1612	0.1634	0.1599	0.1576	0.1616
경상소득 -총부채	피어슨	0.2972	0.2840	0.3103	0.3239	0.2999	0.2974	0.3034
	스피어만	0.3518	0.3564	0.3664	0.3707	0.3731	0.3726	0.3643
	켄달 타우	0.1933	0.1978	0.2042	0.2077	0.2073	0.2046	0.2020

주: 피어슨 상관계수는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p < 0.001$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연령집단별로 세분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20대 초반 집단에서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타우 상관계수 모두 0.1 정도의 낮은 수준인 데에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관계수도 점차 증가해 40~50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50대 후반과 70대 초반, 90세 이상 집단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 후기부터 은퇴 이전까지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 상관계수의 구체적인 값은 〈표 3-8〉에 제시하였다.

62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그림 3-2]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상관계수



주: 피어슨 상관계수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표 3-8>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상관계수

구분	피어슨	스피어만	켈달 타우
19~24세	0.1177	0.1024	0.0684
25~29세	0.1645	0.3518	0.2410
30~34세	0.2997	0.4561	0.3135
35~39세	0.3601	0.5236	0.3624
40~44세	0.3822	0.5347	0.3707
45~49세	0.3999	0.5578	0.3889
50~54세	0.4007	0.5492	0.3821
55~59세	0.4686	0.5548	0.3879
60~64세	0.4285	0.5566	0.3876
65~69세	0.4962	0.5623	0.3918
70~74세	0.5618	0.5473	0.3815
75~79세	0.5247	0.4930	0.3410
80~84세	0.4832	0.4568	0.3160
85~89세	0.4724	0.4370	0.3036
90세 이상	0.6823	0.4109	0.2830

주: 피어슨 상관계수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2.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

여기에서는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집단에 따른 Shorrocks(1978)의 이동성 지수(M(P))를 산출하였다. 이동성 지수는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범위에서 100을 곱했을 때 한 유형의 특정 분위에서 다른 유형의 다른 분위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은 소득 5분위와 자산 5분위 간의 이동성 지수와 소득 10분위와 자산 10분위 간의 이동성 지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동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5분위 및 10분위별 소득과 자산 분포는 <부표 1-2>~<부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조건부 5분위 간의 이동성 지수를 보면, 20대 초반에 이동성 지수는 0.95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60대 중반까지 이동성 지수는 0.85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60대 후반부터는 점차 이동성 지수가 다시 증가해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의 견고성이 완화된 다. 10분위 간 이동성 지수를 보면 20대 초반에는 0.9797로 매우 높고, 2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0.9 수준을 유지하다가 60대 후반부터 다시 높아져 80대 초반에는 0.9844 정도로 나타난다. 청년기부터 중장년기에 비해 노년기에는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의 결합 분포가 상당히 유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기부터 중장년기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 또한 0.8 이상의 높은 이동성 지수를 보여,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가 견고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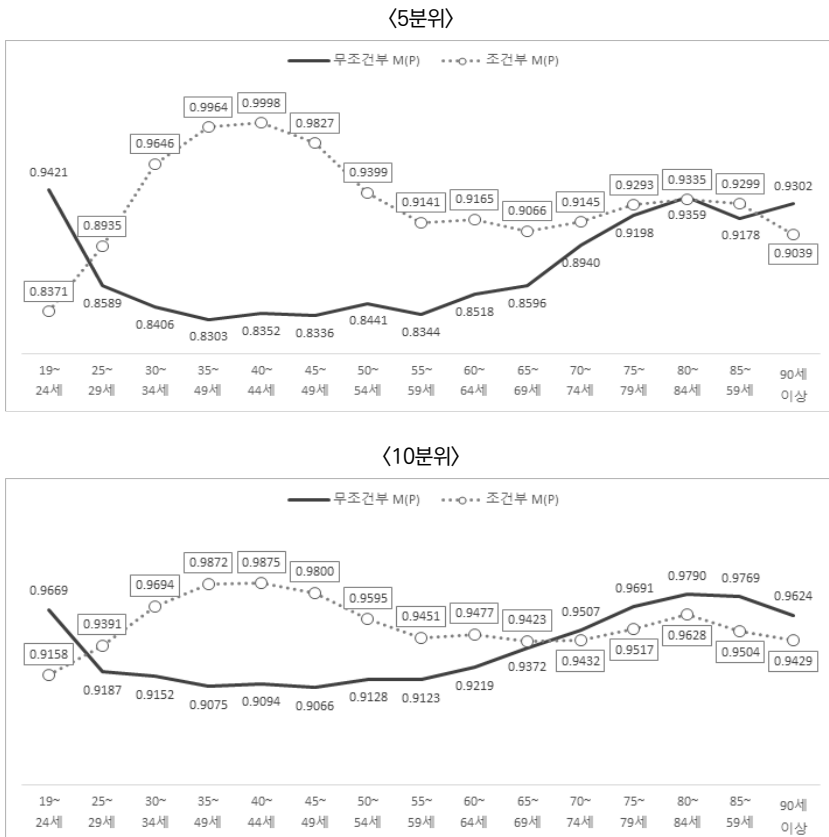
그런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¹⁰⁾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위 이동성 지수의 연령집단별 양상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조건부 이동성 지수를 보면, 5분위 결합 분위 모두 20대 초반에서 높다가 20대 후반부터

10) 여기에서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5>와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대까지 0.85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70대부터 점차 높아져 무조건부 이동성 지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10분위 결합 분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집단별 조건부 이동성 지수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혼인 등의 행태로 소득과 자산 간 이동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3]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 지수(Shorrocks)

(단위: ×1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건부 이동성 지수(M(P))는 <표 3-6>에서 제시한 변수를 통제한 잔차를 활용하여 분위를 재계산한 값을 활용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3. 소득·자산 결합 빈곤 분포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그림 3-4]와 같이 소득·자산 결합 빈곤 관계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설정한 소득 빈곤선은 균등화 가구 경상소득 중위값의 50%이고, 자산 빈곤선은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이다(Brandolini, Magri & Smeeding, 2010; Rist, 2022). 여기에서 소득 빈곤은 가구 경상소득이 소득 빈곤선 미만인 경우로, 자산 빈곤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가구 순자산이 빈곤선 미만인 경우로 조작적 정의한다.

[그림 3-4] 소득·자산 결합 빈곤 개념

소득 빈곤선	(2) 소득 비빈곤 & 자산 빈곤	(1) 소득-자산 비빈곤
	(4) 소득-자산 빈곤	(3) 소득 빈곤 & 자산 비빈곤
	자산 빈곤선	자산

다음 표와 그림은 연도별로 개인 단위의 (1) 소득-자산 비빈곤, (2)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 (3)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 (4) 소득-자산 빈곤 집단의 분포를 확인한 것이다. 개인 단위의 분석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소득을 주로 활용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경향과는 상이할 수 있다.

분포를 보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비빈곤한 집단은 2017년 64.4%에서 2022년 63.5%로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은 2017년 17.0%에서 2021년 20.5%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18.7%로 다소 감소하였다.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 내외 수준에서 유지된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같은 기간 7~8% 수준에 머무른다.

〈표 3-9〉 연도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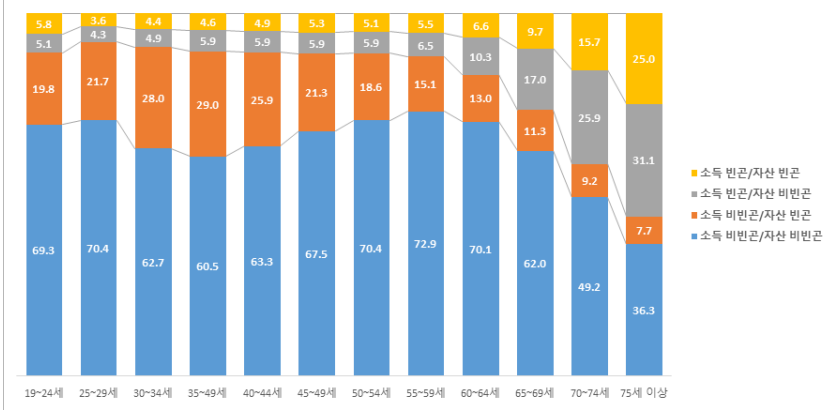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 소득·자산 비빈곤	64.4	64.7	64.3	62.8	62.3	62.5	63.5
(2)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	17.0	16.9	17.9	19.1	20.5	20.7	18.7
(3)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	10.1	10.5	10.1	10.2	10.1	9.6	10.1
(4) 소득·자산 빈곤	8.4	7.9	7.8	7.9	7.2	7.2	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빈곤 유형을 연령집단별로 분석하면 [그림 3-5]와 같다. 20대에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70% 내외로 50대와 60대 초반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다. 20대에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은 20% 내외,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4~5% 정도이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대 초반 5.8%, 20대 후반 3.6%이다. 30대가 되면서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다시 40대부터 이 집단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다. 그런데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과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30대부터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은퇴한 이후인 고령자 집단을 보면,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하거나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소득이 빈곤한 집단이 증가한다. 70대에 이르러서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이 초반 25.9%에서 후반 31.1%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초반 15.7%에서 후반 25.0%로 증가해 노년기의 빈곤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림 3-5]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표 3-10>은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별 연령집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과 중장년기에 소득이 비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집단이 많은데, 50대부터 이 집단의 비율이 점차 낮아져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의 초과분을 이용해 부채를 상환하면서 순자산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집단에서 소득이 빈곤한 유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은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기초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 자산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기제가 이 집단에서 유효할 수 있다.

〈표 3-10〉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별 연령집단 분포

(단위: %)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19~24세	9.2	8.9	4.3	6.3	8.4
25~29세	7.3	7.7	2.8	3.1	6.6
30~34세	6.4	9.7	3.2	3.7	6.5
35~49세	8.6	14.0	5.2	5.4	9.0
40~44세	9.7	13.5	5.7	6.2	9.8
45~49세	11.1	11.9	6.1	7.1	10.4
50~54세	11.2	10.1	5.9	6.7	10.1
55~59세	11.3	8.0	6.4	7.0	9.9
60~64세	9.9	6.2	9.2	7.7	9.0
65~69세	6.3	3.9	10.8	8.1	6.4
70~74세	3.9	2.5	12.9	10.2	5.0
75세 이상	5.1	3.6	27.4	28.7	8.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전체 대비 비율이 높은 경우 볼드체 표시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표 3-1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중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약간 낮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다소 높다. 가구원 수는 소득이 빈곤하지 않은 두 집단에서 3.3명 정도 수준인 데에 비해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은 빈곤한 집단은 2.3명,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2명 정도로 적은 편이다.

가구주 중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다른 가구원에 비해 다소 높다. 이 집단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노인 1인 가구의 영향일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가족과의 동거 여부가 안정적인 소득 활동과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비율이 높다. 혼인상태에 따라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 경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거나 사별한 경우 소득이 빈곤한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빈곤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

〈표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구분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전체	63.5	18.7	10.1	7.7	100.0
성별					
남성	65.6	19.0	9.0	6.5	100.0
여성	61.6	18.4	11.1	8.9	100.0
가구원 수	3.26	3.28	2.31	2.19	3.0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7.7	18.6	12.7	11.1	100.0
배우자	66.4	19.4	9.4	4.9	100.0
자녀/자녀의 배우자	73.0	17.9	5.0	4.2	100.0
기타 가구원	65.3	18.5	9.0	7.3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9	10.9	23.3	18.0	100.0
고졸	62.6	20.2	9.4	7.7	100.0
(전문)대학	69.9	21.6	5.0	3.6	100.0
대학원 이상	78.2	16.5	3.4	2.0	100.0
혼인상태					
유배우	66.5	19.3	9.3	4.9	100.0
이혼/별거/사별	40.7	15.2	20.0	24.2	100.0
미혼	68.5	19.0	6.4	6.1	100.0

7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총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1.2	23.2	3.2	2.4	100.0
임시일용근로자	53.5	22.1	12.7	11.8	10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1.5	16.2	1.5	0.8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9.7	14.4	12.6	3.3	100.0
무급가족종사자	72.5	9.4	15.9	2.2	1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6.8	26.8	2.9	3.5	100.0
비경제활동인구	56.1	15.4	15.1	13.4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조사시점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다음 <표 3-12>에서는 <표 3-11>에서 확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유형을 결정하는 영향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다. 연령집단별로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에 속하거나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하거나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영향력은 위가 볼록한 이차함수의 형태를 띤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순자산을 구축하는 경제활동기인 중장년기를 고점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와 은퇴 이후 노년기에 소득과 자산 중 어느 하나가 빈곤하거나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가구주의 경우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과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배우자인 경우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은 오히려 높다. 자녀이거나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는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은 빈곤하지

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다소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 중 어느 한 요소가, 혹은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진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거나 사별한 경우 소득이 빈곤하거나 자산이 빈곤하거나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 집단은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에 속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과 자산 중 어느 한 요소가 빈곤하거나 모두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자산이 빈곤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도 고정효과와 출생코호트 고정효과를 통제한 것이다.

〈표 3-12〉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짓

준거집단 (소득·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 자산 빈곤	소득 빈곤 / 자산 비빈곤	소득·자산 빈곤
여성 (준거집단=남성)	0.018 (0.023)	0.106*** (0.028)	0.047 (0.034)
연령	-0.031*** (0.008)	-0.066*** (0.010)	-0.099*** (0.012)
연령제곱(/100)	-0.016+ (0.008)	0.059*** (0.008)	0.073*** (0.010)

72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준거집단 (소득·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 자산 빈곤	소득 빈곤 / 자산 비빈곤	소득·자산 빈곤
가구주와의 관계(준거집단=기타 가구원)			
가구주	0.070 (0.049)	1.746*** (0.058)	2.237*** (0.076)
배우자	-0.168** (0.054)	0.995*** (0.065)	1.202*** (0.091)
자녀/자녀의 배우자	-0.790*** (0.050)	0.688*** (0.087)	0.115 (0.102)
가구원 수	0.000 (0.008)	-0.349*** (0.012)	-0.244*** (0.018)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038 (0.028)	-0.500*** (0.024)	-0.560*** (0.031)
(전문)대학 졸업 이하	-0.304*** (0.030)	-1.067*** (0.030)	-1.419*** (0.040)
대학원 이상	-0.679*** (0.044)	-1.484*** (0.064)	-2.039*** (0.094)
혼인상태(준거집단=배우자 있음)			
이혼/별거/사별	0.366*** (0.035)	0.271*** (0.037)	1.018*** (0.045)
미혼	-0.400*** (0.042)	0.142* (0.056)	0.484*** (0.061)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99*** (0.026)	1.243*** (0.036)	1.540*** (0.0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411*** (0.048)	-1.049*** (0.121)	-1.150*** (0.1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226*** (0.030)	0.708*** (0.036)	-0.154** (0.058)
무급가족종사자	-0.474*** (0.057)	1.512*** (0.048)	0.558*** (0.1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272*** (0.056)	0.081 (0.115)	0.424*** (0.119)
비경제활동인구	0.087*** (0.021)	1.468*** (0.031)	1.809*** (0.039)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출생코호트 고정효과	Yes	Yes	Yes
상수	2.229* (1.085)	-0.919 (0.599)	-0.560 (0.675)
유효표본	228,758		
LR chi2	28560.213		

주: 전체 연령집단 기준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가중치를 적용함. +p<0.1 * p<0.05 **p<0.01 ***p<0.001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내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실태를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주된 분석자료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였고,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개인 단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 수준의 경향을 실증분석하여 생애주기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태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구 단위 분석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조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그림 3-1], [부그림 1-2] 참조).

또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높아지고 노년기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그림 3-2] 참조). 이러한 경향은 소득과 자산의 순위를 고려한 상관분석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 또한 상관성 분포와 유사하게 중장년기에 높은 역 U자형을 보였다([그림 3-3] 참조).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 모형에서는 중장년기에 저점을 보이는 U자형으로 변화해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인적 자본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와 은퇴 이후 연금 등 공적이전과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노년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 모형에서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높다. 이는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에 의한 경제력과 자산에 의한 경제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에서 청년기부터 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소득과 자산 중 한 차원이 빈곤한 집단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5] 참조).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소득이 빈곤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와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자산 혹은 소득의 경제력이 불안정할 수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청년기는 교육과 숙련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고, 노년기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기에 기여한 사회보장과 축적한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즐기는 시기이다. 이들 시기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내재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사회안전망은 예측된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방법론에 대한 함의로,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경제적 취약성의 다차원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자산 빈곤은 부채를 감한 순자산이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자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과중한 부채 부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제4장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3절 연령과 출생코호트에 따른 소득, 자산 수준

제4절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제5절 소결

제 4 장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이 장의 분석은 생애주기 관점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왔던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경제적 취약성이 증대하는 지점을 연령과 출생코호트를 구분하여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 공적이전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을 실증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처럼 사회정책 분야에서 물질적 경제 수준의 궤적을 정형화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경제 수준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공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정책 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경제 수준의 추이와 소득보장 지원은 많이 고려된 반면, 세대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았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득, 자산, 복지의 변화는 작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팬데믹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이 있었고, 국내적으로 2000년 중반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심화하였다.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유독 더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복지제도의 외연 확대는 지속되었고, 동 기간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제도의 도입과 개편 또한 다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결정하는 시장에서의 소득, 축적된 자산, 국가에 의해 보전받는 공적이전소득,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지위에 대한 출생코호트 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의 기획과 준비에 있어서 어느 대상을 주목해야 하는지, 실제로 세대나 연령에 주목하는 접근이 유효할 것인지를 탐색하려 한다. 시간 관련 변인인 출생코호트, 연령, 기간의 효과를 분리하고자 고안된 APC 분석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의 세대 간 유·불리, 그리고 지난 15년간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속히 성장한 복지 혜택의 수혜가 어느 출생코호트에 더 집중되어 있고 어느 코호트는 소외되어 있는지를 실증한다. 그에 더해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빈곤 지위에 대한 출생코호트, 연령, 기간 각각의 효과를 파악한다. 기본적으로 출생코호트를 주된 관심사로 하지만, 출생코호트와 시점의 효과를 분리한 연령의 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생애 관점의 소득·자산 지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시간 관련 변인의 각 효과를 분석하고자 사용한 APCD(APC-Detrended) 분석 방법과 자료 구성을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연령과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본격적인 APCD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연령, 출생코호트, 기간의 효과를 각각 분리하여 살펴본다.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1. 분석 방법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간의 선형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모형으로는 이들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운 식별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회귀모형에 투입해야만 각각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학과 인구학, 관련 분야에서 연령 효과, 시간 효과, 코호트 효과를 분리 식별하는 APC 분석모형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경쟁적으로 존재한다.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제약을 가하는 추정 방식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APC-IE, HAPC, APCD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쇼벨과 해밀턴(Chauvel & Hamilton, 2013)이 제안한 APCD (APC-Detrended, 이하 APCD) 모형을 이용하였다. APCD는 선형추세(linear trends)와 변동(fluctuation)을 구분함으로써 식별 문제에 대응한다. 아래 식에 제시한 모형에서처럼 $\alpha_0 rescale(a)$ 와 $\gamma_0 rescale(c)$ 를 식에 포함하여 연령과 출생코호트의 선형추세를 추정하고, 선형추세에서 벗어나는 (detrended)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의 효과, α_a , π_p , γ_c 를 식별한다.

$$y^{apc} = \alpha_a + \pi_p + \gamma_c + \alpha_0 rescale(a) + \gamma_0 rescale(c) + \beta_0 + \sum_j \beta_j X_j + \epsilon_j$$

$$\sum_a \alpha_a = \sum_p \pi_p = \sum_c \gamma_c = 0$$

$$slope_a(\alpha_a) = slope_p(\pi_p) = slope_c(\gamma_c) = 0$$

$$\min(c) < c < \max(c)$$

위 식에서 y^{apc} 는 이 연구의 관심 변수인 소득, 자산 등을 나타내며, α_a

는 연령, π_p 는 기간, γ_c 는 출생코호트의 벡터를 나타낸다. β_0 는 상수이며, β_j 는 모형에 포함한 인구사회적 속성과 여타 통제변수의 계수를 의미한다. 모형의 식 아래는 APCD에서 선형추세로부터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가한 제약으로써, 첫 번째는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벡터의 합은 0이라는 것, 두 번째는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의 세 벡터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 세 번째는 첫 번째 출생코호트와 마지막 코호트는 한 번만 관찰되기 때문에 추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료 구성

이 장의 모든 분석은 한국복지패널 2~1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와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구 및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소득, 자산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17년의 시계열을 지니고 있다.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 모든 기술 분석과 모형 분석은 제공된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개인/가구, 종단면/횡단면 별 각 3개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연도별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기 위해 원 표본과 추가 표본 모두에게 부여된 통합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3절에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시점을 이용하였지만, 제4절의 APC 분석에서는 4개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PCD 분석은 자료 시점과 연령 간에 일정 간격이 있어야 한다. 5년 간격으로 시점과 연령집단을 설정한 결과,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연령은 20세부터 79세로 설정하고, 5세 단위로 나누어 12개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06년부터 2021년의 해당 연

령집단의 출생코호트는 1927~1931년생부터 1997~2001년생이며,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CD 모형의 세 번째 제약에 따라 첫 번째 출생코호트와 마지막 코호트는 제외되기 때문에 1932~1936년생 출생코호트부터 1992~1996년생 코호트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출생코호트와 시점별로 표본 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첫 번째 코호트(1927~1931년생)와 마지막 코호트(1997~2001년생)가 제외되고, 종속 변수에 따라 모형별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모든 표본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표 4-1〉 출생코호트-시점별 표본 수

출생코호트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1927~1931	287				287
1932~1936	457	446			902
1937~1941	602	583	401		1,586
1942~1946	675	668	501	507	2,351
1947~1951	812	817	639	645	2,913
1952~1956	1,069	1,079	868	893	3,910
1957~1961	1,431	1,465	1,197	1,254	5,347
1962~1966	1,467	1,524	1,210	1,268	5,469
1967~1971	1,499	1,543	1,288	1,364	5,694
1972~1976	1,452	1,491	1,226	1,299	5,468
1977~1981	1,366	1,425	1,156	1,216	5,164
1982~1986	1,225	1,311	1,062	1,135	4,733
1987~1991		1,179	947	1,019	3,144
1992~1996			1,035	1,133	2,168
1997~2001				1,011	1,011
전체	12,341	13,529	11,530	12,744	50,145

자료: 저자 작성

분석에 사용한 소득은 경상소득과 개인노동소득, 자산은 총자산과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이용하였다. 소득과 자산 등 모든 금액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였고,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값이다. 다만, 개인노동소득은 균등화하지 않았다. 소득 빈곤 여부는 당해 연도 경상소득의 중위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산 빈곤 여부는 당해 연도 경상소득의 중위 50%인 상대빈곤선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3장의 측정과 동일하다.

APC 분석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자녀, 기타 가구원), 가구 내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가구 내 근로 무능력 가구원 비율,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투입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처분가능소득과 자산을 가구 단위로 측정한다.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 혹은 출생코호트의 가구원이 분석에 함께 포함된다는 측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은 20대 초중반의 개인과 은퇴 후 다른 가구원의 부양을 받는 70세 이상의 개인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높은 소득과 자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제3절의 기술분석 결과에서 20~24세 및 1983~1987년생 코호트, 75~79세 및 1928~1932년생 코호트의 수치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령과 출생코호트에 따른 소득, 자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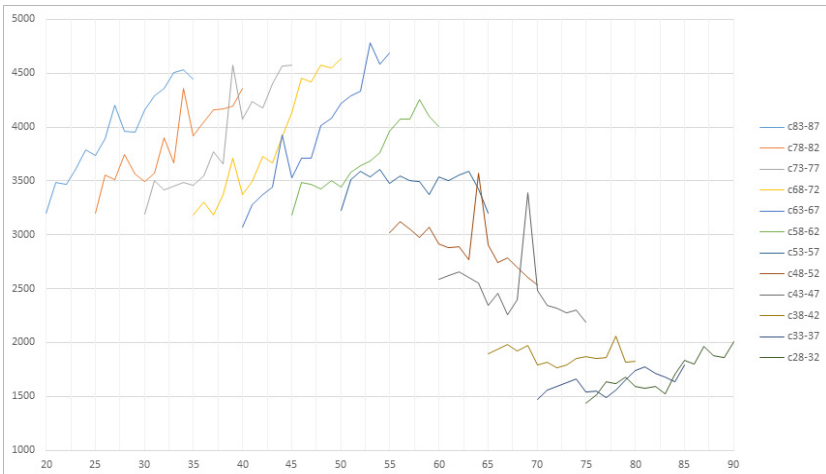
1. 소득

한국복지패널에서 2006~2021년 동안 관측된 각 출생코호트의 소득과 자산의 각 단일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한 경상소득 분포이다. x축은 개별 출생코호트의 2006~

2021년 동안의 연령을 의미한다. 출생코호트의 간격은 5년씩이기 때문에 코호트별 꺾은선은 직전 코호트와 5년은 겹치지 않는다. 15년의 시계열 자료로 동일 연령집단의 출생코호트별 비교(각 선이 겹치는 부분)는 근접한 3개의 코호트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근접한 3개 출생코호트씩 균등화경상소득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경상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예전에 태어난 코호트가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우상향 하던 선이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동일 코호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코호트 안의 연령에 따른 선의 기울기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는 최근 출생코호트가 예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코호트 간 소득의 차이(그래프의 상하 간격)는 1963~1967년생 코호트부터 1948~1952년생 코호트들 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4-1] 코호트별 경상소득 분포: 200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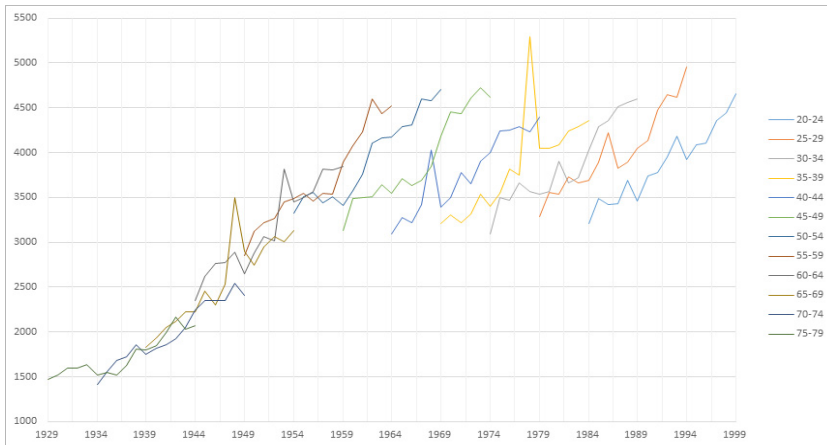


주: x축은 개별 코호트의 연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복지패널에서 기간 동안 관찰된 연령집단별 경상소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35~39세 연령집단의 이상치를 제외하면 50대와 40대 중후반의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동일 코호트에서 연령에 따라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점은 그래프의 중간 부분, 즉 1960~1964년생 코호트가 40대에서 5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최근 코호트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60~64세 연령집단부터는 최근 코호트의 소득이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해당 연령집단 전체의 소득 수준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2] 연령집단별 경상소득 분포: 200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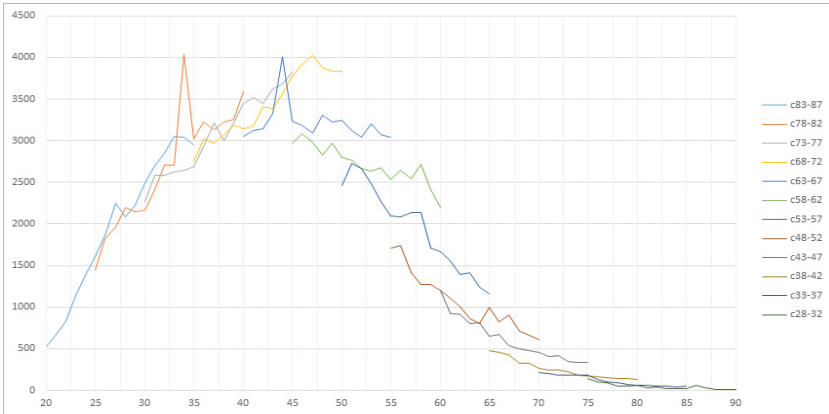
주: x축은 각 연령집단의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개인 단위로 조사된 노동소득(근로 및 사업, 부업, 기타소득)의 코호트별 분포를 살펴보면, 앞의 균등화소득에서 본 것처럼 고연령으로 갈수록

꺾은선의 우상향 혹은 하향의 모습이 유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70년대 출생코호트 간 차이는 균등화소득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들 코호트는 분석 시점 당시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다른 코호트에 비해 가구주보다는 가구원으로서 주생계부양자의 소득을 공유하게 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화한 경상소득보다 개인노동소득으로 살펴 보았을 때 코호트 간 차이가 작고, 경상소득에서의 갭은 부모세대 코호트 간의 갭이 자녀세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상소득에서처럼 1963~1967년생 코호트부터 1948~1952년생 코호트까지 코호트 간 소득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좀 더 긴 시계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근 세대에 비해 이전 세대의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으로 그래프상에서 파악된다.

[그림 4-3] 코호트별 개인노동소득 분포: 200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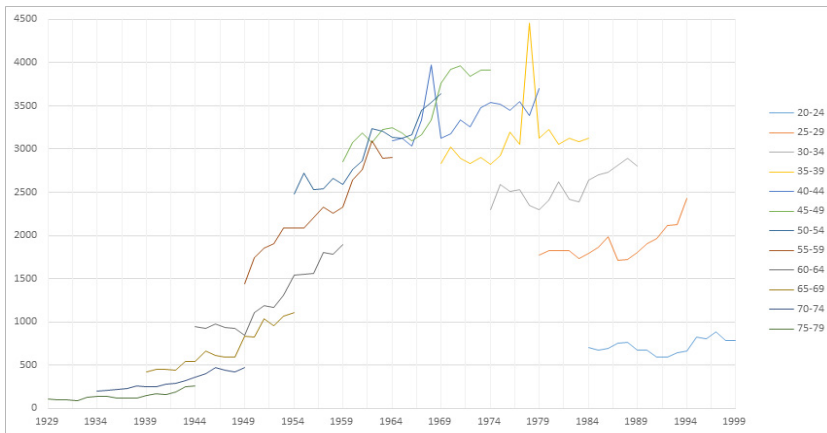


주: x축은 개별 코호트의 연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연령집단별 개인의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45~49세의 소득을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집단별 소득의 감

소는 65세를 기점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전, 50~54세 연령집단부터 60~64세 연령집단에서 감소가 확연히 관찰된다. 50대에 경험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이 이러한 은퇴 전 조기 소득 감소의 양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연령집단별 개인노동소득 분포: 2006~2021년



주: x축은 각 연령집단의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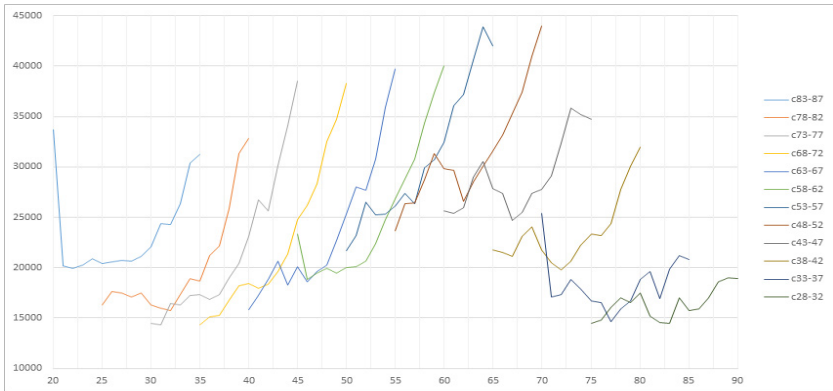
2. 자산

코호트별 자산의 단일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초고령 코호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도 증가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 코호트와 고령의 코호트일수록 코호트 간 자산의 차이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최근 연도로 올수록) 기울기는 소득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1963~1967년생 코호트부터 1948~1952년생 코호트들에서는 분석 초기, 즉 개별 코호트가 가장 어린 시점에서는 동일 연령집단에서 코호트

간 자산 차이가 비교적 작고 일관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도로 올수록 동일 연령집단에서의 코호트 간 상하 간격이 상당히 커졌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자산 가격의 큰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최근 시점의 총자산은 1953~1957년생, 1948~1952년생 코호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코호트별 총자산 분포: 200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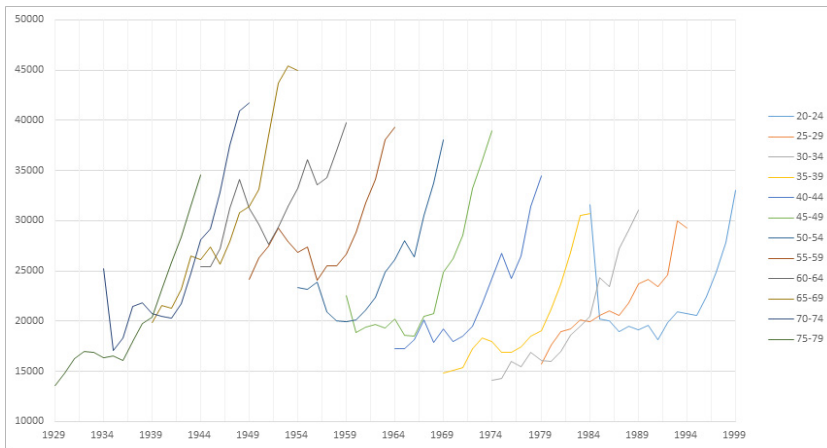


주: x축은 개별 코호트의 연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총자산의 연령집단별 분포를 보면, 65~69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았다. 35~39세부터 60~64세까지의 연령집단별 자산 차이(그래프의 상하 간격)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x축의 코호트를 기준으로 상하 간격을 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상하 간격이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2006~2021년 기간 동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이 더욱 큰 폭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서는 연령의 효과와 시점의 효과가 분리되지 않기에,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기간 동안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그래

프상으로는 1970년 중반 출생코호트까지는 연령에 따른 자산의 축적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림 4-6] 연령집단별 총자산 분포: 200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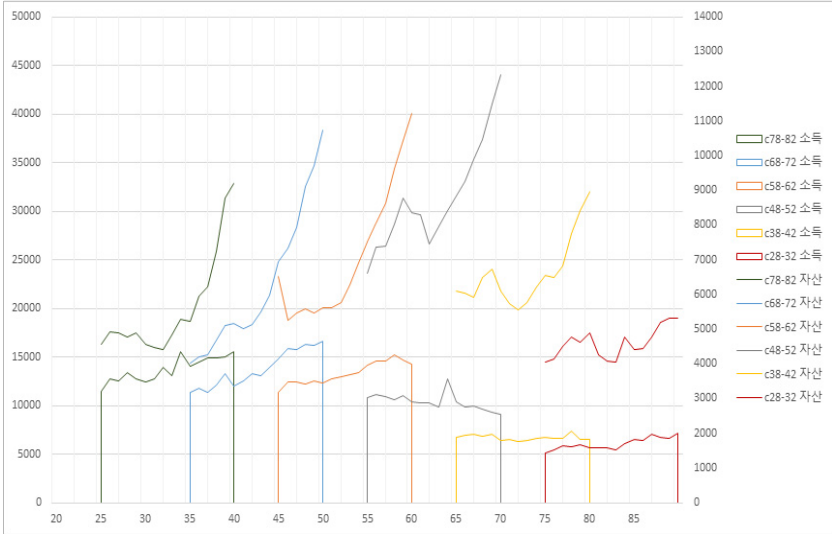
주: x축은 각 연령집단의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3. 소득·자산 분포

이하의 그림은 경상소득과 총자산의 분포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수치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래프와 동일하지만 연령집단에 따라, 그리고 코호트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1948~1952년생 코호트부터 그 이전의 출생코호트에서는 소득이 감소하지만, 총자산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자산 가치는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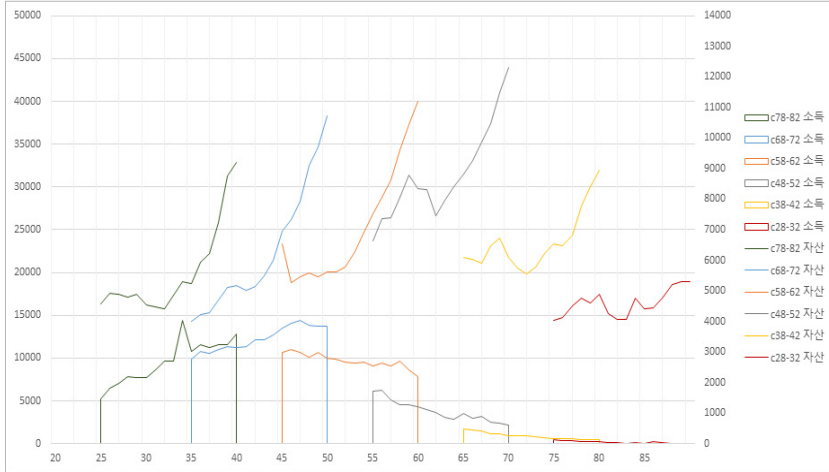
[그림 4-7] 코호트별 경상소득·총자산 분포: 2006~2021년



주: 꺾은 선은 코호트 집단의 자산을 의미, 영역으로 표현된 소득은 보조축을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개인노동소득과 총자산을 함께 살펴보면 위의 경향이 더욱 잘 드러난다. 1958~1962년생 코호트부터 45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소득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1948~1952년생 코호트는 관찰이 시작된 55세부터 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70세에는 연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득을 보인다. 그럼에도 자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여 다른 어느 코호트보다도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년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자산을 변환하여 소비에 필요한 소득을 충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림 4-8] 코호트별 개인노동소득·총자산 분포: 2006~2021년



주: 꺾은 선은 코호트 집단의 자산을 의미, 영역으로 표현된 소득은 보조축을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제4절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제3절의 연령별, 코호트별 소득과 자산의 분포 그래프는 연령, 기간, 코호트의 효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다. 이 절에서는 APC 분석을 이용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본다. 제2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APCD 분석을 수행하였다.

APCD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관심변수의 변화, 즉 선형추세에서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특정 연령, 특정 시점, 특정 코호트가 다른 집단(시점)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유리하거나 불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전체 분석 대상 기간에서 어느 코호트가 가장 유리했는지, 생애주기상 어느 연령대에서 소득, 자산, 복지 혜택이 많았는지, 어느 시기가 소득, 자산, 복지

에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알 수 있다(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21).

분석에 사용한 경상소득과 총자산은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균등화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본다는 측정의 한계가 있다. 일례로 가구원 중 소득이나 자산 명의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료상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가구주와의 관계 등 개인 및 가구의 속성을 통제한 모델의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자녀, 기타 가구원), 가구 내 경제활동 가구원의 비율, 가구 내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비율,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를 포함한 모든 금액 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였고,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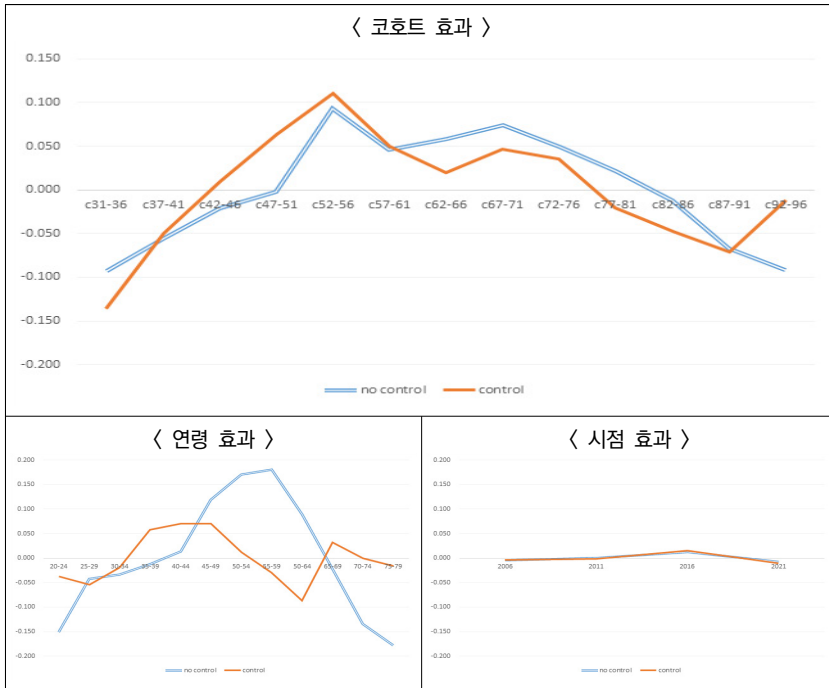
각각의 효과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연령, 기간, 코호트를 x축으로 하고, 이들의 값에 따라 0을 중심으로 추정치를 선으로 제시하였다. 겹선은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의 추정치이고, 실선은 통제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수치가 기재된 분석 결과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 소득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그림 4-9]는 부록의 <부표 2-1>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x축은 코호트, 연령, 시점을, y축은 APCD 분석에서 추정한 계수를 나타낸다. 경상소득에 대한 코호트의 효과는 1931~1936년생부터 1942~1946년생까지, 그리고 1987~1991년생, 1992~1996년생 코호트에서는 음의 값을 보인다. 1947~1951년생부터 1982~1986년생 코호트까지는 경상소득의 유리함이 관찰된다.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1942~1946년생부터 1972~1976년생 코호트까지만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의 효과는 코호트의 추정계수보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통제변수가 있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과의 그래프 모양도 차이를 보였다.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대 집단부터 65세 은퇴 직전까지의 연령집단에서 소득의 유리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계수의 크기 또한 코호트나 시점에 비해 압도적이었지만, 통제변수를 고려한 모델에서는 우위를 갖는 연령집단이 30대 중반 이후부터 50세 이전의 연령집단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소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여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30대 중반부터 50세 전까지로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9]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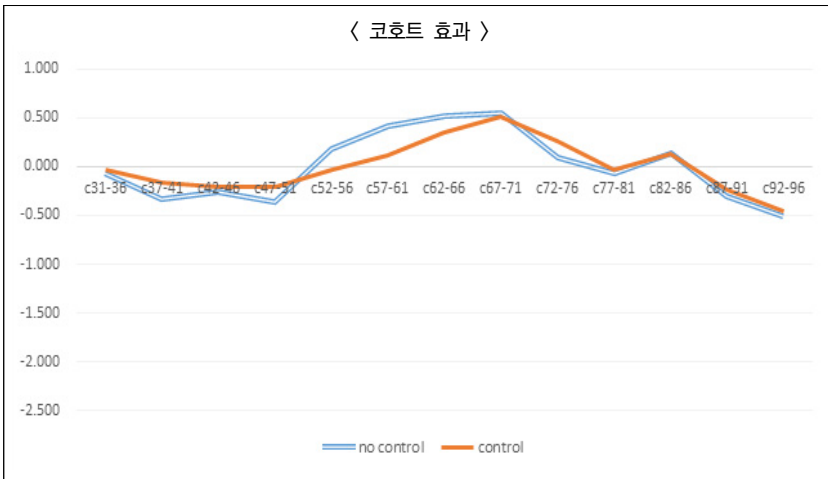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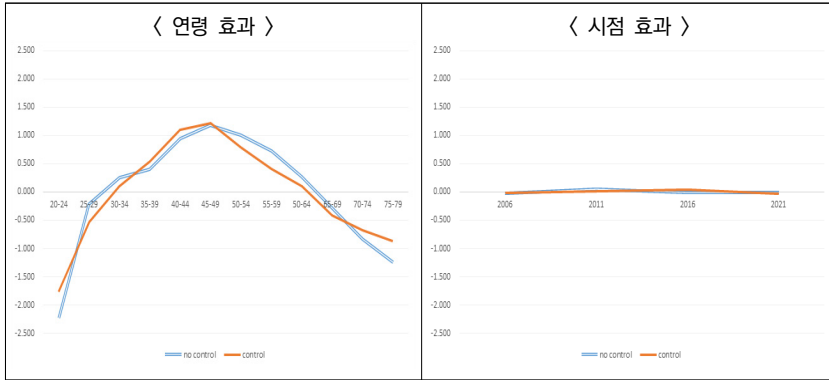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시점의 영향은 코호트나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2011년과 2016년의 정적 영향이 발견되었고, 팬데믹이 진행 중이었던 2021년의 불리함과 2006년의 부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개인별로 측정된 개인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4-10]과 같다. 코호트의 효과는 가구 단위로 측정된 경상소득과 개괄적인 형태에서는 유사하였다. 그리고 경상소득에서보다 코호트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보다 작은 편이다. 연령의 효과는 통제변인이 있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간의 차이가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통제 모델의 설정 자체가 가구 단위 측정 변수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점의 영향은 경상소득에 비해 더욱 적었다.

[그림 4-10] 개인노동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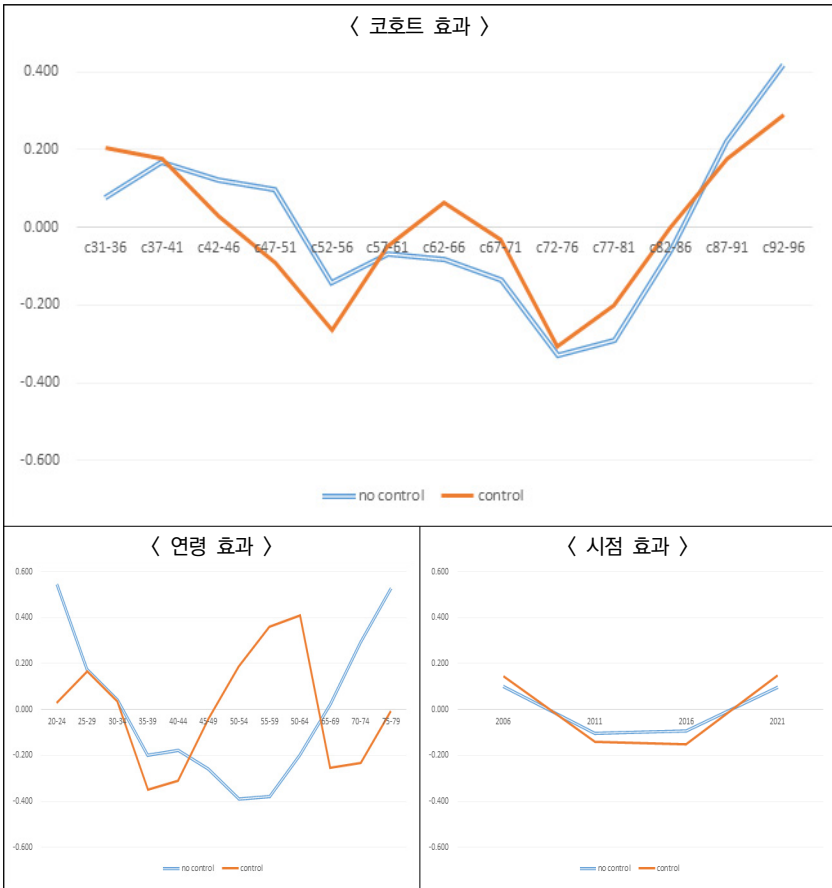
집단의 평균적인 경상소득 수준이 아닌 경상소득 기준 빈곤 확률에 대한 APCD 분석 결과는 [그림 4-11]에 제시하였다. 우선 코호트의 효과는 경상소득 분석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코호트별 빈곤 위험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빈곤 위험이 가장 낮은 코호트는 1972~1981년생, 1951~1956년생 코호트였다. 고령인 1946년 이전 코호트와 가장 젊은 층인 1982년 이후 코호트의 빈곤 위험이 높은 가운데, 1962~1966년생 코호트의 빈곤 위험이 양의 계수 값을 보였다. 이 코호트 집단은 경상소득 수준에서 양의 계수를 보이긴 하였으나 다른 코호트에 비해 유리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코호트였으며, 소득 빈곤 비통제 모델에서는 빈곤 위험이 음의 값을 보였으나, 통제 모델에서는 양의 값으로 전환된 유일한 코호트이다.

연령의 효과는 통제 모델에서 50대 그리고 65세 이전까지 연령집단의 열악함이 관찰되었고, 50대 이상 연령집단들에서는 통제 모델과 비통제 모델의 결과가 정반대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연령집단들의 빈곤 위험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통제 모델에서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코호트 효과와 종합하면, 현세대 노인의 높은 빈

근율은 연령의 효과보다 코호트의 효과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시점의 효과는 경상소득의 그것에 비해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고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2011년과 2016년에 비해 팬데믹 중이었던 2021년의 빈곤 위험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소득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2. 자산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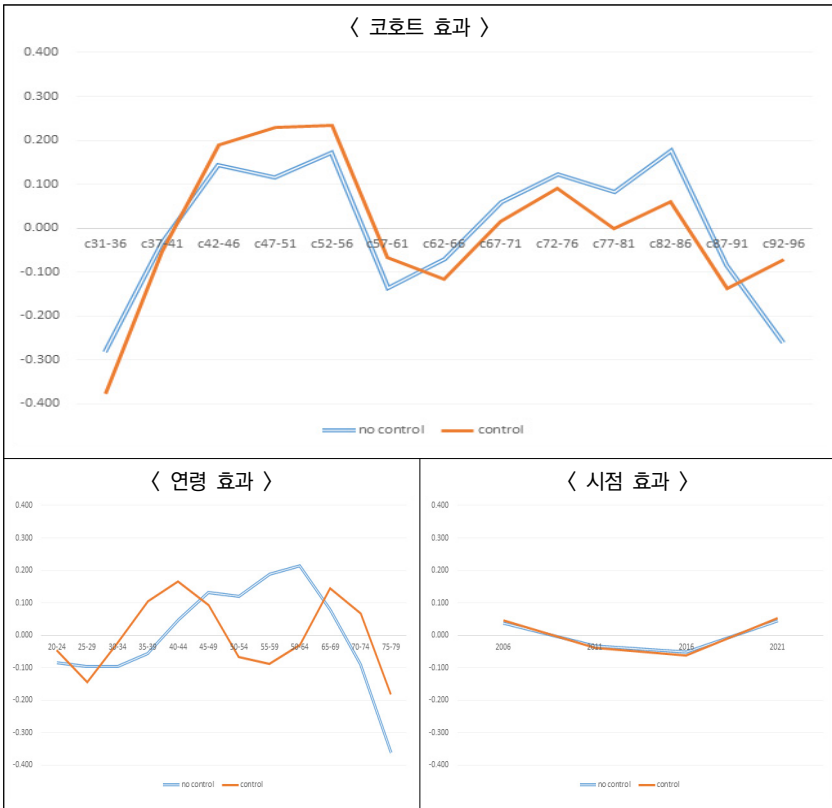
총자산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면, 1942년생 이후부터 1956년생까지의 출생코호트의 우위가 두드러지는 반면,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의 불리함이 관찰되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1937년 이전 출생코호트의 경우 자녀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1987년 이후 출생코호트의 자산 축적 수준이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1957~1966년생 코호트의 순자산 축적의 불리함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자산 증식의 기회를 특정 세대가 독식하였고, 청년 세대는 자산 축적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주장이 매체와 일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바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자산을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 문인지 1942년생~1956년생 코호트들의 자녀 세대일 가능성이 높은 1972년생~1986년생 코호트들의 자산의 우위가 발견되고, 형태 또한 유사하였다. 그리고 소득과는 달리 자산에서는 코호트의 영향력이 연령집단의 영향력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효과에서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통제 모델과 비통제 모델 간의 양상이 거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코호트 효과가 통제/비통제 모델 간에 거의 유사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분석 기간 동안 35~39세 집단부터 45~49세 연령집단들이 자산 축적에 유리하였고, 50~54세 집단부터 60~64세의 연령집단들의 자산 축적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년의 자산 축적이 불리하고, 이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할 여지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순자산에 대한 시점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과 2021년의 시점

효과가 양의 계수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이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림 4-12] 총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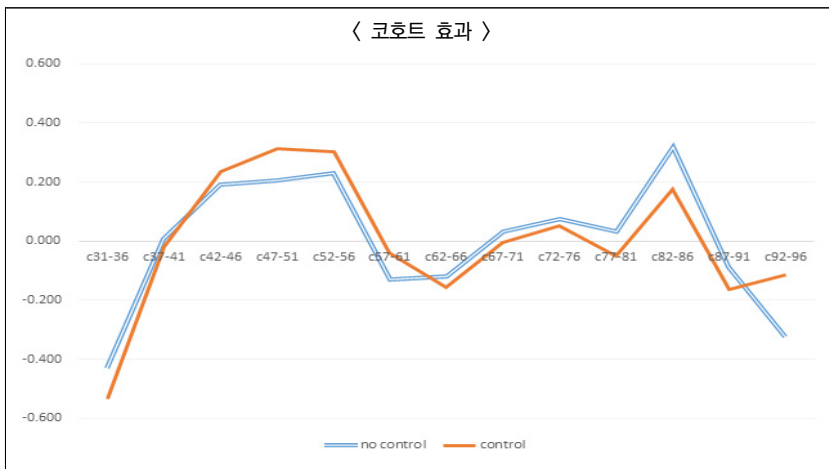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의 APCD 분석 결과, 부동산 자산에서는 순자산만큼의 격차는 아니었지만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의 불리함은 여전하였다. 또한 1967~1971년생, 1970~1976년생 코호트의 자산 축적의 유리함이 총자산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37년생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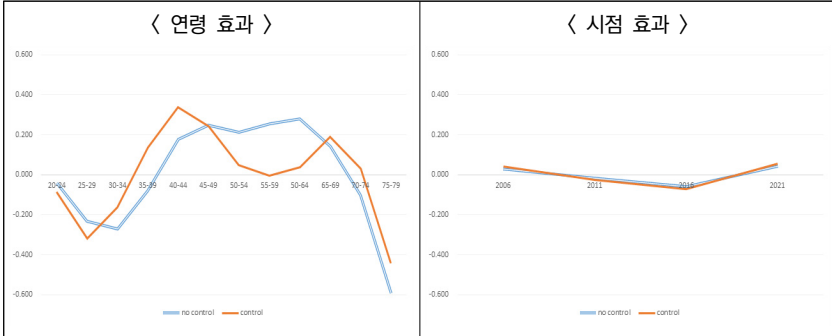
1956년생까지 코호트들의 총자산 축적에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작용하고 있었던 반면, 1967~1971년생, 1970~1976년생 코호트의 총자산 축적은 부동산 자산보다 다른 자산으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82~1986년생 코호트의 자산에 대한 효과는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1937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코호트와 동질적인 특성을 보였다.

연령의 효과는 총자산과는 달리 50대 집단부터 60~64세 집단까지의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그래프의 형태는 유사하였다. 즉 이들 연령집단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에서만만큼은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부동산 외 자산을 모두 합하게 되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산의 우위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간 효과를 보면,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던 2006년과 2021년 시점에서 기간의 정적 효과가 관찰된다.

[그림 4-13] 부동산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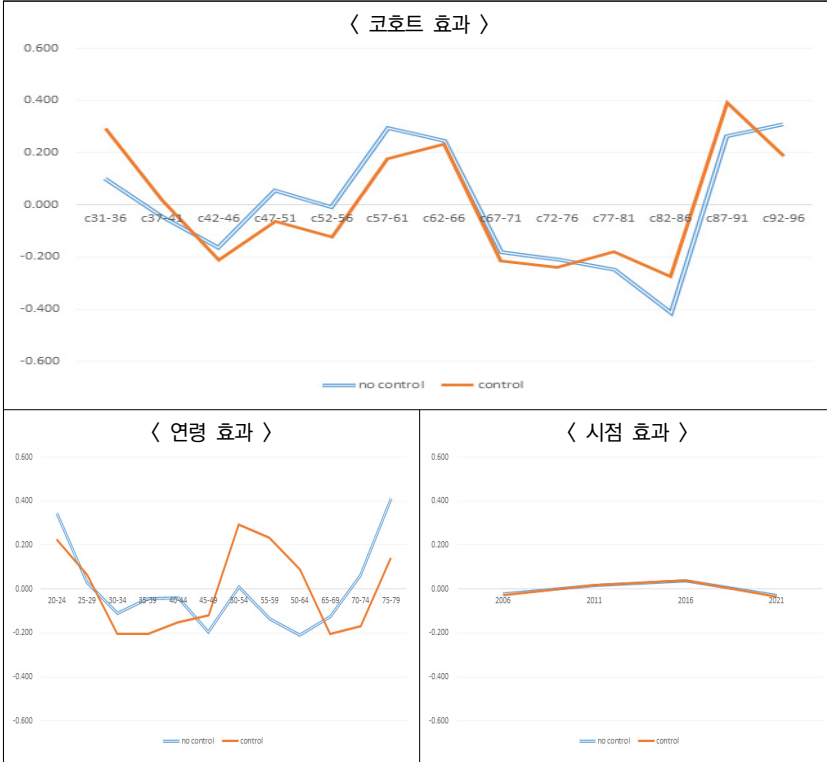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자산 빈곤은 총자산의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코호트 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4-14] 참조). 즉,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자산 빈곤의 위험이 높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2021년의 분석 기간 동안 이들 코호트는 평균적인 총자산 축적에서도 불리하였고, 자산 빈곤율도 높은 것이다. 1937년부터 1956년까지의 출생코호트의 경우 총자산 축적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집단이었으나, 자산 빈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이들 코호트 내에 자산의 격차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1967년생부터 1986년생 코호트의 경우 자산 빈곤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면,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집단들은 비통제 모델에서 자산 빈곤에 대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 모델에서는 이들 연령집단의 자산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자산 수준에서도 불리하였던 이들 연령집단은 자산 빈곤에서도 일관된 불리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점의 영향력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그림 4-14] 자산 빈곤(순자산 기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3. 공적이전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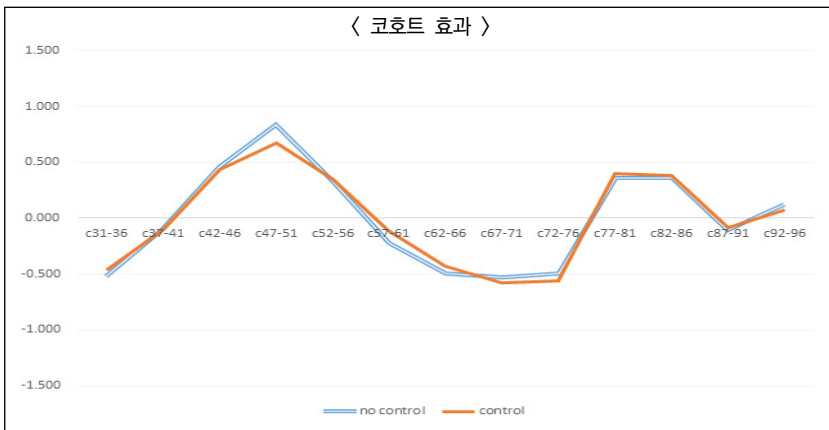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에 대한 APCD 분석에 더해, 공적이전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은 어디인지 포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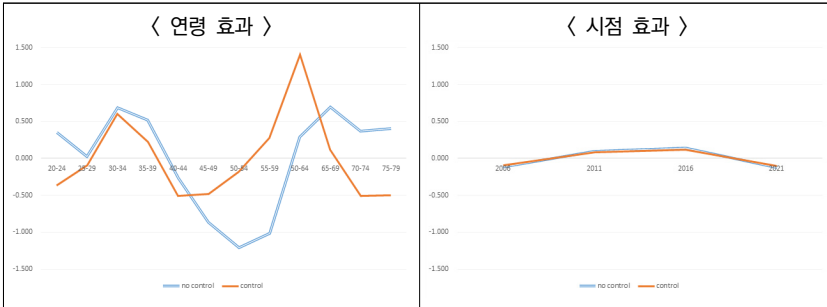
우선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는[그림 4-15]와 같다. 평균적인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코호트의 영향력은 1931~1936년생 코호트와 1962년부터 1976년까지의 출생코호트에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특히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앞의 처분가능소득과 소득 빈곤, 순자산과 자산 빈곤에서도 불리한 코호트 집단이었음에도 분석 기간 동안의 복지 수준을 다른 코호트에 비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코호트 집단의 개인노동소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65세 은퇴 이후를 분석 기간에 포함하여 코호트 효과를 본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1962~1966년생 코호트가 겪은 소득, 자산, 공적이전의 불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0대와 50대 중장년 집단의 복지 혜택의 상대적 불리함이 관찰되었다. 다만, 통제 모델에서는 55~59세, 60~64세 집단이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상대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제 모델에서는 65세 이상의 상대적 우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30~34세, 35~39세 연령 집단의 상대적 우위가 통제 모델, 비통제 모델에 상관없이 일관되었다.

[그림 4-15]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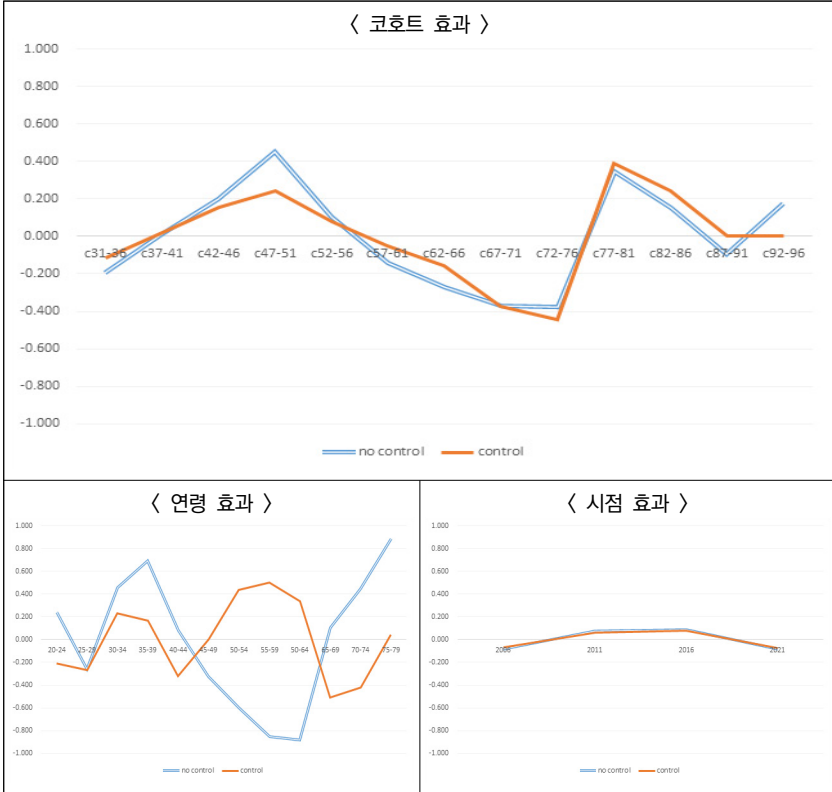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4-16]은 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이다. 연금을 제외하였을 때에도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여전히 불리하였으나, 계수의 크기가 소폭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62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코호트의 상대적인 불리함은 여전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코호트의 효과는 연금을 포함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른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유리함이 관찰되었고, 소득과 자산에서 이렇다 할 우위를 보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불리하였던 코호트 집단은 공적이전으로 측정된 복지 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의 효과는 연금을 제외한 경우 통계 모델에서 차이를 보였다.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집단들에서 상대적 유리함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30대 연령집단의 유리함은 연금을 제외하였을 때에도 여전하였고, 통계 모델에서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부적 영향력 또한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2011년과 2016년 시점이 정적 영향력을, 2006년과 2021년 시점은 부적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4-16] 공적이전소득(연금 제외)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4. 소득·자산 결합 빈곤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가. 결합 빈곤 유형별 기술통계

이하에서는 제3장에서 설정한 소득·자산 결합 빈곤지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APCD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4] 참조). 분석에 앞서 자료의 구조에 맞추어 각 결합 빈곤 유형 집단별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이어

지는 네 개 표의 행은 시점별 정보를, 열은 연령집단별 정보이고, 표에서 우하향하는 동일한 색의 칸은 코호트를 나타낸 것이다. 각 칸의 상단은 빈곤 유형의 비율을, 하단의 'c82-86' 같은 표시는 1982~1986년생 코호트를 의미한다. 코호트 표기란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APCD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중 '(1) 소득·자산 비빈곤'인 경우는 전체 분석 대상 중 82.28%인 가운데, 60~64세부터 고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 최근 코호트일수록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색으로 표기된 코호트의 우하향 셀을 따라가면 동일한 코호트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빈곤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표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제3절의 소득 및 자산 분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표 4-2〉 연령-코호트별 소득과 자산 모두 비빈곤인 비율

(단위: %)

연령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20~24		85.99	81.72	82.31	86.54	84.12
		(c82-86)	(c87-91)	(c92-96)	-	
25~29		87.75	90.67	86.94	87.17	88.26
		(c77-81)	(c82-86)	(c87-91)	(c92-96)	
30~34		88.18	90.17	91.98	89.29	89.80
		(c72-76)	(c77-81)	(c82-86)	(c87-91)	
35~39		86.19	90.57	91.86	90.59	89.62
		(c67-71)	(c72-76)	(c77-81)	(c82-86)	
40~44		79.61	87.37	90.85	91.64	87.03
		(c62-66)	(c67-71)	(c72-76)	(c77-81)	
45~49		79.74	86.19	88.90	90.15	86.10
		(c57-61)	(c62-66)	(c67-71)	(c72-76)	
50~54		81.80	81.40	83.16	89.45	84.05
		(c52-56)	(c57-61)	(c62-66)	(c67-71)	

연령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55~59	77.29	82.49	82.44	85.80	82.48
	(c47-51)	(c52-56)	(c57-61)	(c62-66)	
60~64	70.56	75.95	81.89	81.05	78.16
	(c42-46)	(c47-51)	(c52-56)	(c57-61)	
65~69	60.27	68.38	70.50	75.75	69.49
	(c37-41)	(c42-46)	(c47-51)	(c52-56)	
70~74	45.39	53.55	61.56	61.57	56.07
	(c32-36)	(c37-41)	(c42-46)	(c47-51)	
75~79	40.92	43.51	47.47	46.09	44.83
	-	(c32-36)	(c37-41)	(c42-46)	
전체	79.38	82.15	83.49	84.10	82.28

주: 괄호 안은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의 표는 ‘(2)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산만 빈곤한 비율은 전체가 6.25%인 가운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만으로 보면 자산 빈곤율과 연령의 관계는 반비례이다.

하지만 동일 연령집단에서 코호트에 따른 차이는 적지 않았고, ‘(1) 소득·자산 비빈곤’의 경우처럼 최근 코호트일수록 상황이 좋은 경향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35~39세부터 45~49세까지는 동일 연령집단에서 예전 출생코호트일수록 자산만 빈곤한 비율이 더욱 높았던 반면, 60~64세, 65~69세 연령집단에서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자산만 빈곤할 비율이 높았다.

우하향하는 동일 코호트의 칸을 살펴보면, 동일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자산만 빈곤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이것이 연령의 효과인지 시점의 효과인지는 APC 분석을 실시해야 알 수 있다.

〈표 4-3〉 연령-코호트별 소득 비빈곤이면서 자산은 빈곤인 비율

(단위: %)

연령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20-24	8.29 (c82-86)	12.18 (c87-91)	12.12 (c92-96)	8.46 -	10.26
25-29	7.65 (c77-81)	5.45 (c82-86)	8.93 (c87-91)	7.34 (c92-96)	7.22
30-34	6.43 (c72-76)	6.21 (c77-81)	4.29 (c82-86)	5.96 (c87-91)	5.81
35-39	7.98 (c67-71)	6.31 (c72-76)	4.37 (c77-81)	4.83 (c82-86)	6.04
40-44	11.01 (c62-66)	6.29 (c67-71)	5.53 (c72-76)	4.64 (c77-81)	7.01
45-49	9.00 (c57-61)	7.98 (c62-66)	4.66 (c67-71)	4.09 (c72-76)	6.56
50-54	7.37 (c52-56)	10.01 (c57-61)	8.53 (c62-66)	3.87 (c67-71)	7.47
55-59	6.13 (c47-51)	5.58 (c52-56)	8.03 (c57-61)	4.42 (c62-66)	6.02
60-64	2.81 (c42-46)	4.01 (c47-51)	4.75 (c52-56)	4.43 (c57-61)	4.12
65-69	1.83 (c37-41)	3.02 (c42-46)	3.30 (c47-51)	3.55 (c52-56)	3.00
70-74	3.56 (c32-36)	2.91 (c37-41)	2.79 (c42-46)	1.73 (c47-51)	2.67
75-79	2.50 -	4.89 (c32-36)	1.94 (c37-41)	1.76 (c42-46)	2.78
전체	7.23	6.76	6.22	4.79	6.25

주: 괄호 안은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3)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 즉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20~79세 전체 대상 중 8.35%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75~79세에서는 약 40%가 자산은 빈곤하지 않음에도 소득만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40~44세부터 70~74세까지는 동일 연령집단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일 수록 소득만 빈곤할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1957~1961년생 코호트부터 그 이전 코호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만 빈곤할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직전 표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빈곤의 위험은 증가하지만, 자산 빈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는 코호트 안에서도 유효하였는데, 동일 코호트 안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 빈곤은 감소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 4-4〉 연령-코호트별 소득 빈곤이면서 자산은 비빈곤인 비율

(단위: %)

연령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20~24		4.45	2.83	2.89	3.23	3.38
		(c82-86)	(c87-91)	(c92-96)	-	
25~29		3.42	2.95	1.92	3.89	3.10
		(c77-81)	(c82-86)	(c87-91)	(c92-96)	
30~34		3.79	2.29	3.24	3.16	3.11
		(c72-76)	(c77-81)	(c82-86)	(c87-91)	
35~39		3.90	2.42	2.40	4.11	3.20
		(c67-71)	(c72-76)	(c77-81)	(c82-86)	
40~44		6.47	4.38	2.76	2.74	4.21
		(c62-66)	(c67-71)	(c72-76)	(c77-81)	
45~49		7.57	3.53	5.07	3.92	5.02
		(c57-61)	(c62-66)	(c67-71)	(c72-76)	
50~54		7.03	5.24	4.54	4.71	5.30
		(c52-56)	(c57-61)	(c62-66)	(c67-71)	
55~59		11.31	7.61	5.94	6.62	7.54
		(c47-51)	(c52-56)	(c57-61)	(c62-66)	
60~64		21.15	14.01	10.23	10.47	13.18
		(c42-46)	(c47-51)	(c52-56)	(c57-61)	
65~69		29.66	22.27	19.90	17.01	21.62
		(c37-41)	(c42-46)	(c47-51)	(c52-56)	

연령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70~74	38.87	34.47	28.39	30.30	32.75
	(c32-36)	(c37-41)	(c42-46)	(c47-51)	
75~79	40.16	38.00	37.45	43.98	40.09
	-	(c32-36)	(c37-41)	(c42-46)	
전체	9.72	7.79	7.32	8.55	8.35

주: 괄호 안은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4) 소득·자산 빈곤’의 비율은 전체 대상의 비율이 3.13%였고, 20~24세 집단을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4세 연령집단 이상의 대부분에서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고, 1962~1966년생 코호트 이전 코호트에서는 동일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4-5〉 연령-코호트별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인 비율

(단위: %)

연령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20~24	1.28	3.28	2.67	1.77	2.25
	(c82-86)	(c87-91)	(c92-96)	-	
25~29	1.18	0.92	2.21	1.60	1.41
	(c77-81)	(c82-86)	(c87-91)	(c92-96)	
30~34	1.61	1.32	0.49	1.58	1.28
	(c72-76)	(c77-81)	(c82-86)	(c87-91)	
35~39	1.92	0.71	1.37	0.47	1.14
	(c67-71)	(c72-76)	(c77-81)	(c82-86)	
40~44	2.91	1.96	0.86	0.98	1.75
	(c62-66)	(c67-71)	(c72-76)	(c77-81)	
45~49	3.68	2.30	1.36	1.84	2.33
	(c57-61)	(c62-66)	(c67-71)	(c72-76)	
50~54	3.79	3.35	3.77	1.98	3.18
	(c52-56)	(c57-61)	(c62-66)	(c67-71)	

연령 \ 시점	2006	2011	2016	2021	전체
55~59	5.27 (c47-51)	4.31 (c52-56)	3.59 (c57-61)	3.16 (c62-66)	3.96
60~64	5.47 (c42-46)	6.03 (c47-51)	3.14 (c52-56)	4.05 (c57-61)	4.54
65~69	8.23 (c37-41)	6.33 (c42-46)	6.31 (c47-51)	3.69 (c52-56)	5.89
70~74	12.18 (c32-36)	9.07 (c37-41)	7.25 (c42-46)	6.41 (c47-51)	8.51
75~79	16.42	13.60 (c32-36)	13.15 (c37-41)	8.17 (c42-46)	12.30
전체	3.67	3.30	2.97	2.56	3.13

주: 괄호 안은 코호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나. 결합 빈곤 유형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다음의 결과는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소득 비빈곤/자산 빈곤')에 소속될 확률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비빈곤인 집단을 기준 변수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자산만 빈곤할 가능성은 1952~1956년생,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가 가장 높았고, 1987~1991년생, 1992~1996년생 코호트에서도 양의 계수를 보였다. 1931~1936년생 코호트 또한 자산만 빈곤할 가능성이 높았다. 1937~1941년생 코호트, 1942~1946년생 코호트는 통제/비통제 모델에서 모두 자산만 빈곤할 가능성이 낮게 추정되었다. 1967~1971년생, 1972~1986년생 코호트 또한 자산만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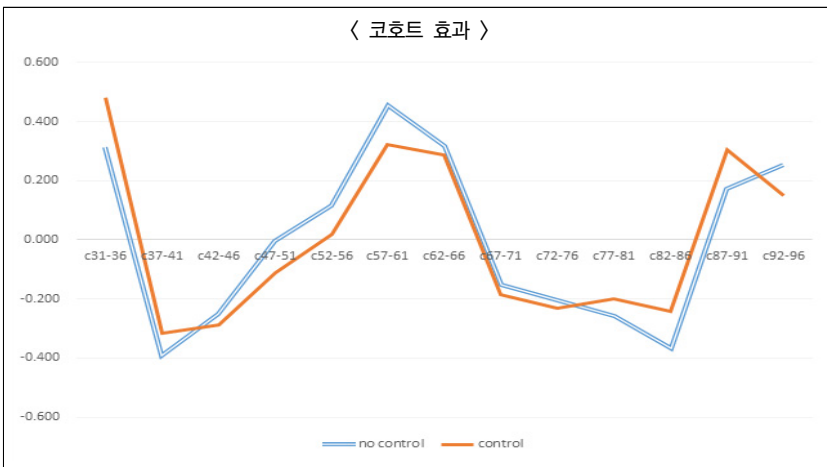
반면, 1952년부터 1966년까지의 출생코호트는 자산 빈곤의 위험이 높았다. 이들 중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앞에서 순자산 빈곤의 가능성도 높았고,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만 빈곤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 코호트는 경제활동이 왕성하여 개인노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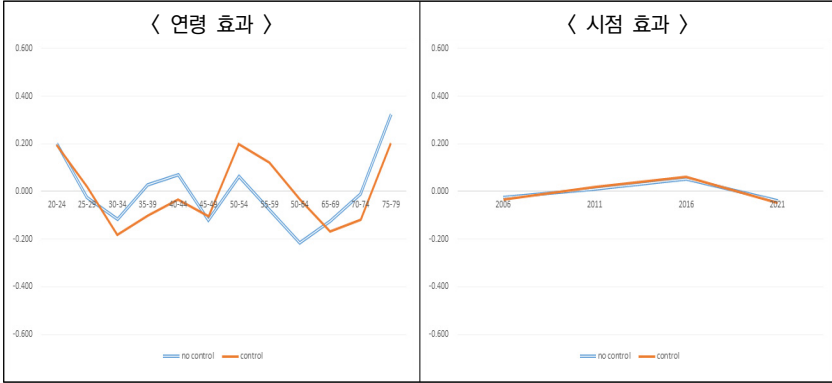
특에 우위가 있었지만, 자산 축적의 유리함은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연령의 효과만을 보면, 20~24세, 25~29세 연령 집단에서 자산만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30~34세부터 45~49세까지의 연령집단에서는 자산 빈곤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세부터 59세까지 양의 계수를 보이다가, 65세부터 74세까지는 자산 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에 들어서면 다시 자산 빈곤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코호트 효과는 통제/비통제 모델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연령 효과는 통제/비통제 모델 간 차이가 크고, 계수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50세부터 64세까지는 비통제 모델에서는 자산 빈곤 위험이 낮거나 높지는 않았지만, 가구의 제 변인을 통제하면 빈곤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바뀌었고, 35~39세, 40~44세 연령집단은 비통제 모델에서 자산 빈곤 위험이 높지만, 통제 모델에서는 음의 계수로 바뀐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4-17]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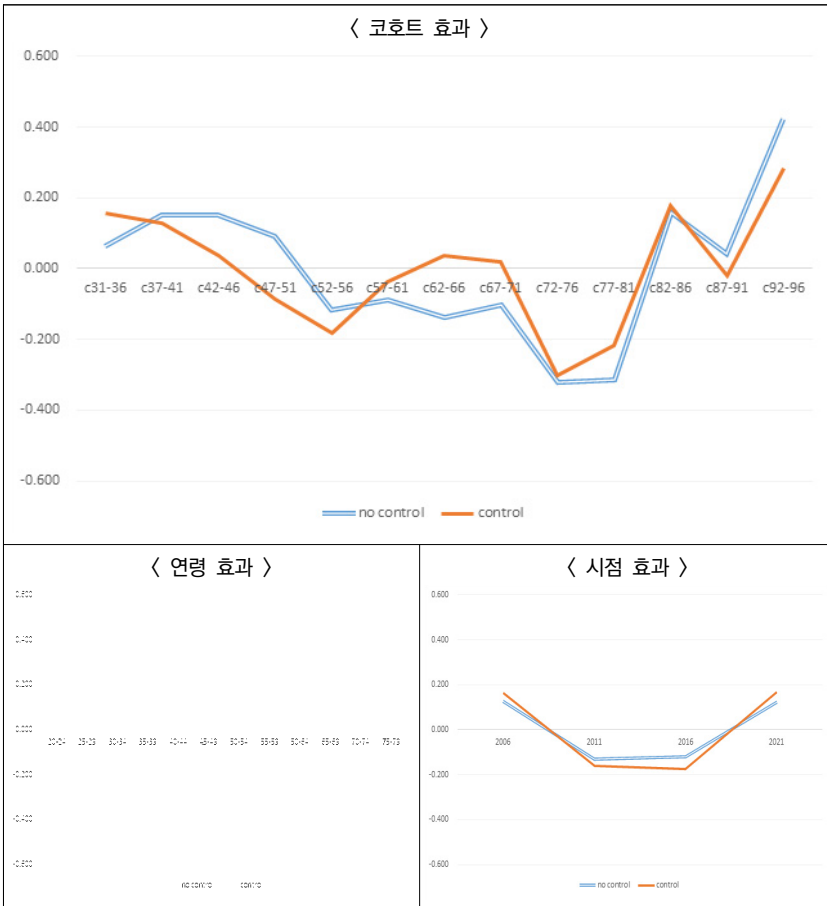
주: 기준 종속변수(base outcome)는 '소득·자산 비빈곤'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빈곤('소득 빈곤/자산 비빈곤')할 확률을 분석하면, 통제 모델에서 1962~1966년생 코호트는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출생코호트는 통제/비통제 모델에서 소득 빈곤의 확률이 낮고, 이후 출생코호트의 소득 빈곤 확률은 높아졌다. 비통제 모델에서 1947~1951년생 코호트와 그 이전의 코호트에서 소득 빈곤 가능성은 높았고, 통제 모델에서는 1942~1946년생 코호트 이전에서 소득 빈곤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의 효과를 보면, 비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50대부터 64세까지 연령집단의 소득 빈곤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령집단에서는 통제 모델과 비통제 모델의 차이가 정반대로, 그것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속성과 개인이 속한 가구 정보를 통제하면 50대부터 64세까지 연령집단의 소득 빈곤 가능성은 다른 어느 연령집단보다 극명하게 높았다. 25~29세, 30~34세 연령집단은 통제 모델과 비통제 모델에서 모두 소득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20~24세의 경우, 비통제 모델에서는 빈곤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가구 정보 등을 통제한 후에는 계수의 방향성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령집단들의 영향력은 음의 계수를 보였다. 동 기간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연령 효과에 의한 것보다는 코호트의 효과가 더 많이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4-18]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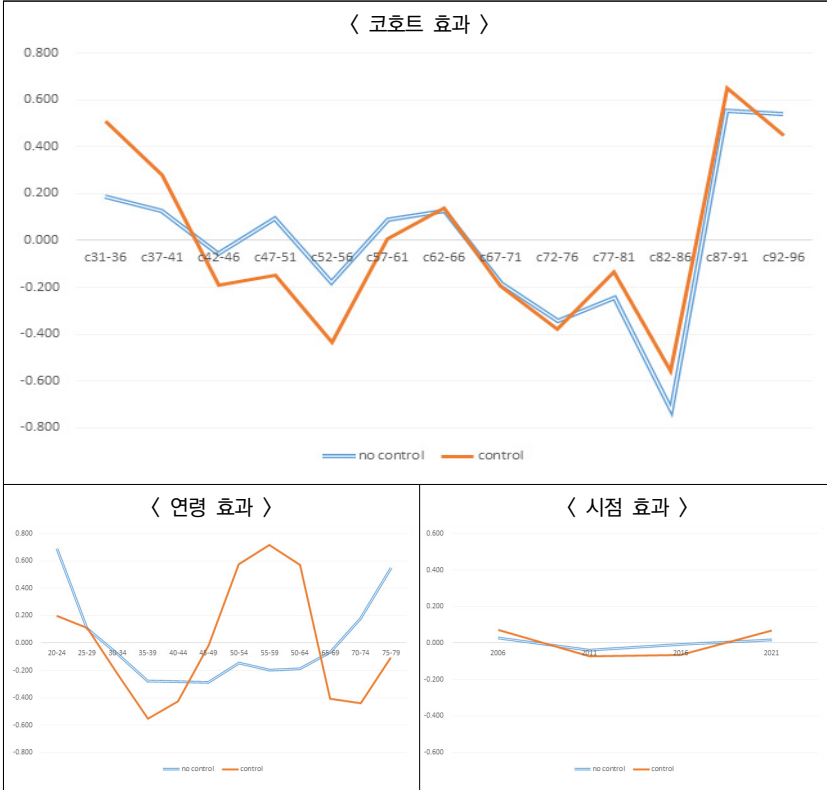


주: 기준 종속변수(base outcome)는 '소득·자산 비빈곤'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의 그림은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소득·자산 빈곤’)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연령-기간-코호트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1941년 이전 출생코호트와 1987년 이후 출생코호트의 빈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통제 모델을 기준으로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코호트의 빈곤 가능성이 높았다. 1962~1966년생 코호트의 경우 통제 모델과 비통제 모델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일관되었다. 1942~1946년생, 1947~1951년생, 1952~1956년생 코호트의 경우 통제/비통제 모델 간의 차이가 적작지 않았다. 1967년부터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코호트 집단은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 빈곤’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35세부터 65세 이전까지 비통제 모델에서 음의 계수를 보였지만, 통제 모델에서는 50세부터 64세까지 연령집단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빈곤 가능성이 높았다. 65세 이후 연령집단에서도 통제/비통제 모델의 결과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비통제 모델에서는 70~74세 연령 집단 이후에서는 빈곤 위험이 높았지만, 통제 모델에서 65~69세 연령 집단 이후부터 빈곤 위험이 낮았다. 앞선 소득 빈곤 결과와 함께, 65세 이후 고령자의 빈곤에 대한 연령의 효과와 코호트의 효과가 정반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 기간 동안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짧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공유하는 세대의 효과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림 4-19] '소득·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주: 기준 종속변수(base outcome)는 '소득·자산 비빈곤'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제5절 소결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요연하고 입체적으로 실증하려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장은 연령의 영향과 함께 세대의 영향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세대의 명목적 측정 단위인 코호트

의 효과를 검증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 자산, 공적이전에 대한 연령별 효과와 시점 효과를 분리하여 코호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연령에 따른 추이와 격차는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었던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APCD 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아울러 코호트와 시점의 영향을 통제한 연령의 효과를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입한 모든 종속변수에서 연령 효과와 코호트의 효과가 함께 발견되었고, 관심변수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코호트의 그것이 더욱 크기도 하였다. 1962~1966년생 코호트의 경우, 소득 수준과 소득 빈곤 위험, 자산 수준과 자산 빈곤 위험, 공적이전소득으로 측정된 복지 혜택의 수준 모두 다른 코호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의 소득과 빈곤 위험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해당 코호트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이다(김수정, 2018). 1960년대 코호트에게 지워지는 세대 간 경쟁의 승자 프레임, 혹은 이후 세대는 갖지 못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가진 세대라는 담론이 지나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이들 코호트의 개인노동소득은 다른 코호트에 비해 우위에 있었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 일자리의 기회와 임금 수준 또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정준호 외, 2021), 이들이 노년에 이르게 되는 시점까지 분석 기간에 포함하게 된다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의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호트의 영향을 통제한 연령의 효과에서는 50대부터 64세까지의 연령집단의 열악함이 일관되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 중장년층은 자산 축적이 불리하여,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할 여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적인 자산 수준이 불리

할 뿐 아니라 자산 빈곤 위험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고,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빈곤 지위의 모든 유형에서도 이들 연령집단의 빈곤 위험은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적이전에 대한 이들 연령집단의 영향은 연금을 제외하거나 포함함과 무관하게 정적이었다. 그럼에도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들 50대부터 64세까지의 연령집단이 노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30대 중반부터 50세 전까지가 양의 계수를 보였고 그 외 연령집단에서는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소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여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전체 경제활동 연령 구간에서 그리 길지 않음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현시점에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1962~1966년생 코호트에게 소득과 자산의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한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 코호트에게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해준다. 또한 연령 효과 분석에서 관찰되었던 50대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의 열악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코호트와 연령집단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있었던 두 차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1962~1966년생 코호트의 자산 형성은 여의치 않았고, 50~64세 연령집단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결국 은퇴 전까지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연금 기여가 이들 집단의 노년기 경제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금 가입 현황과 예상되는 소득 대체율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64세 중장년층의 자산 수준은 부동산 가치가 좌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들의

노년에서 자산 가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형추세로부터 독립적인 소득 및 자산, 복지에 대한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추정하였지만, 통상적인 APC 분석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계열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공적이전을 균등화하여 개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의 경제 여건을 균등화하는 것은 관찰하기 어려운 가구 내 역동을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 가구원 중 소득이 없거나, 자신 명의의 자산이 없음에도 자료상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작용한다. 또한 이 연구의 측정에서 가구 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동일한 소득과 자산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 이전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연구 결과일 수 있다.



제5장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5절 소결

제 5 장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제1절 문제 제기

개인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가용 소득을 활용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환경 등이 소위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주된 방식은 산업화 이후 저축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2000년대에 주택금융, 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집중되기 시작했다(김도균, n.d., 2020, [그림 2-8], [그림 2-9] 참조).

더욱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특히 주택 자산의 영향이 현저히 크다. 부동산의 영향력은 순자산 지니계수가 더 높은 미국보다 한국이 강한 것이다(정준호, 전병유, 2017). 서구에서 자산 기반 복지와 관련해 금융자산에 주목하기보다 자가주택 소유와 공적 복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것을 고려하면(Doling & Ronald, 2010; De Decker & Dewilde, 2010; Lowe, Searle & Smith, 2012; Dewilde & Ronald, 2017; Mosciaro & Aalbers, 2020; Bryant, Spies-Butcher & Stebbing, 2022; Benites-Gambirazio & Bonneval, 2022; Wood, Ong, & Haffner, 2022),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국제비교할 때 자산의 하위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신진욱과 이은지(2012)는 주요 국가의 실물자산, 즉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를 관찰하여 네 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자가와 공공임대, 그리고 민

간임대의 구성비를 비교하였는데, A 유형과 B 유형은 자가보유가 확대되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영미권 국가와 남유럽 국가로 구성된 전자는 임대료가 주변화되는 반면, 북유럽 국가와 대륙 유럽 국가로 구성된 후자는 공공임대가 증가했다. 대륙 유럽 국가 중 독일은 C 유형으로서 주된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와 민간임대로 나타나지만, 민간임대가 사회적 성격을 띠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D 유형은 자가와 민간임대를 주된 주택점유형태로 드러내 보이면서 민간임대의 자본화가 자가 보유자 및 임대인 간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보았다.

〈표 5-1〉 국가별 주택점유형태의 역사적 변화와 구조: 네 가지 유형

유형	(A) 자가보유자 사회로의 급진적 이행	(B) 자가-공공임대 동시 증대와 민간임대 축소
내용	주택금융화와 모기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자가보유 계층이 급증하고,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부문이 모두 주변화	자가보유 계층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그와 동시에 민간임대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공공임대가 대신하는 추세
국가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유형	(C) 사회적 시장경제 하의 자가-민간임대 이중구조	(D) 자가보유 계층 중심의 자가-민간임대 이중구조
내용	자가보유와 민간임대를 두 기동으로 하는 주택체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민간임대가 비영리적인 사회적 성격을 겸하고 있음	자가보유와 민간임대를 두 기동으로 하며, 민간임대 계층의 이해관계가 보장되지 않아 자가-임대 차이의 불평등 효과가 큼
국가	독일	일본, 한국

자료: 신진욱, 이은지. (2012).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경제와사회*, p. 233의 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그런데 국가 내 주택 체제 유형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의 확대 경향은 유사하다. 하지만 동일하게 분류되는 주택 임대 방식이 가지는 성격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 주택 중심으로 한 부동산, 즉 실물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산 축적 경향을 고려하면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실증 비교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자료

1. 룩셈부르크자산자료(LWS)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룩셈부르크자산자료(Luxembourg Wealth Study, 이하 LWS)이다. 이 자료는 반복 횡단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로서,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LIS(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에서 정제(harmonized)한 것이다.

LWS 자료는 <표 5-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용 가능한 22개 국가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룩셈부르크소득자료(Luxembourg Income Study, LIS)와 달리 LWS에는 한국의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단일 자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LWS에서 제공하는 변수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와 개인의 연령, 시점 변수가 있다. 그 외에도 가구 및 개인 특성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APC를 활용한 소득·자산 결합 분포가 가능하다. 단, 일부 소득 요소(근로소득)를 제외하고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가구 단위 측정치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루트값을 활용해 개인화한 소득과 자산액을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은 LIS에서 제공하는 처분가능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pension-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을 자산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으며 LI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분석시스템(LISSY)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생애 관점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를 국제비교하므로 최근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 이탈리아,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최근 자료가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이용 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LWS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은 배제된다.

〈표 5-2〉 LWS 자료의 국가 및 시점 구성

구분	Wave 4	Wave 5	Wave 6	Wave 7	Wave 8	Wave 9	Wave 10	Wave 11
그리스					GR09	GR14		GR18
남아프리카 공화국							ZA15 ZA17	
노르웨이					NO10	NO13	NO16	NO19 NO20
독일		DE02		DE07		DE12	DE17	
룩셈부르크					LU10	LU14		LU18
멕시코								MX19
미국	US95	US98 US01	US04	US07	US10	US13	US16	US19
스웨덴		SE02	SE05					
스페인		ES02	ES05	ES08	ES11	ES14	ES17	
슬로바키아					SK10	SK14	SK17	
슬로베니아						SI14	SI17	
에스토니아						EE13	EE17	
영국				UK07	UK09 UK11	UK13	UK15 UK17 UK19	
오스트리아					AT11	AT14	AT17	
우루과이							UY12 UY13	
이탈리아	IT95	IT00	IT04	IT08	IT10	IT14	IT16	IT20
일본			JP04	JP09	JP11	JP14		
칠레				CL07		CL14	CL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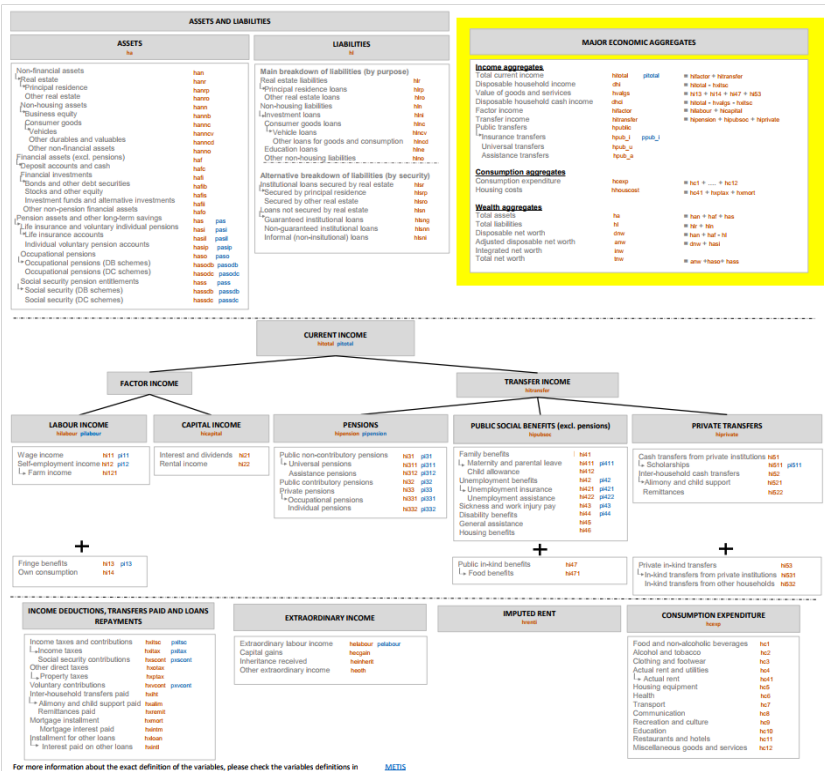
제5장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125

구분	Wave 4	Wave 5	Wave 6	Wave 7	Wave 8	Wave 9	Wave 10	Wave 11
캐나다		CA99	CA05			CA12	CA16	CA19
콜롬비아					CO10 CO11	CO12 CO13 CO14	CO15 CO16 CO17	CO18
핀란드					FI09	FI13	FI16	
호주			AU04		AU10	AU14	AU16	AU18

주: 영어 스펠링은 LWS에서 제공하는 국가명의 약어이고, 숫자는 조사 기준연도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함.

자료: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b). LW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3.3.

[그림 5-1] LWS의 변수 구성



자료: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c). LWS VARIABLE LIST.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files/data-lws-variables.pdf> 20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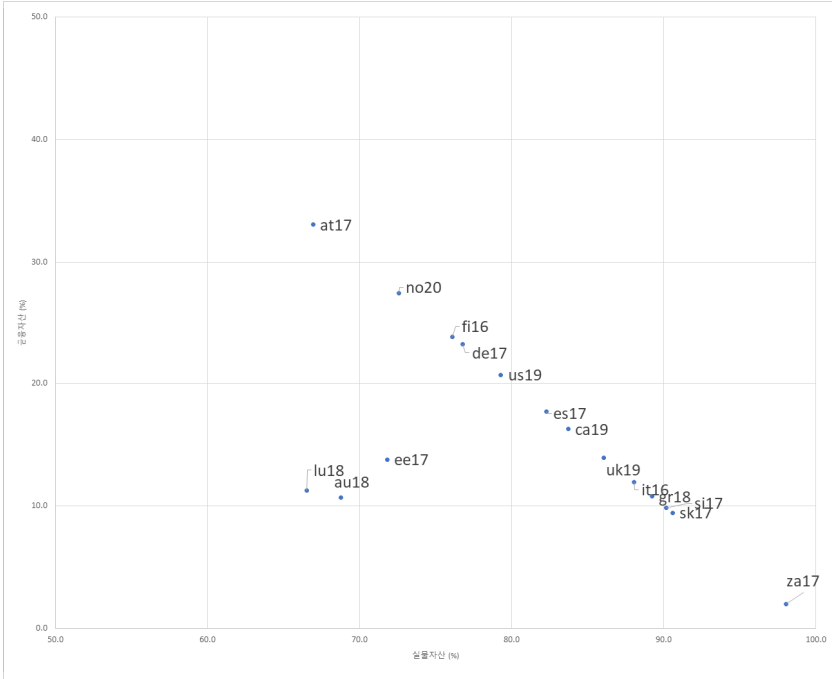
LWS는 노동소득을 제외하면, 소득과 자산은 가구 단위 정보를 제공한다. 가구소득은 총소득(total current income)을 제공하지만, 정제된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household income)의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과 총자산을 주된 변수로 활용한다.

2. LWS 국가의 자산 구성

여기에서는 LWS에서 포괄하는 22개 국가 중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결과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대상 국가를 선택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가구의 총자산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산 요소의 구성비를 비교하였다([그림 5-1] 참조).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을 자산의 하위 요소로 포함하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금융자산 구성비와 실물자산 구성비는 선형 관계이다.

[그림 5-2] LWS 국가의 자산 구성

(단위: %)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전체 국가에서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의 비율이 75.5%, 실물자산의 비율이 24.2%로 나타났다.¹¹⁾ 자산 구성 요소로서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을 포함하지 않는 국가 중 전체 국가의 평균과 유사한 국가는 미국이고, 실물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극단치인 칠레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실물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

11)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상이한 자료원을 이용하였으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5-3〉 LWS 국가 및 대한민국의 자산 구성

(단위: %)

국가(연도)	실물자산	금융자산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	부채
LWS				
남아프리카공화국(za17)	98.0	2.0		11.7
슬로바키아(sk17)	90.6	9.4		38.1
슬로베니아(si17)	90.1	9.9		35.6
그리스(gr18)	89.2	10.8		714.0
이탈리아(it16)	88.0	12.0		8.7
영국(uk19)	86.1	13.9		26.1
캐나다(ca19)	83.7	16.3		54.7
스페인(es17)	82.3	17.7		157.5
미국(us19)	79.3	20.7		321.7
독일(de17)	76.8	23.2		100.1
핀란드(fi16)	76.1	23.9		171.4
노르웨이(no20)	72.6	27.4		325.7
에스토니아(ee17)	71.8	13.8	15.7	21.9
호주(au18)	68.8	10.7	20.4	24.0
오스트리아(at17)	67.0	33.0		182.5
룩셈부르크(lu18)	66.5	11.2	23.5	16.3
칠레(cl17)	0.0	100.0		6809.3
전체	78.9	20.9	0.3	361.7
대한민국				
대한민국(22)	63.0	37.0		66.1

주: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연금자산 및 장기저축) 대비 비율임. 볼드체는 비교 대상 국가임.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비교 대상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 노르웨이를 선택하고자 한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융자산 비율이 2.0%로 상대적으로 극단치의 형태를 보인다.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으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분석자료의 시점을 고려하면, 남유럽 국가는 2010년대 경제위기의 여파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 대상 국가로는 영국을 선택하였다. 분석자료의 시점이 2019년이고 실제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시점은 2020년이라는 점에서 브렉시트(brexit)의 잠재적인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전체 국가와 유사한 국가는 미국으로, 분석자료의 기준 시점은 2019년이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 칠레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100%인 극단치의 형태를 보인다. 룩셈부르크와 호주, 에스토니아는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을 자산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LWS에서 가구처분가능소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료 이용 가능성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물자산의 비율이 다소 낮은 비교 대상 국가로는 노르웨이를 선택하며, 분석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0년이다.

3.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원자료

LWS에서는 국가별로 수행된 대표성을 가진 소득 및 자산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정제한 국제비교 데이터를 제공한다. 즉, 개별 국가에서 실시된 원자료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LWS 자체 시스템인 METIS을 통해 개별 원자료의 정보를 제공한다.¹²⁾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에서 관리하는 가구자산통계(Household Wealth Statistics)를 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인구총조사와 유사한 등록자료(Census-like register data)를 자료원으로 하며, 연간(annual) 자료를

12) METIS. (n.d.).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frontend#/home> 2023.5.11.

생산한다. 전체 등록 인구 중 10%를 추출하므로, 표집계획에 의한 조사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10% 표본이 추출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구(household)는 물리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림살이를 공유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 조사에 의한 자산 정보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이다.

영국의 자료는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관리하는 재산과 자산 조사(Wealth and Assets Survey, WAS)를 원자료로 한다. 이 조사는 패널조사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Great Britain) 지역을 대표하는 가구와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연금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특성과 수준, 재정계획 및 저축 행태,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한다. 2년을 주기로 조사를 수행하며, 17,500 가구와 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표집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표집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한다. 가구는 주거주지와 하루 1회 이상의 식사, 혹은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자산 정보는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자료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관리하는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를 원자료로 한다. 연금 등 가구의 재무상태와 관련 서비스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횡단면 조사로서 3년을 주기로 시행되며, 주거지를 가진 미국 시민을 모집단으로 하므로 요양시설이나 감옥, 호텔, 노숙자 등은 제외된다. 이중틀 표집계획(Dual-frame sample design)을 기반으로 하여 5,783 가족의 18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에게 조사를 실시한다. 응답 자료는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소득 통계(the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의 조세 데이터에서 1,500 사례의 데이터를 보완한다. 가구는

1차 경제 단위(primary economic unit, PEU)로서 가구주 혹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를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한다. 자산 정보는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지형

1.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연령집단 분포

다음 표는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19세 이상 연령집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유효표본의 크기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고, 연령집단별 구성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노르웨이의 총 유효표본은 426,479명이고, 영국은 31,160명, 미국은 52,055명, 한국은 35,907명이다. 영국의 자료에서는 85세 이상 노인 집단이 조사되지 않는다. 미국의 자료에서 20대 초반 집단 표본의 크기가 3.9%로 다소 적은 편이고, 20대 후반 집단은 13.1%로 다소 크게 구성된 특징을 보인다.

LWS에서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정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국가의 표본 특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을 개인화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연령집단의 구성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해야 한다.

〈표 5-4〉 비교 대상 국가 분석자료의 연령집단 분포

구분	노르웨이 (2020)		영국 (2019)		미국 (2019)		한국 (2022)	
	명	%	명	%	명	%	명	%
19~24세	40193	(9.5)	1590	(7.4)	1400	(3.9)	2538	(7.6)
25~29세	36387	(8.6)	1353	(8.0)	6271	(13.1)	2153	(6.8)
30~34세	38308	(9.1)	1555	(9.8)	3635	(9.6)	1937	(6.7)
35~39세	36175	(8.5)	1938	(8.7)	4265	(8.8)	2283	(8.6)
40~44세	35436	(8.3)	2047	(8.0)	4211	(8.1)	2940	(9.6)
45~49세	38087	(8.8)	2424	(8.8)	4595	(8.0)	3108	(9.6)
50~54세	38748	(9.0)	2730	(9.3)	4975	(8.4)	3492	(10.5)
55~59세	34836	(8.1)	2975	(8.7)	5480	(9.0)	3360	(9.6)
60~64세	31896	(7.4)	2992	(7.4)	5345	(8.4)	3889	(9.7)
65~69세	28424	(6.6)	3308	(6.8)	4478	(7.4)	3195	(6.9)
70~74세	26265	(6.2)	3411	(6.5)	3395	(6.2)	2504	(5.2)
75~79세	19170	(4.5)	2339	(4.6)	2130	(4.8)	1988	(4.0)
80~84세	11789	(2.8)	2498	(6.0)	1100	(2.4)	1475	(3.1)
85세 이상	10765	(2.6)			775	(1.7)	1045	(2.1)
합계	426479	(100.0)	31160	(100.0)	52055	(100.0)	35907	(100.0)

주: 유효표본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고,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 표는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혼인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결혼했거나(married) 결혼하지 않았거나(not married)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거나(formerly married) 사별한(widowed) 사례로 분류한다. 영국은 결혼했거나(married) 결혼한 경험이 없거나(never married) 별거하고 있거나(separated) 이혼했거나(divorced) 사별한(widowed) 사례로 분류한다. 미국은 결혼했거나(married) 사실혼 관계이거나(in consensual union) 결혼한 경험이 없거나(never married)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거나(formerly married) 별거하고 있거나

(separated) 이혼했거나(divorced) 사별한(widowed) 사례로 분류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거나 별거하고 있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는 이혼, 별거, 사별한 것으로, 결혼한 경험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미혼으로 재분류하였다.

노르웨이와 영국, 대한민국의 자료에서는 20대 초반에 배우자 있는 경우의 비율이 0~3%의 범위에서 작은 규모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자 집단에서는 이혼했거나 별거, 사별한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는 공통된 경향을 보인다. 미혼의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또한 공통적이다. 그런데 미국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집단별 혼인상태의 구성은 다소 이질적이다. 이는 개별 국가 자료의 자료원 특성이 상이한 데에 기인할 수 있다.

〈표 5-5〉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혼인상태

(단위: %)

〈노르웨이, 2020〉					〈영국, 2019〉				
구분	배우자 있음	이혼/별거/사별	미혼	합계	구분	배우자 있음	이혼/별거/사별	미혼	합계
19~24세	1.3	0.1	98.6	100.0	19~24세	2.3	0.2	97.5	100.0
25~29세	11.4	1.0	87.6	100.0	25~29세	20.7	1.7	77.6	100.0
30~34세	29.9	3.6	66.5	100.0	30~34세	46.9	3.7	49.4	100.0
35~39세	44.0	7.5	48.5	100.0	35~39세	61.3	6.8	31.9	100.0
40~44세	49.9	11.4	38.7	100.0	40~44세	66.6	8.7	24.7	100.0
45~49세	51.6	15.8	32.6	100.0	45~49세	61.7	15.8	22.5	100.0
50~54세	53.4	19.9	26.7	100.0	50~54세	64.0	17.7	18.3	100.0
55~59세	55.5	23.1	21.4	100.0	55~59세	60.9	23.1	15.9	100.0
60~64세	59.5	24.9	15.7	100.0	60~64세	64.3	25.0	10.7	100.0
65~69세	62.6	27.0	10.5	100.0	65~69세	64.9	27.6	7.5	100.0
70~74세	63.8	29.6	6.7	100.0	70~74세	67.7	27.2	5.1	100.0
75~79세	59.5	35.3	5.3	100.0	75~79세	58.7	36.7	4.5	100.0
80~84세	49.9	45.7	4.4	100.0	80~84세	42.0	52.9	5.1	100.0
85세 이상	29.3	66.0	4.7	100.0					

〈미국, 2019〉					〈대한민국, 2020〉				
구분	배우자 있음	이혼/별 거/사별	미혼	합계	구분	배우자 있음	이혼/별 거/사별	미혼	합계
19~24세	56.7	1.2	42.1	100.0	19~24세	0.4	0.1	99.5	100.0
25~29세	37.4	1.6	61.1	100.0	25~29세	9.5	0.4	90.1	100.0
30~34세	71.7	4.8	23.5	100.0	30~34세	43.7	1.2	55.1	100.0
35~39세	75.4	8.0	16.6	100.0	35~39세	72.9	3.3	23.8	100.0
40~44세	75.3	11.3	13.4	100.0	40~44세	76.5	5.7	17.8	100.0
45~49세	76.4	14.4	9.2	100.0	45~49세	81.2	7.8	11.1	100.0
50~54세	73.6	16.4	10.0	100.0	50~54세	80.5	11.9	7.7	100.0
55~59세	71.7	18.8	9.5	100.0	55~59세	78.3	17.3	4.5	100.0
60~64세	69.9	23.9	6.2	100.0	60~64세	78.2	19.5	2.3	100.0
65~69세	66.8	24.7	8.5	100.0	65~69세	76.5	22.1	1.4	100.0
70~74세	67.2	27.9	4.9	100.0	70~74세	71.0	28.1	0.9	100.0
75~79세	56.5	39.4	4.1	100.0	75~79세	62.4	37.1	0.5	100.0
80~84세	63.6	34.5	1.9	100.0	80~84세	52.2	47.3	0.5	100.0
85세 이상	44.2	55.8	0.0	100.0	85세 이상	32.6	67.4	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연령집단별 자산 분포 특성

다음 그림은 분석 대상 국가인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가구 자산을 구성하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구별한 것이다. 초기 청년기 이후 실물자산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다가 노령기에 금융자산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중장년기 후기에 고점을 보이는데, 이는 자가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영향일 수 있다. 다만, 거주주택의 향후 돌려받을 전월세보증금은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가별 전월세보증금의 구성비는 [부그림 3-1]에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노르웨이는 20대 초반에 실물자산의 비중이 52.6%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 50대 초반에 77.6%

수준이다. 다시 실물자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해 85세 이상 집단은 57.7%인데, 이는 20대 초반 집단과 약 5%p 정도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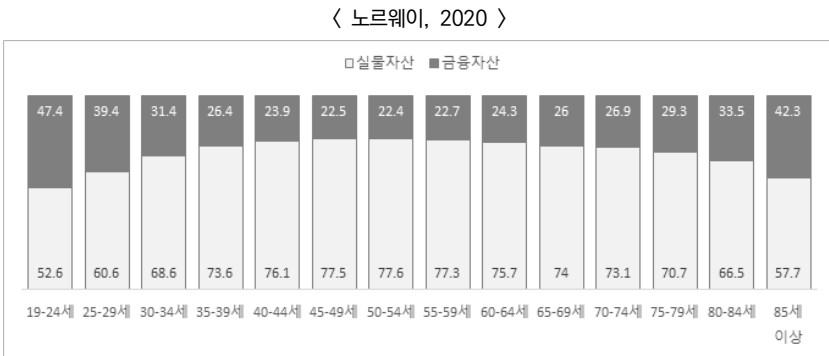
영국은 연령집단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20대 후반에 실물자산의 비율이 83.4%이고, 40대 후반에 88.7%로 증가했다가 80대 초반에는 80.7% 수준으로, 연령집단별 편차가 10%p 내에서 나타난다.

미국 자료에서 나타나는 연령집단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구성은 노르웨이와 영국의 중간 수준이다. 20대 초반에 실물자산의 비중이 65.3%이고,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해 40대 후반에 84.9% 수준이다. 5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점차 실물자산의 비중이 감소하여 85세 집단에서는 70.8%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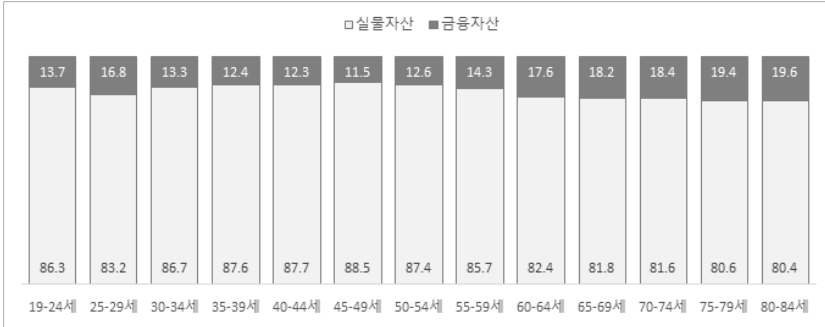
한국은 연령집단에 따른 금융자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물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생애 시기가 지연되는 편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는 20대 이후 30대 초반에 실물자산의 비중이 51.7%로 나타나고,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해 70대 초반에 이르러 70.8%를 보인다. 그리고 점차 감소해 80대 후반에는 57.7%이다.

[그림 5-3]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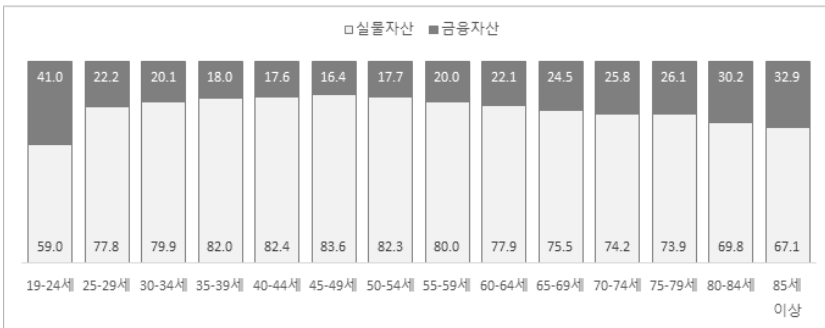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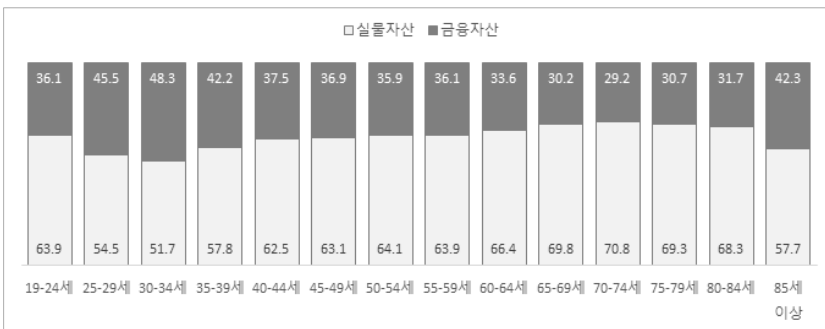
〈 영국, 2019 〉



〈 미국, 2019 〉



〈 대한민국, 2019 〉



주: 실물자산(non-financial assets)과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으로 산출한 총자산 대비 비율임.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다음 그림에서는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과 자산의 수준을 도식화하였다. 노르웨이를 보면,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에 따라 소득이 점증하고, 은퇴 연령인 6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소득의 초과분을 누적하는 총자산은 20대 초반부터 점증하여 60대 후반에 최고점을 보이고 80대 후반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은 20대보다 30대 초반에 소득 수준이 다소 높다. LWS에서 활용하는 소득이 가구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것이므로, 원가족의 경제력을 공유하는 실태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30대 초반부터는 연령에 따라 소득 수준이 점증하다가 50대 후반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60대 초반에 급감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자산은 원가족의 경제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이후 30대 초반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점차 자산을 누적하면서 70대 후반까지 점증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청년기부터 연령에 따라 소득이 60대 초반까지 점증하는데, 20대 후반에 약간 증가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노령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자산 수준 또한 20대 후반의 급증하는 경향을 제외하면 60대 후반까지 점증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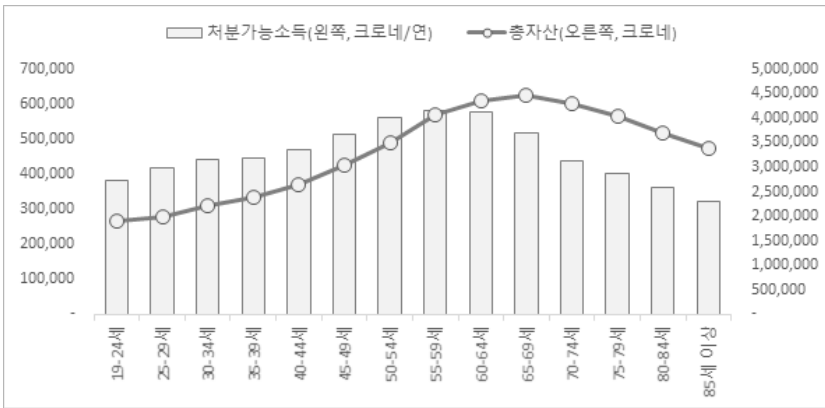
한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유사하게 20~30대에 원가족의 경제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40대부터 연령에 따라 점증하여 50대 초반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점차 감소한다. 80대 후반 집단의 소득이 80대 초반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존한 초고령자의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자산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점차 감소하

여 윙가족의 경제력에 의한 영향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다가 60대 후반까지 점증한다.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자산 수준이 점차 낮아져, 전반적으로 모달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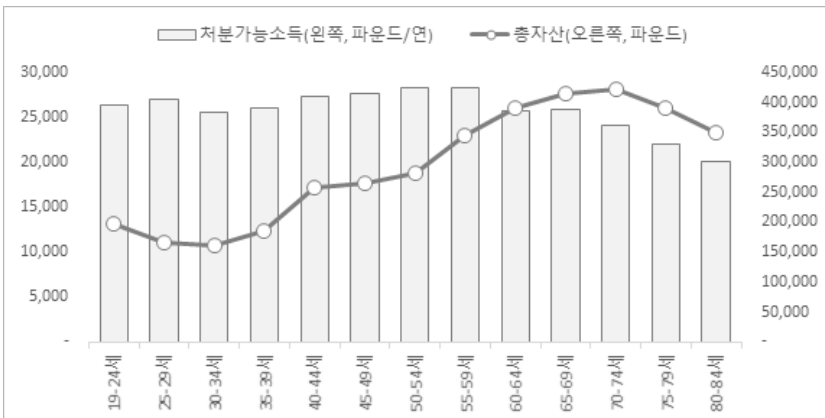
[그림 5-4]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 자산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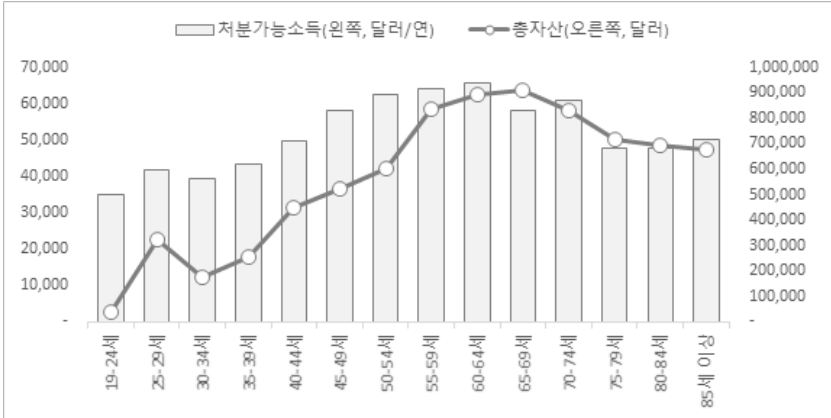
< 노르웨이,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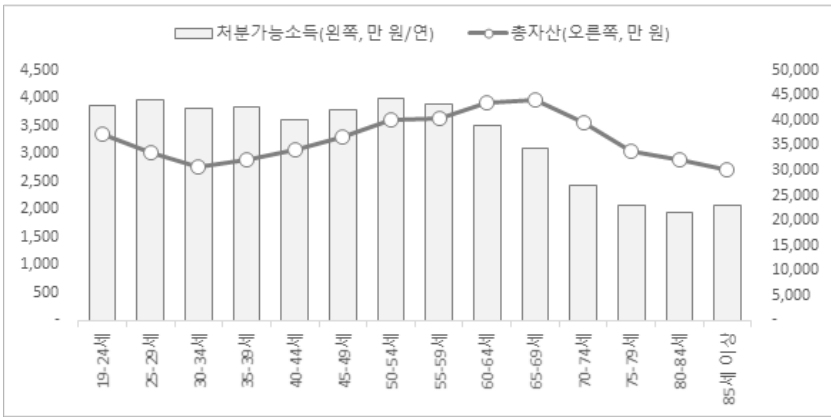
< 영국, 2019 >



〈 미국, 2019 〉



〈 대한민국,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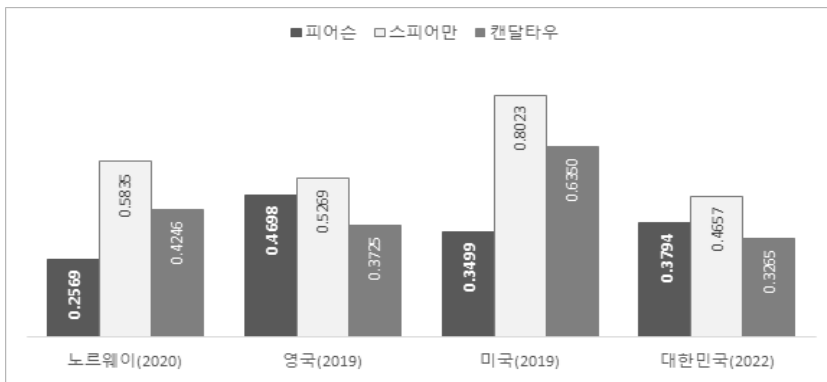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였음.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절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1.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에서 소득과 자산 간 상관관계의 존재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와 함께, 순위를 고려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 켄달 타우 상관계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로 보는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영국이 0.4698로 가장 높고, 한국이 0.3794, 미국이 0.34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선진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가 0.2569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5-5]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자산 간 상관계수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런데 소득과 자산의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의 경향은 다소 상이하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미국이 0.8023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던 노르웨이의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0.5835로 미국에 이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다음이 영국(0.5269), 그리고 한국(0.4657)으로 나타났다. 순위를 고려하는 또 다른 지수인 켄달 타우 상관계수 또한 미국이 0.6350으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 0.4246, 영국 0.3725, 한국 0.326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의 순위는 미국에서 상당히 경직적 일뿐더러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와 영국 등에서도 비교적 경직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에서는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5세 단위 연령집단별로 산출하여 도식화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는 연령집단별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20대와 80대에서 낮은 편이고 60대 전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느슨한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인다.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다시 말해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연령집단별로 0.4 수준에서 눈에 띄는 등락을 보이는데, 20대 후반과 40대 초반, 70대 초반 집단에서 다소 상관계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40대 초반과 70대 초반에서 다소 높은 형태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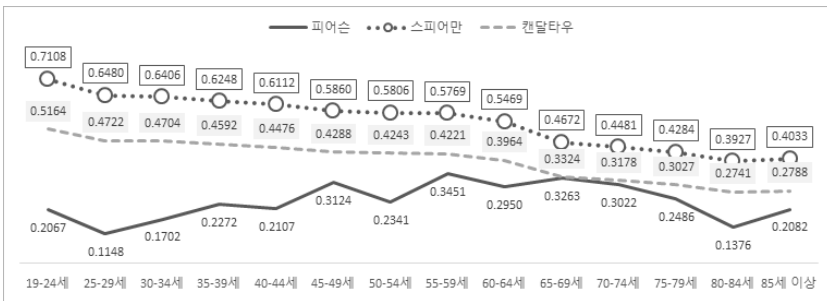
미국에서 연령집단별 소득과 자산의 피어슨 상관계수도 상당한 등락을 보인다. 특히 20대 초반과 40대 초반, 그리고 60대에서 낮은 수준이 나타난다.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20대 후반의 급증 경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즉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가 경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느슨해지는 노르웨이와 다소

상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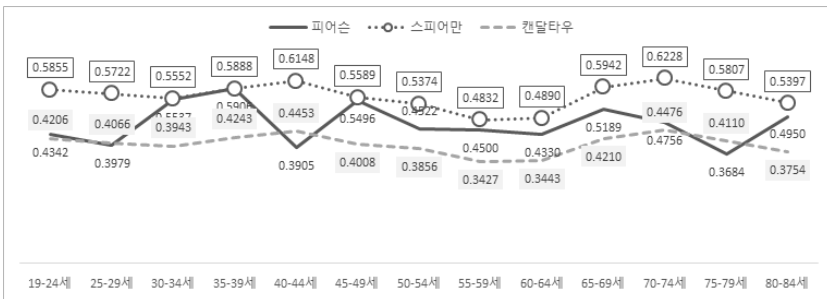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연령집단별 피어슨 상관계수는 0.4~0.5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20대와 40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70대 초반과 80대 초반에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순위를 고려한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켄달 타우 상관계수는 원가족의 경제력이 반영되는 20대 초반에 0.5326 및 0.3745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가, 각각 0.4 후반대와 0.3 초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은퇴 이후인 6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80대 후반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고령자 집단의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생존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림 5-6]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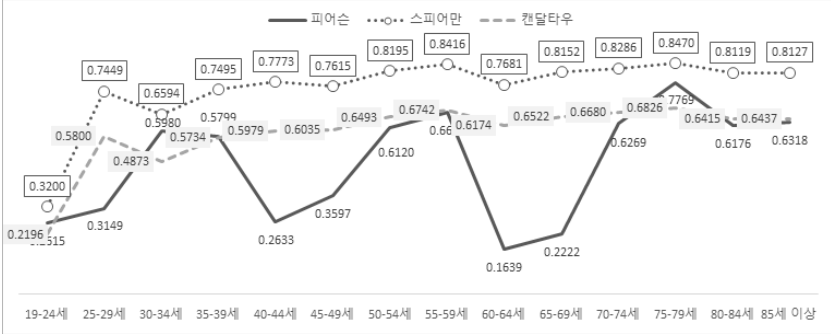
〈 노르웨이,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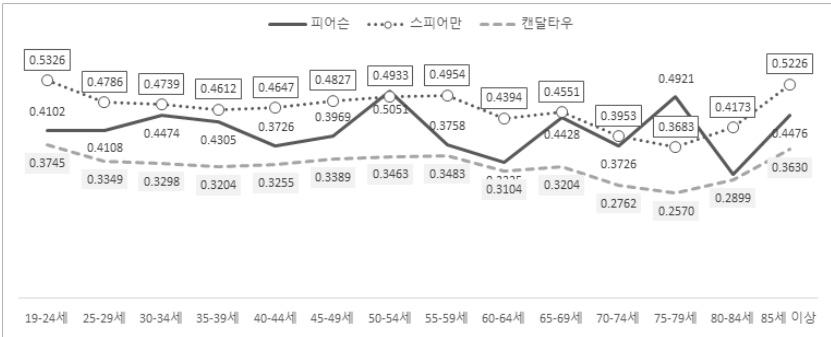
〈 영국, 2019 〉



〈 미국, 2019 〉



〈 대한민국, 2022 〉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

소득과 자산 간의 결합 관계는 상관계수뿐만 아니라 분위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득과 자산 5분위와 10분위 결합 집단 간 이동성 지수(이하 $M(P)$, Shorrocks, 1978)를 연령집단에 따라 산출하였다. $M(P)$ 는 최소 0에서 최대 1의 범위에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동성이 높다. 소득과 자산 결합 분위별 분포는 <부표

3-1), <부표 3-2>에 제시하였다.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 간 $M(P)$ 는 10분위 기준 0.8 중후반대에서 0.9 중후반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이는 10분위 결합 분위와 5분위 결합 분위에서 모두 드러나는데, 특히 후자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즉, 노르웨이에서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견고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M(P)$ 는 연령대별로 10분위 기준 0.8 중후반대부터 0.9 중후반대까지 약간의 등락을 보인다. [그림 5-7]에서 원가족의 경제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이후 30대까지 $M(P)$ 가 다소 감소하다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해 50대 초반 10분위 기준 $M(P)$ 는 0.8990 수준이다. 60대부터 다시 $M(P)$ 가 증가해 80대 초반에는 0.95 수준에 이른다. 영국에서도 역시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견고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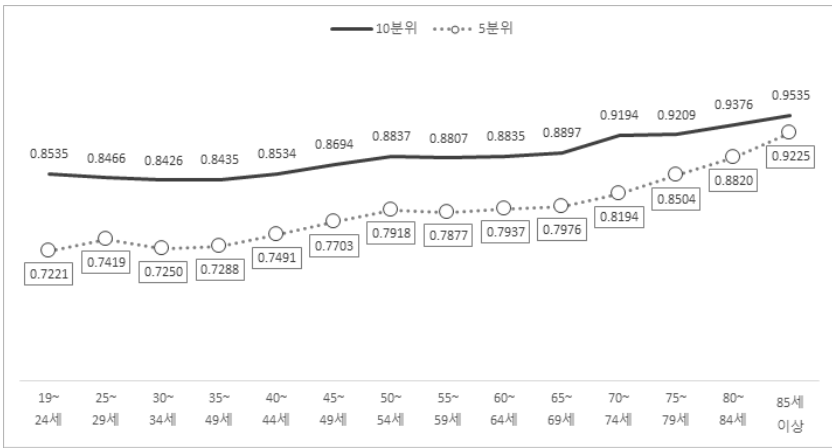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20대 초반에 10분위 기준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M(P)$ 가 0.9606, 5분위 기준 0.9032로 높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급감하여 30대 초반에 10분위 기준 0.7853, 5분위 기준 0.6680으로 낮아진다. 3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는 10분위 기준 0.8 초반 수준을, 5분위 기준 0.6 후반에서 0.7 초반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70대 후반부터는 $M(P)$ 가 등락을 보이며 다소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견고성이 경제활동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0분위 기준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M(P)$ 가 20대에 0.93 수준인데 3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0.9 초반대 수준을 유지한다. 70대 후반에 0.9541로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80대 후반에는 0.9188 정도를 보인다. 5분위 기준 $M(P)$ 는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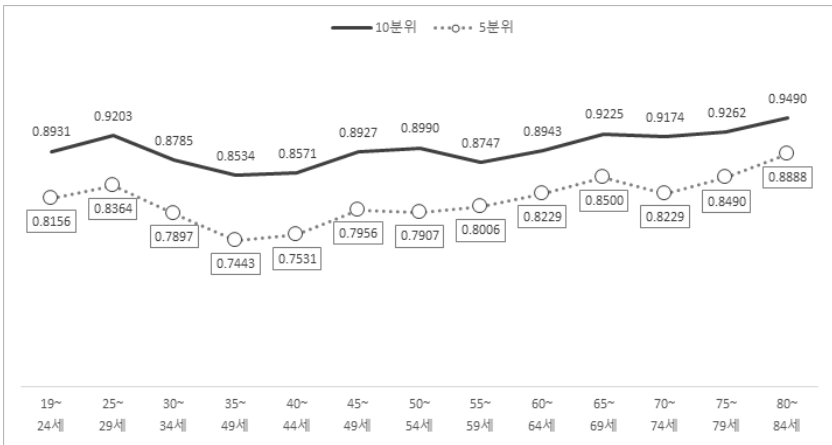
다소 증가했다가 30대부터 60대까지 0.85 내외 수준을 유지한다. 70대에 0.95 수준까지 증가하여 80대에 다시 감소한다.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위의 견고성이 낮은 편이고, 경제활동기에는 상대적으로 견고성이 유지되는 미국의 경향과 유사한 것이다.

[그림 5-7]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분위 이동성(무조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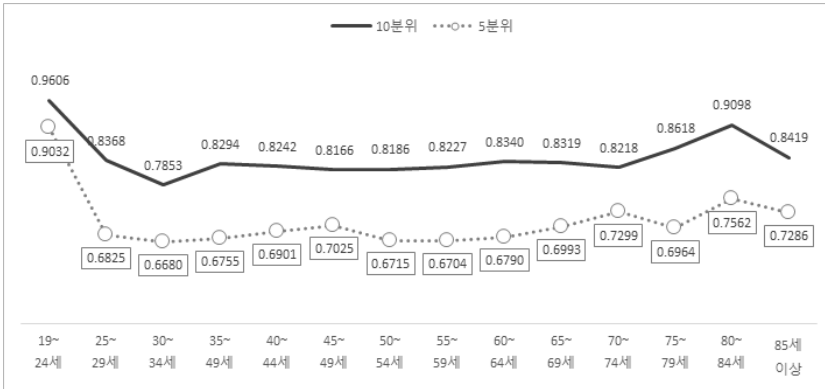
〈 노르웨이,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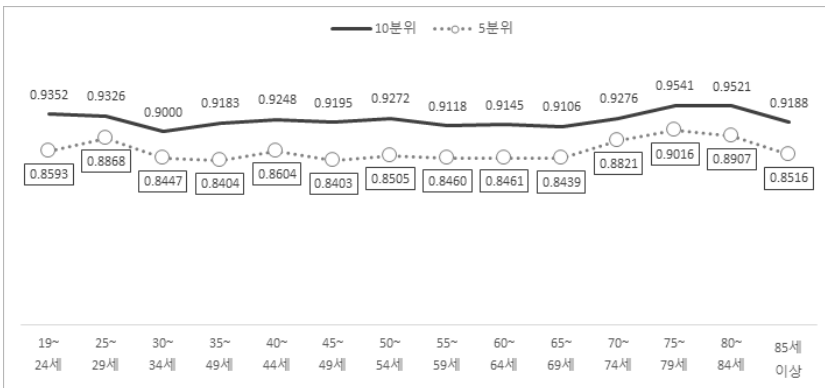
〈 영국, 2019 〉



〈 미국, 2019 〉



〈 대한민국, 2022 〉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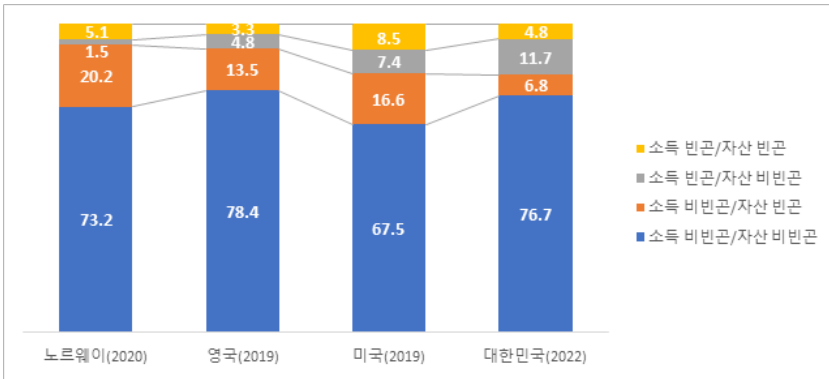
3.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를 국제비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유형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소득 빈곤은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에 미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자산 빈곤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이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에 미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¹³⁾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교차하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이 빈곤한 집단, 소득이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그림 5-8]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집단 분포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8]을 보면, 이 분석자료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영국에서 78.4%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한국이 76.7%, 노르웨이가 73.2% 수준이고, 미국이 67.5%로 가장 적은 편이다.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비율이 20.2% 정도이다. 다음은 미국이 16.6%, 영국이 13.5%

13) 단, 국제비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였으므로 공식적인 소득분배 지표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다.

수준이고 한국은 6.8%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한국이 11.7%로 가장 많다. 다음은 미국이 7.4%, 영국이 4.8%이고, 노르웨이가 1.5%로 가장 적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미국이 8.5%로 가장 많다. 다음은 노르웨이가 5.1%, 한국이 4.8% 순이고, 영국이 3.3%로 가장 적다.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빈곤 유형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표 5-6>과 같다. 전체 대비 비율의 절대값이 높은 경우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노르웨이는 소득과 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빈곤하거나 소득과 빈곤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청년기와 초기 장년기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년기부터 노년기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고 자산을 형성하면서 점차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소득이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주로 20~30대에서 나타난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40대부터 점차 늘어나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은 빈곤한 집단이 50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특이한 지점이다.

미국의 연령집단별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빈곤 유형별 분포는 영국의 분포와 유사하다. 즉, 소득이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20~3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40대부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이 우세하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은 빈곤한 집단이 5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는 것도 영국의 경향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빈곤 유형별 분포는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결과와 상이하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거나 자산은 빈곤하지만 소득이 빈곤한 집단은 주로 20대 청년기부터 50대 중장년기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이다. 자산의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빈곤한 집단은 60대 후반부터 고령층에 집중된다. 소득이 빈곤한 고령층 중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인은 소득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이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표 5-6〉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유형 분포

(단위: %)

〈 노르웨이, 2020 〉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19~24세	6.2	11.5	28.8	42.6	9.5
25~29세	6.0	15.7	10.4	17.8	8.6
30~34세	7.3	15.3	7.6	10.7	9.1
35~39세	7.5	12.4	7.6	7.9	8.5
40~44세	7.9	10.6	6.8	6.1	8.3
45~49세	9.0	9.5	6.6	4.3	8.8
50~54세	9.7	8.0	6.3	3.5	9.0
55~59세	9.1	5.7	6.6	2.6	8.1
60~64세	8.7	4.0	6.8	2.0	7.4
65~69세	8.2	2.5	4.1	1.1	6.6
70~74세	7.8	2.0	2.9	0.5	6.2
75~79세	5.8	1.2	1.8	0.4	4.5
80~84세	3.6	0.8	1.9	0.3	2.8
85세 이상	3.2	0.8	1.9	0.3	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5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 영국, 2019 〉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19~24세	6.5	11.9	3.6	15.6	7.4
25~29세	7.0	15.3	1.4	12.3	8.0
30~34세	9.1	14.9	4.7	13.1	9.8
35~39세	8.4	11.9	3.9	9.8	8.7
40~44세	8.1	7.9	5.7	7.7	8.0
45~49세	9.0	8.3	6.5	8.7	8.8
50~54세	9.6	7.4	9.1	8.9	9.3
55~59세	9.1	5.9	11.9	6.9	8.7
60~64세	7.6	4.0	14.7	8.1	7.4
65~69세	7.4	3.9	8.3	2.0	6.8
70~74세	7.1	3.1	8.9	1.9	6.5
75~79세	4.9	2.7	7.5	2.3	4.6
80~84세	6.2	2.8	13.9	2.7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국, 2019 〉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19~24세	1.5	7.6	9.1	11.9	3.9
25~29세	10.4	21.8	10.4	20.1	13.1
30~34세	8.3	16.9	5.8	9.7	9.6
35~39세	7.8	14.0	6.4	9.0	8.8
40~44세	8.6	7.9	6.2	6.9	8.1
45~49세	8.7	6.9	6.5	6.5	8.0
50~54세	9.1	6.6	7.1	6.9	8.4
55~59세	10.0	5.3	11.1	6.5	9.0
60~64세	9.3	4.0	9.8	7.8	8.4
65~69세	8.2	3.7	9.2	6.9	7.4
70~74세	7.5	2.7	6.7	2.9	6.2
75~79세	5.8	1.3	5.5	3.3	4.8
80~84세	2.9	0.9	2.8	1.3	2.4
85세 이상	2.0	0.5	3.6	0.4	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대한민국, 2022 〉

구분	소득 비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비빈곤/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비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	전체
19~24세	8.2	9.3	4.3	4.8	7.6
25~29세	7.0	11.4	3.6	3.9	6.8
30~34세	7.2	8.3	3.6	4.4	6.7
35~39세	9.3	9.4	5.3	4.0	8.6
40~44세	10.4	9.8	5.9	5.3	9.6
45~49세	10.5	8.5	6.3	6.3	9.6
50~54세	11.1	11.6	6.8	7.1	10.5
55~59세	10.0	10.2	6.8	9.0	9.6
60~64세	10.0	8.2	8.7	10.0	9.7
65~69세	6.8	4.4	8.9	8.5	6.9
70~74세	4.1	2.9	11.8	9.4	5.2
75~79세	2.6	2.8	12.1	9.2	4.0
80~84세	1.8	1.5	10.1	9.0	3.1
85세 이상	1.2	1.8	5.7	9.1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전체 비율보다 높은 경우 볼드체로 표시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

경제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출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하며 은퇴 이후에는 사회보장 기여분이나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즐기는 일련의 생애 궤적에 대한 생애주기 가설은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주요국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생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정제된 분석자료인 룩셈부르크자산조사(LWS)를

주로 활용하였다. LWS는 22개 국가의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가구주와 가구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LWS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LWS의 가구 단위 구성에 부합하도록 활용하였지만, 비교 대상으로서의 엄밀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자가주택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의 논의를 고려해(신진욱, 이은지, 2012; Doling & Ronald, 2010; De Decker & Dewilde, 2010; Lowe, Searle & Smith, 2012; Dewilde & Ronald, 2017; Mosciaro & Aalbers, 2020; Bryant, Spies-Butcher & Stebbing, 2022; Benites-Gambirazio & Bonneval, 2022; Wood, Ong & Haffner, 2022), 자가주택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구성비를 활용해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자료의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2020년 노르웨이, 2019년 영국, 2019년 미국과 2022년 한국이 최종 분석 대상이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의 비중이 큰 편이고, 미국은 평균에 수렴하며, 노르웨이는 비교적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편이다. LW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편으로 확인되었다.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생애 궤적을 따라 실물자산의 비중이 청년기부터 점차 증가해 중장년기 후기 혹은 노인 초기에 고점을 보이고 점차 감소하는 역U자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5-3] 참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총자산은 60~70대 노년기에 최고점을 보이는 역U자 형태이다([그림 5-4] 참조). 그런데 생애주기 가설([그림 2-1] 참조)과 달리 청년기의 소득과 자산은 중장년기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한국의 자료에서도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을 개인화한 경우와 개인 단위의 소득과 자산의 생애 궤적이 상이한 것과 비교한다면([그림 3-1], [부그림 1-2] 참

조),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경제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청년기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편인데, 표본에서 확인된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분석자료의 특성일 수 있다(〈표 5-5〉 참조).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5-5〉 참조). 소득과 자산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고려해 순위를 반영하는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보면, 노르웨이와 영국이 한국의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국가별로 양상이 다소 상이하다(〈그림 5-6〉 참조). 노르웨이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위를 고려한 상관계수가 감소하고, 미국은 점차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과 영국은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비교적 평이해 보이는데, 〈그림 5-4〉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청년의 소득과 자산이 중장년기에 비해 낮지 않는데,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노년기에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다소 감소한다.

비교 대상 국가에서 모두 조건부 모형의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비조건부 모형에 비해 낮다(〈그림 5-7〉 참조). 이는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교육과 숙련의 인적 자본이 소득과 자산을 비례적으로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에서는 소득과 자산 분위 간의 이동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약간씩 증가해 노년기에 높아지고, 미국은 청년 초기에 소득과 자산 분위 간 이동성이 다소 높다가 30대 후반부터 비교적 평탄해 보인다. 영국과 한국은 비교적 평탄한데, 이 또한 생애주기 가설에 의해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기 부모 세대의 경제력으로 자녀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소득과 빈곤의 결합 빈곤 분포는 한국이 다소 특이한 사례로 확인된다. 노르웨이와 영국, 미국에서 청년과 장년기에 자산 빈곤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아진다. 특히 노르웨이는 교육을 이수하고 입직을 시작하는 초기 청년기에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은 집단의 비중이 높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년기와 장년기에 소득은 빈곤하지 않지만 자산은 빈곤한 집단의 비중이 다소 높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에 주목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영향이 중년기와 노년기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미권, 즉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인 집단에서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집단 유형이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이 특이하다.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은 반면, 노인 집단은 소득이 빈곤한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이 교차되거나 중첩되어 나타나는 집단의 비중이 낮지 않은 경향은 소득의 단일 차원에 의한 접근에서 자산을 고려할 필요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인 집단에서는 소득이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영국이나 미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중년기부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를 고안하는 데 함의를 줄 수 있다.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국인의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는 다른 선진국에서의 실태와 유사한 점을 공유한다. 중장년기에 고점을 보이는 자산, 청년 초기에 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공유하다가 30대에 독립하면서 소

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경향, 그래서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 숙련 등 인적 자본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자산을 형성해 가는 생애 궤적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이한 점도 보인다. 소득과 자산을 결합해서 빈곤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높고, 그중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낮지 않다. 영국과 미국의 영미권과 복지 선진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자산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기제가 필요하다.



제6장

생애 관점

자산 기반 복지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자산 기반 복지 사업 개관

제2절 국내 사례

제3절 해외 사례

제4절 소결

제 6 장

생애 관점 자산 기반 복지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자산 기반 복지 사업 개관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산 기반 복지’를 확장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장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정책에 의한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자산 기반 복지의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사업은 주로 자산 기반 복지의 범주에서 저축 형식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역모기지의 자산 활용 사업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다. 이외에도 광의의 개념으로는 서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저금리 대출과 같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나, 주거비 절감을 통한 자산 축적이나 자가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주거지원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김수현, 2013; 김용창, 2013). 다만 이 연구가 청년기에 소득 활동으로 자산의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년기에 자산을 구축하며, 노년기는 구축된 자산을 활용하는 생애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 기반 복지 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데에 생애 관점을 유지한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 기반 복지 정책 사례를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기와 중년기의 자산 기반 복지 정책으로는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자산 형성과 관련된 정책이 중심이 되며, 노년기에는 감소한 소득을 대신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구성된다. 이에 제2절에서는 국내 사례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제도를,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활용 제도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1〉 생애주기별 자산 기반 정책 사례

구분	청년기	중장년기(저소득층)	노년기
자산 형성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병내일적금	희망저축 I, II 미소드림적금	-
자산 활용	-	-	주택연금 농지연금

자료: 여유진 외. (2017). 한국형 복지모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p. 303의 표 발췌 및 보완

제3절에서는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을 위해 소득·자산 기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발달계좌 등의 자산형성 제도와 모기지론/역모기지론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관련 제도 도입 시 정책 모델로서 다수 참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NISA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세이프티 넷의 일환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해외사례는 미국과 일본의 소득·자산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내 제도 간 비교, 국내외 제도 비교를 위해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준용한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분석틀이며, 할당(allocation), 급여(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재정(fin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할당은 수급 자격을 누가 가질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개인에게 사회적 급여를 할당하기 위해 여러 원칙(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등) 중 특정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는 수급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급여 형태(현금, 현물, 권력, 기회 등)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전달체계는 정해진 할당과 급여를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조직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 재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재원 배분에 대한 선택 차원이며, 즉 재원 마련에 관한 선택(공공 또는 민간, 공공의 경우 조세의 형태 등)과 재정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르는 방식(보조금, 교부금 등)에 대한 것이다(Gilbert & Terrell, 2013).

따라서 이후 내용에서 소득·자산 기반 정책을 다룸에 있어 할당은 대상자 및 수급 자격(또는 지원조건)에 관한 내용이 해당되며, 급여 차원으로는 급여액, 지원 혜택 등을 다룬다. 전달체계 차원으로 급여의 전달 경로, 제도의 소관 부처 및 수행 기관 등을 검토하고, 재정은 사업 예산 규모 등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별로 제도의 특성이 상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 분석과 사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각 제도 및 사업에 대해 분석틀은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다루고자 하며, 내용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2절 국내 사례

1. 청년기 자산 기반 정책

청년기 자산 기반 정책은 대부분 저축 형태로 이자 지원, 비과세,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공제, 청년재직자 내일공제 플러스,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다. 이후 내용에서는 각 사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가. 청년내일저축계좌¹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이며,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22.6.30.).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의 신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가입 대상 기준으로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가구 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먼저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연령, 소득기준은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및 100% 이하인 가구로 나뉜다.

14) 희망저축계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자활사업 안내(II)-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표 6-2〉 청년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구분	대상	지원내용			전담체계 (소관부처)	법적 근거
		본인 납입금	지원혜택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 저축계좌	-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사업소득 - 연간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근로소득장려지원금 (10만 원/30만 원 월 매칭)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3년 만기 -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최소 1,440만 원 + 이자 -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최소 720만 원 + 이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 시군구 - 금융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 도약계좌	- 19~34세 -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 이하 - 기구의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제외	- 최대 월 70만 원	- 소득수준과 납입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3%~6%) - 이자 비과세혜택 - 저소득 청년은 우대금리 제공	- 5년 만기(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 - (70만 원 납입 기준) 4.894~5,000만 원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기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만 19~34세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 연 최대 600만 원	- 소득공제(연 납입액 40%)	- 3~5년(3년 의무 유지) - 본인 납입금+펀드수익 -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소득공제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대상	지원내용			전담체계 (소관부처)	법적 근거
		본인 납입금	지원혜택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 채움공제	- 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 2년간 6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400만 원 - 정부지원금: 400만 원	- 2년 만기 - 1,200만 원 + 이자	- (소관부처)고용 노동부 - 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 운영기관(민간위탁)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 만 15세~34세 -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재직 6개월 이상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3년간 6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600만 원 - 정부지원금: 600만 원	- 3년 만기 - 1,800만 원 + 이자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본부 및 지역본·지부 - 수행기관(민간위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장병내일 준비자금	- 병역의무대상자	- 6~24개월간 최대 월 40만 원	- 납입기간에 따른 은행 금리(최대 5%) - 국가지원 이자 1% - 이자소득비과세 - 매칭지원금	- 18개월 만기 시 - 약 1,289만 원	- (소관부처) 국방부 - 금융기관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①(연령) 신청 당시 15~39세 이하이며, ②(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으로 한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①(연령) 신청 당시 19~39세 이하이며, ②(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재산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이는 없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희망저축계좌 I, II에 가입된 가구의 경우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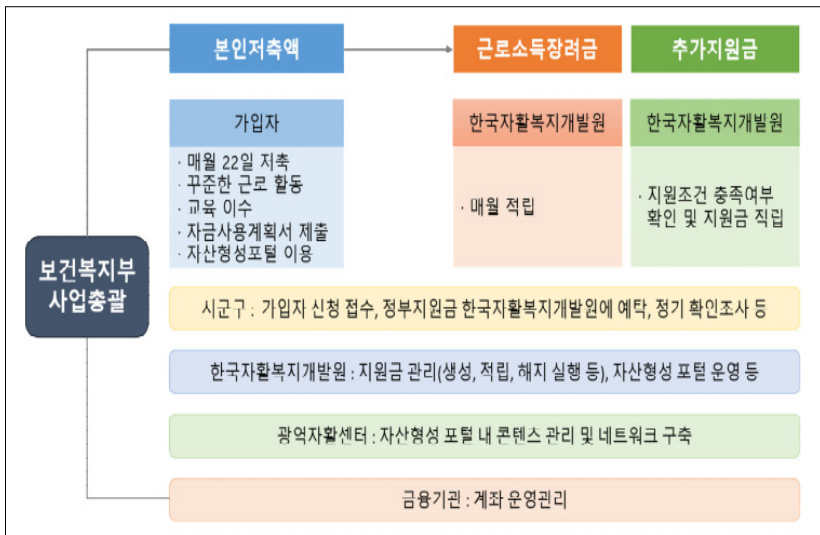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1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근로소득장려금외에도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급 요건으로는 만기 시까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납부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한 상태이며,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 수령액은 “본인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최소 720만 원+ α (이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최소 1,440만 원 + α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6-1]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소관부처로서 사업을 총괄한다. 시군구는 가입자 신청 접

수,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의 정부지원금 예탁 등을 담당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예탁받은 지원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하는 활동을 하며,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그림 6-1]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II)-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라목(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법적 근거를 두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서민금융진흥원, 2023. 3.10.).

가입 대상은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②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고,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④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자는 제외된다. 또한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자산형성 사업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연계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효과를 확대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상품과 고용 지원 상품에 대한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3.3.8.)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정부기여금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며, 이와 함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이며,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을 지급받으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한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2023.3.8.).

사업의 시행주체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고 운영한다. 각 주체의 역할을 보면,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기여금 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한다. 각 금융기관은 청년도약계좌의 상담 및 가입 신청, 기여금 지급 등 상품 운영 전반을 수행한다(서민금융진흥원, 2023.3.10.). 청년도약계좌사업의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예산을 출연하여 마련되며, 2023년 예산 규모는 3,678억 원이다(금융위원회, 2023.1.30.).

액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에서 배제된다(대한민국정부, 2024).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며, 각 금융기관에서 펀드 상품의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23).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 8, 제30조의 10 등에 근거하여 추진된다(고용노동부, 2023.2.3.).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이 있으며, 청년은 만 15세~34세로,¹⁵⁾ 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월 급여액 총액이 300만 원인 자가 해당한다.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자나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15)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함.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한다(고용노동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며, 가입 기간은 2년이다. 청년과 기업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16만 원, 4개월×20만 원)을 적립하며, 정부는 2년간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적립한다. 2년 만기 시, 청년은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시행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고용센터는 참여 신청 및 적격 심사, 정부 지원금 관리, 청년 및 실시기업에 대한 점검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공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 및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기업 혜택 관리, 청약 관리, 공제부금 수납 및 기금 운용 등에 관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한다(고용노동부, 2023.2.3.).

[그림 6-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do> 에서 2023.9.5. 인출.

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3.14.). 2022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까지 운영되는 한시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인력)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한다.¹⁶⁾ 다만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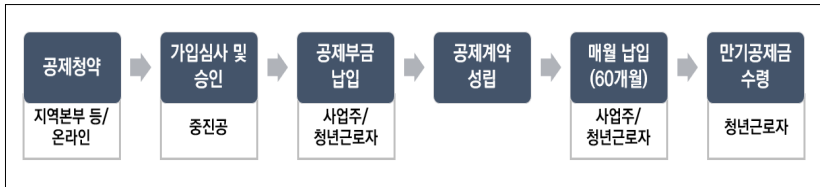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형식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청년과 기업은 1년 차에는 월 14만 원,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6회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600만 원을 적립한다. 3년 만기 시 해당 기업에게는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청년은 최소 1,8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 본·지부, 수행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로서 사업 전반의 총괄 및 조정 업무, 예산 편성 및 관리, 관련 업무 등의 역할을 수

16)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함.

행한다. 중진공 본부는 운영을 총괄하며, 공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규정, 운영지침 등 제·개정 업무, 공제부금 수납, 성과보상기금 운용, 공제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진공 지역 본·지부는 공제사업의 안내 및 홍보, 가입 수행기관 발굴, 공제가입 심사, 승낙, 가입 업무, 평가, 선정 및 관리 업무, 공제가입 실적 통계 유지 등을 수행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공제가입 요건 검토,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 검토, 공제계약자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3.14.). 전달체계에 따라 지원 절차는 [그림 6-4]와 같다.

[그림 6-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절차



자료: 내일채움공제.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https://www.sbcplan.or.kr/pag e.do?mCode=B112010000> 에서 2023.9.5. 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바.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중 급여 적립, 목돈 마련을 통해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국방부, 2021.12.31.).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해당 된다.

가입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되며, 소속기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납입은 최대 월 40만 원(은행별 2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5%의 은행 이자와 1%의 국가지원 이자를 포함한 고금리 이자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매칭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¹⁷⁾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연도별 매칭 비율(2022년 33%, 2023년 71%)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및 전역 시 지원한다(국방부, 2023b).

결과적으로 만기 시, 본인 납입금과 이자(은행 이자 5%+국가지원 이자 1%, 비과세), 매칭지원금이 지급된다. 18개월 만기, 월 40만 원씩 적립한 경우 매칭지원금의 매칭 비율을 71%로 가정한다면 약 1,28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국방부, 2023c).

2. 저소득층 자산 기반 정책

중장년층 대상 자산 기반 정책이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청년기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희망저축계좌 I, II와 미소드림 적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장병내일준비지원금은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며, 내일준비지원금의 최대금액을 2022년 기준 월 14.1만 원에서 2023년 기준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2025년까지 월 55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국방부, 2023a).

〈표 6-3〉 저소득층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구분	대상	지원내용			전담체계 (소관부처)	법적 근거
		본인 납입금	지원혜택	민기 수행액		
희망저축 I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까지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1,080원(월 30만 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최대 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 - 지자체 지원금 - 기타 지원금	- 3년 만기 - 최소 1,440만 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 - 가입 후 3년 6개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 자활센터 - 지자체(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희망저축 II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까지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월 10만 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 - 지자체 지원금 - 기타 지원금	- 3년 만기 - 최소 720만 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 자활센터 - 지자체(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구분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소관부처)	법적 근거
		본인 납입금	지원혜택	만기 수령액		
미소드림 적금	-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 월 최대 20만 원 - (최소 1만 원)	- 적금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금원이 추가 지원(지원금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	- 1년 이상 5년 이하 - 최대 720만 원+ 은행이자+서금원 지원금	- (소관부처)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기관	-

자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II)-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서민금융진흥원. (n.d.). <https://www.kinfa.or.kr/co>
nentsPage.do?menuCode=01331&menuCategory=00160#none 에서 2023.3.30. 인출.

가.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며,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두 사업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업이며, 한 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가입신청, 정부지원금 예탁 등),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 자립역량 교육 등 사업지원), 금융기관(계좌 운영관리)과 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¹⁸⁾는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로 구분되며, 각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고,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에 재가입은 불가하다. 또한 사업 참여 중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¹⁹⁾

희망저축계좌 I은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①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 근로활동 기준 가구 내 일하는 가구원이 있으며, ③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18) 희망저축계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자활사업 안내(II)-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19) 단 가입자 외 타 가구원인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a).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가구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30만 원씩 매칭하여 적립된다. 또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과 시·도 자활기금과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을 통해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가입 기간(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년 만기 이후 6개월 내 탈수급 상태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충족한 경우 3년간 적립한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자가 받게 되는 지원금은 “본인 적립금(최소 360만 원) + 근로장려금(1,080만 원) + 이자 지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으로 최소 1,440만 원+ α 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의 대상자를 확대한 사업으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지원 대상 조건은 ①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어야 하며, ② (근로활동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희망저축계좌Ⅰ과 비슷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 원씩 매칭하여 적립된다. 또한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과 시·도 자활기금과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에서는 3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만기 시 자금사

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최소 360만 원) + 근로장려금(360만 원) + 이자 지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만기 시 지급 예상액은 최소 720만 원이다.

나. 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중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2023.3.30.).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 상황자이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서금원의 미소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성실 상황자이어야 한다(서민금융진흥원, n.d.).

미소드림적금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최소 1만 원~ 최대 20만 원의 일정 금액을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저축할 경우 적금 만기 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며, 은행에서 지급하는 만기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100% 매칭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5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4.6%~5.0% 이율이 적용된다. 만약 미소드림적금의 가입자가 매달

20만 원씩 3년간 저축한 경우 “본인 납입금(최대 720만 원)+은행이자(최대 약 47만 원, 세금 제외)+서금원 지원금(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노년기 자산 기반 정책

노년기 이전까지의 자산 기반 정책은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정책 내용이었다면, 노년기의 자산 기반 정책은 노년기 이전까지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국내에서 자산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산 활용 정책은 대표적으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들 수 있다. 이후 내용에서는 노년기 자산 기반 정책으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다루고자 한다.

〈표 6-4〉 노인 대상 자산 기반 정책 사례

구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 농업인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 - 대상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채무 관계자 자격: 채무 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구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급여 수준	- 최대 월 300만 원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됨	- 총대출한도 6억 원 - 최대 월 3,407천 원
지급 방식	- 종신행: 종신통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 기간형: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경영이양형	- 종신회지급 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대출상환 방식: 정액형 - 우대금리 방식: 정액형 - 확정기간 방식: 정액형
재원	- 농지관리기금(국고 100%)	-
전달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사업주관 부서) - 한국농어촌공사(연금 운영) - 농지관리기금(기금수탁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기관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자료: 농촌진흥청. (2021).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 가이드북. 농촌진흥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8.15.). 주택연금_지급방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에서 2023.9.5. 인출.

가.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23a).

지원 대상 요건은 크게 농지 소유자와 농지에 대한 요건으로 구분된다. 농지 소유자 본인은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담보가 되는 농지는 농지법상 공부상 지목인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실거주지와의 거리,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따라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농지은행·농지연금, 2023.9.5.).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 수준은 농지가격, 가입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한 방식에 의해 평가된다(임소영, 김수린, 2022). <표 6-5>와 같이 지급방식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에서는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이 있으며, 기간형에는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 있다. 또한 기간형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을 고려해 방식별로 가입연령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2.21.).

<표 6-5> 농지연금 지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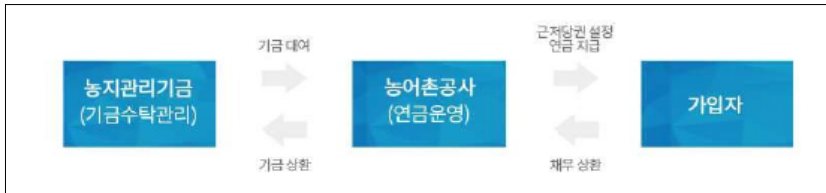
구분	지급 방식	가입연령
종신형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60세 이상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기간 : 5년/10년/15년/20년	- 5년: 78세 이상 - 10년: 73세 이상 - 15년: 68세 이상 - 20년: 63세 이상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60세 이상

자료: 농지은행·농지연금. (2023.9.5.). 농지연금 소개.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에서 2023.9.5. 인출.

농지연금의 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의 7에 근거하여 농지관리기금(국고(용자) 100%))에서 마련된다. 2023년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 내 228,237백만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23b).

농지연금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사업 소관은 농림축산부 담당하며, 주요 수행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심사·승인·계약 체결·연금 지급 등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농지관리기금은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제공한다(임소영, 김수린, 2022).

[그림 6-5] 농지연금 추진체계



자료: 임소영, 김수린. (2022).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6.

나.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지급금을 제공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법적 근거를 두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성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대상 요건은 주택 소유자와 담보 주택에 대한 요건으로 구분된다. 주택 소유자 기준은 ①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② 대한민국

국 국민이어야 하며, ③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채무관계자가 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한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3).²⁰⁾

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산정된다.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 받되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으며, 연금지급액과 함께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 45~50% 이내의 인출한도에서 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종신흘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종신흘의 경우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액형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20)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하다.

〈표 6-6〉 주택연금 지급 방식

구분	지급 유형	지급 방식	가입연령
종신형	종신형/ 종신흡합 방식	정액형	- 55세 이상
		초기 증액형	
		정기 증액형	
	대출 상환 방식	정액형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정액형	- 10년 : 65~74세 - 15년 : 60~74세 - 20년 : 55~68세 - 25년 : 55~63세 - 30년 : 55~57세
	정액형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8.15.). 주택연금_지급방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에서 2023.9.5. 인출.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방식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택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3.8.29.).

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산정된다.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총대출한도(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는 최대 6억 원이며, 월 연금지급액에 대한 예시는 <표 6-7>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만 72세, 일반주택, 종신형 연금으로 가정해본다면, 총대출한도는 6억 원이며, 주택 시세가 12억 원인 경우 3,407,00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3.10.6.).

<표 6-7>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단위: 천 원)

연령 \ 주택가격	3억 원	5억 원	7억 원	9억 원	12억 원
50세	453	756	1,058	1,360	1,814
60세	614	1,023	1,433	1,843	2,457
70세	901	1,503	2,104	2,705	3,315
80세	1,427	2,379	3,331	3,972	3,972
90세	2,654	4,424	5,985	5,985	5,985

주: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10.6.).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59573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에서 2023.10.7. 인출.

만 72세, 일반주택, 종신형 연금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총대출한도는 6억 원이며, 주택 시세가 12억 원인 경우 3,407,00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3.8.29.).

[그림 6-6]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전달체계는 한국주택공사(보증기관)와 금융기관(대출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연금을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진다(김성아 외,

202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공적 보증기관으로, 가입자의 신청에 대한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등을 담당한다(김성아 외, 2021). 각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 집행을 실행한다.

[그림 6-6] 주택연금 전달체계



자료: 최경진. (2021). 주택연금 개요 및 주요현안,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세미나 발표 자료. p.5.; 김성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3에서 재인용함.

이처럼 주택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연금지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되고,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공적 보증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보증채무이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 주택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공적 재원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 지출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은 정부 및 금융기관출연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부터 마련된다(김성아 외, 2021).

제3절 해외 사례

1. 미국

가.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는 소득·자산 기반 정책 유형 중 하나인 자산형성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여유진 외, 2017).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DA)는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저축액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Sharraden(1991)이 제안했고, 이후 1998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법(Asset for Independence Act, AFIA)이 제정되어 주정부가 민간단체의 개인발달계좌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었다(백웅기, 2013;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재인용).

개인발달계좌(IDA)의 자격 요건은 연방정부의 빈곤선 200% 이하, 지역의 중위소득 65~85%, 빈곤가정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 TANF) 수급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수급자 등 주정부별로 기준이 상이하다(최현수 외, 2017).

지원 내용은 가입자가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비영리 단체가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며,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기간(보통 5년) 동안 개인당 2,000달러, 가구당 4,000달러를 추가 매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유영성 외, 2021). 매칭 비율은 보통 1:1이나, 용도와 저축액, 프로그램의 재원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많게는 1:9의 매칭율

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최현수 외, 2017).

저축액과 지원금액의 용도는 주택 구입, 직업훈련, 교육, 창업, 은퇴자금으로 한정되며, 저축의 용도는 프로그램 참여 시 결정하며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최소 기준의 금융 지식 교육과 용도에 따른 자산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UHH, 2023).

재원은 주정부 예산, Tax Credit, TANF 예산, 민간재원 활용 등 공공과 민간기금에 의해 마련된다. 또한 프로그램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지원 내용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최현수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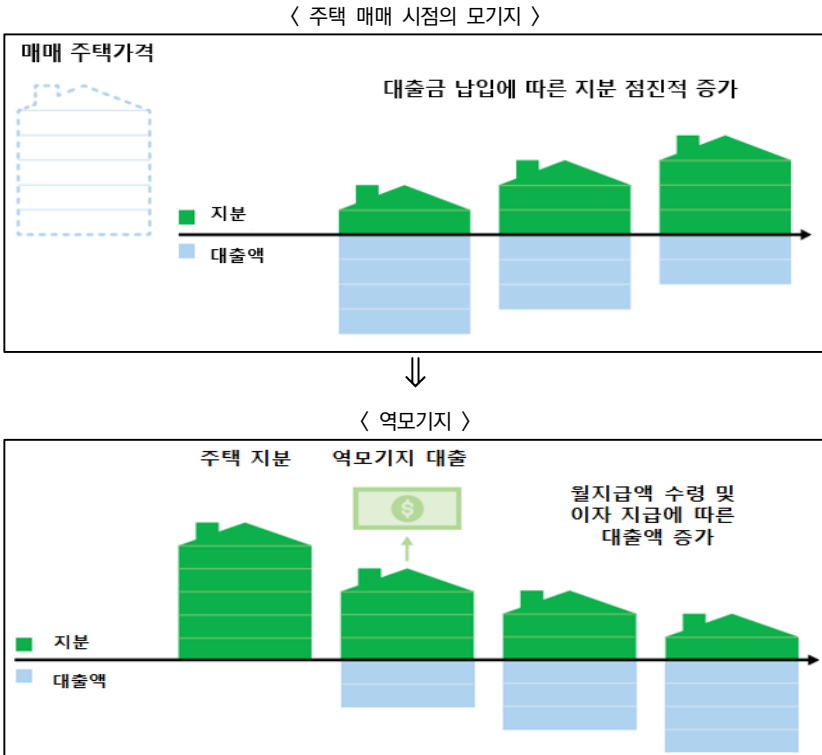
나.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역모기지 제도이며, 한국과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모델이다(전병목, 2021).

HECM은 국민주택법 225조(National Housing Act, Section 255, Insurance of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for elderly homeowners)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또한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산하의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s, FHA)이 보장하는 역모기지 제도이며, 주택담보대출로서 모기지과 연동하여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월별 수입 또는 신용 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동되었다(HUD, 2016). 주택 매매 시점에는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납입하면서 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모기지 대출을 완납한 후 자산 유동화가 필요한 시점에 역모기지 대출을

이용해 주택 가치를 월지급액으로 수령하면서 대출액의 비중이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CFPB, 2021).

[그림 6-7] 미국 모기지과 역모기지(HECM)



자료: CFPB, (2021). Reverse mortgages: A discussion guid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pp.2-3의 그림을 연구진이 번역

가입 대상은 62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며 소유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소득과 신용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연방 부채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공인 HECM 상담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상담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단독주택, 2~4

세대의 공동 주택 중 1세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HUD가 승인한 콘도 미니엄 프로젝트의 콘도, 단일 유닛 승인(SUA) 자격을 갖춘 콘도, 모듈러 주택, FHA 요건을 충족하는 조립식 주택 등에 해당해야 한다(BENEFITS.GOV, 2023).

대출 내용을 보면, 대출 집행은 FHA가 승인하는 대출기관에서만 지급된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Principal Limit)은 “가입시점의 주택 평가 가격*PLF(Principal Limit Factor, 가입자 중의 연소자 나이와 예상 미래 이자율을 기반으로 산출)”을 통해 산출된다(강영신, 변병도, 김찬효, 최경진, 2022.12.). 따라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가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높으며, 이자율이 낮을수록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한도가 높아 진다(CFPB, 2021.8.).

HECM의 경우 초기 비용으로 대출 수수료, 부동산 매매 체결 관련 비용, FHA에 지불하는 초기 모기지 보험료 등이 있다. 초기 비용은 자비 또는 대출금 안에서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지급 기간 동안 이자와 모기지 보험료,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매달 부과되며 대출금의 잔액에서 지불된다(CFPB, 2021.8.). 대출 금리는 민간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제공되며, 고정금리와 Libor와 국채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REBECCA LAKE, 2022.8.31.)

대출금의 지급방식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행과 기간형, 신용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수시인출형이 있으며, 수시인출형과 혼합하여 종신희합형(종신티지급 + 수시인출), 확정기간혼합형(확정지급 + 수시인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방식은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일시인출형이 있다(Amy Fontinelle, 2022.5.19.).

2. 일본

가.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정식 명칭은 소액투자비과세제도(少額投資非課税制度)이며, 영국의 개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참고하여 도입되었다(日本証券業協會, 2019).

일본에서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NISA를 실시했다(천창민, 2014). 주요 내용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NISA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양도차익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金融庁, 2023)

종류로는 ‘일반 NISA’와 ‘츠미타테 NISA(つみたてNISA)’가 있으며, 미성년자가 대상인 ‘주니어 NISA’가 있다. 2020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제도의 연장과 개정이 결정되어, 일반 NISA와 츠미타테 NISA는 지원 내용을 확충하여 새로운 제도로 개정될 예정이며, 주니어 NISA는 2023년 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²¹⁾

현행 제도의 일반 NISA와 츠미타테 NISA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6-8>과 같다.²²⁾

21) 제도 개정으로 새로운 NISA에서는 츠미타테NISA와 같은 기능인 ‘츠미타테 투자 테두리’와 일반 NISA와 같은 ‘성장 투자 테두리’가 실시되며, 동시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투자한도가 증가하고 계좌의 개설 가능 기간 및 운용 기간, 비과세 혜택 기간도 무기한으로 개정될 예정이다(風呂内亜, 2023.7).

22) 金融庁. (2023). NISAとは?. Retrieved from <https://www.fsa.go.jp/policy/nisa/2/about/index.html> 2023.10.1. 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표 6-8〉 NISA 종류별 특징

구분	일반 NISA	츠미타테 NISA(つみたてNISA)
가입 대상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
투자 대상 상품	상장주식, ETF, 공모주식투자신탁, REIT 등	장기의 적립·분산 투자에 적합한 요건을 가진 주식투자신탁이나 ETF
비과세 대상	주식, 투자 신탁 등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배당·수익금	일정한 투자신탁에 투자한 분배금 및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한도	연간 120만 엔 (5년간 최대 600만 엔)	연간 40만 엔 (20년간 최대 800만 엔)
비과세 기간	최장 5년	최장 20년
중도매도	제한 없음(다만, 매도 부분의 한도는 재이용 불가)	제한 없음(다만, 매도 부분의 한도는 재이용 불가)
계좌 개설 수	1인 1계좌	1인 1계좌

주: 2024년에 이 제도가 개정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가입 및 계좌 운용이 가능하며, 2023년까지 투자한 상품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일반 NISA는 2014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이다. 일반 NISA는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NISA 계좌가 복수가 되는 경우 한 개의 NISA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 대상 상품은 주식투자신탁, 국내·해외상장주식, 국내·해외 ETF, ETN(상장투자증권), 국내·해외 REIT, 신주예약권부사채(워런트채) 등이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배당금, 분배금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 한도는 연간 120만 엔, 5년간 최대 600만 엔까지이며, 비과세 기간은 투자 상품을 구입한 해로부터 최대 5년까지이다.

츠미타테 NISA는 장기·적립·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일반 NISA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이며,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츠미타테 NISA는 소액 투자로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투

자 대상 상품은 장기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투자신탁이나 ETF 등에 한하며, 연간 40만 엔, 20년간 최대 800만 엔 까지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NISA와 츠미타테 NISA는 동시 병행할 수 없다. 다만, 연 단위 선택제로 만약 일반 NISA를 츠미타테 NISA로 변경하거나, 이와 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나. 후생노동성의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는 1981년 도쿄 무사시노시가 도입한 복지자금 대출제도를 시작으로, 도쿄 세타가야구, 고베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 및 실시되고 있다.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2003년 후생노동성에서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의 일종인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을 실시하고 있다(小島俊郎, 2018).

무사시노 방식은 일본 최초의 역모기지 제도로 도쿄도 무사시노 재단법인 무사시노시복지공사(武蔵野市福祉公社)에 의해 1981년에 실시되었다(谷口聡, 2009).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 방식은 공사가 직접 용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일반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되었다(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

세타가야 방식은 1990년 세타가야구의 세타가야마만남공사(世田谷ふれあい公社)에서 도입한 제도로, 직접 용자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는 간접방식의 제도이다(谷口聡, 2009). 다시 말해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하며 이용원금은 금융기관에서 제공

하고 복지공사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전성주 외, 2015).

후생노동성에서 2002년부터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대출제도인 장기 생활지원자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에는 요보호세대 대상 장기 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小島俊郎, 2020). 이후 두 제도는 2009년에 세이프티 넷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복지자금대출, 이직자 지원 자금 등 관련 제도와 함께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로 통합 및 재편되었다(厚生労働省, 2011.11.12.).

후생노동성의 역모기지인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이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도부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자금의 대출과 필요한 상담이나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소관부처는 후생노동성이나, 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를 수행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3).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의 자금 종류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며, 종합 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과 ‘요보호 세대용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으로 나뉜다(厚生労働省, 2023).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²³⁾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의 고령자가구가 대상인데 일정한 거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대상은 자기 소유 또는 부부 공동소유의 부동산

23)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은 아래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및 작성함.
京都府社会福祉協議会. (2023). 不動産担保型資金貸付. Retrieved from <https://www.kyoshakyo.or.jp/minsei/fudousantanpokashitsuke/> 2023.10.1.

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세대이다. 고령자 세대 요건은 세대원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만 거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또한 신청 세대는 생활보호 수급가구가 아니며, 시정촌 민세 비과세 정도의 저소득 세대이며, 현주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담보가 되는 부동산은 임차권 등의 이용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1,500만 엔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대출한도는 담보가 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70%이며, 대출 월액은 신청가구의 생활보호 기준의 1.8배 이내로 최대 월 30만 엔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3개월마다 교부되며, 대출금 이자는 연 3% 또는 매년 4월 1일 시점의 장기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중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 계약 시, 부동산 담보에 대해 2종류(근저당권, 대물변제 예약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물적 담보권 설정을 받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대출 기간은 대출원리금이 대출한도액에 도달할 때까지이다. 대출한도액에 도달하면 대출이 정지되며, 정지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부동산에서 생활할 수 있다. 대출 종료는 통상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종료되며,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상속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 원리금을 일괄 상환해야 한다.

요보호 세대용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²⁴⁾은 요보호의 고령자 세대에 대해, 일정한 거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제도이다. 대출 대상에 대한 기준은 65세 고령자 세대이며, 본 제도를 이용하지

24) 요보호 대상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은 아래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및 작성함.

社会福祉法人 愛知県社会福祉協議会. (2017.3.). 貸付制度のご案内. https://www.aichi-fukushi.or.jp/intoro/minsei/pdf/fudousan_tanpo_hogo_0512.pdf

않으며 생활보호의 수급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로 복지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가구이다. 부동산은 단독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권과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담보가 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약 5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대출한도는 부동산 평가액의 70%(공동주택의 경우 평가액의 50%)이며, 월 대출액은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부조 기준액의 1.5배 이내로 복지사무소가 산정한 금액이다. 대출기간과 대출 종료, 대출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대출 계약 시 연대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다.

제4절 소결

현행 자산 기반 복지는 크게 자산 형성 제도와 자산 활용 제도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청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현행 자산 기반 복지 제도와 미국과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업이나 주거지원 사업 등이 있지만(표 6-1) 참조), 자산평가액을 축적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과는 구별될 수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최종 저축 잔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발달계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산 활용 제도는 주로 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모기지)에 대응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이다. 이 장에서 검토한 미국, 일본, 국내의 역모기지 사례 모두 공적 기관이 보증하고 민간 금

용기관의 금융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 가입을 위해 소득 수준이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거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우대 조건을 이용하는 등 현행 자산 기반 복지 사업에서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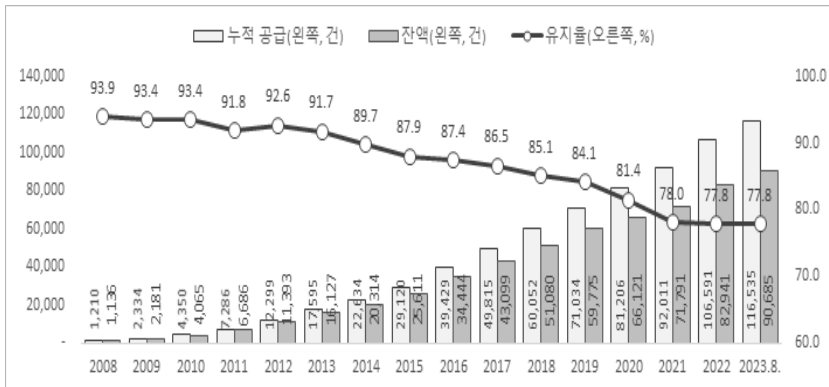
국내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을 종합하면,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사업이 다수 확인된다. 발달계좌의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생애 시기에 낮은 소득 수준과 이직 등 불안정성을 내재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가입기간 동안 목돈을 운용할 수 없는 부자유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성아 외, 2023a, 최재현, 2023.6.21.).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산 형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연령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있지만, 후기 중장년기 및 초기 노년기에 최고 자산액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따라(그림 3-1) 참조),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생애 과업에 특화된 사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9) 참조). 현세대 중년은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을 지면서 소득, 자산, 공적이전의 불리함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그림 4-9), [그림 4-12], [그림 4-15] 참조). 중장년은 소득과 자산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미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중장년의 생애 과업에 특화된 자산 형성 사업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퇴한 이후 근로소득이 급감하는 노년기에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자산 활용 사업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다. 일정 평가액 이하의 자가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경우 각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그림 6-8]을 보면, 매년 신규 가입 건수가 발생하여 누적 신규 공급 건수는 2023년 8월 기준 11만 6천 건을 초과하였고,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잔액 건수는 9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고령자는 소득이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아 주택연금 등을 통해 자산을 소득원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빈곤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면(표 3-10) 참조), 자산 활용 제도의 가입자 수는 미미하다. 더욱이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을 유지하는 비율도 제도 도입 초기 9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해 최근 7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림 6-8] 주택연금 가입 유지 현황



주: 유지율은 누적 공급 건수 대비 잔액 건수의 비율로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2023a).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 에서 2023.10.10. 인출;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2023b).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잔액현황.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4773126728137.do> 에서 2023.10.10. 인출.

소결하면,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사업에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이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생애 과정에 특화된 지원 사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금융에 대한 언어로 표현된 개별 사업 설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업에 접근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다. 소관부처 또한 상이하여 각 사업을 특정해 문의하는 것 또한 수요자의 과업이다. 개별 사업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의 충분성이나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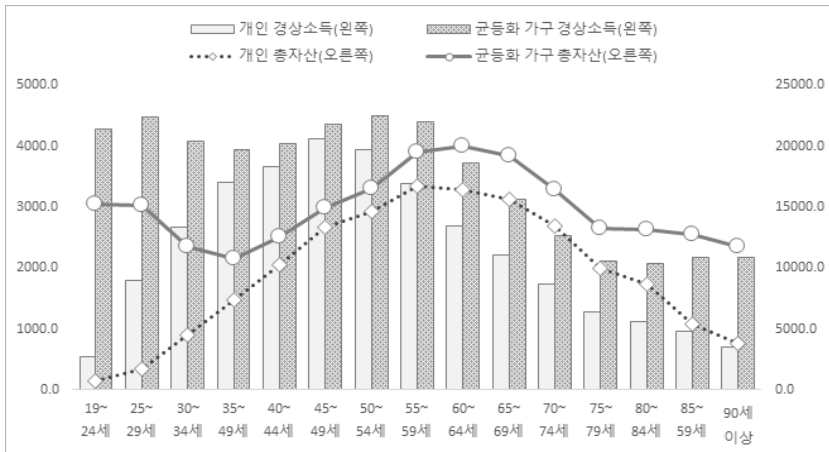
이 연구는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적 관련성에 대한 생애 관점의 이론적 의의와 함께 생애 관점 소득·자산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 한국의 최근 횡단면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와 함께, 주요 코호트, 그리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입체적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각 분석 내용은 장별로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국내외 자산 기반 복지 사업을 생애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정책 공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득을 활용해 지출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생애 궤적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즉, 한 사람이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자산 형성하는 양상([그림 7-1] 참조)은 생애주기 가설([그림 2-1] 참조)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가설에 따라 지출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면서, 생애주기에서 총자산의 최고 시점은 총소득의 최고 시점보다 다소 지연된 때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주요국

에서 모두 공통되게 드러난다([그림 7-2] 참조). 결국, 한 사람의 삶에서 소득과 자산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그림 3-2], [그림 5-6] 참조) 있고, 생애주기에서 소득과 자산은 연령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인적 자본 축적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소득과 자산 간 이동성이 경직적이지도 않다([그림 3-3], [그림 5-7] 참조).

[그림 7-1] 개인 및 가구 단위 생애 관점 소득과 자산 분포

(단위: 만 원/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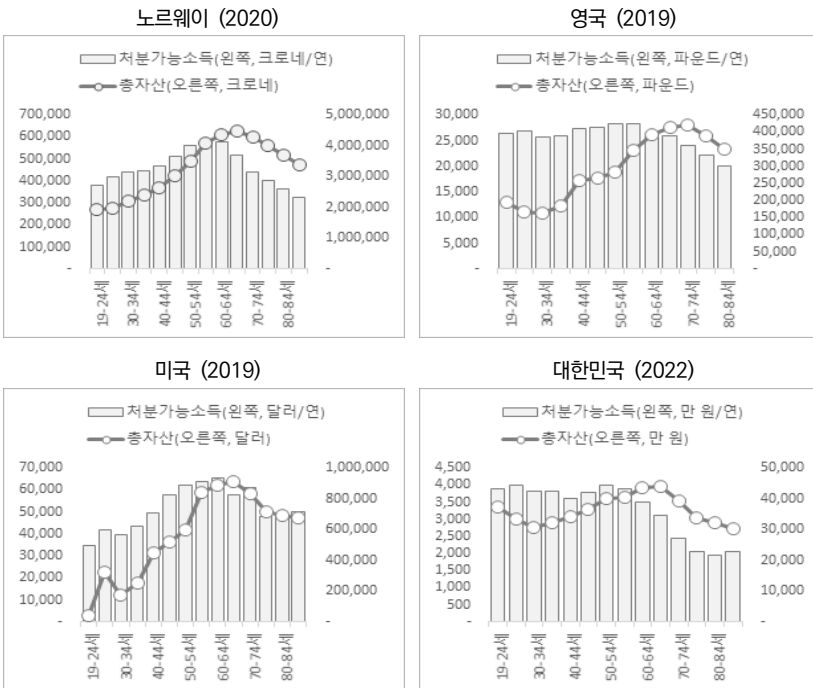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3-1]과 [부그림 1-2]를 조합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그림 7-2]를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조합해 자산을 형성하는 양상은 개별 국가의 정책적 여건이나 관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르웨이나 영국,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그림 5-3] 참조). 임대차계약에 따라 돌려받는 거

주주택의 전월세보증금이 금융자산의 구성요소로 처리되는데, 한국의 연령집단별 전월세보증금의 구성비가 국제비교 관점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 ([부그림 3-1] 참조). 그렇다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려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부응하지 않아 보인다. 비교하는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총자산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5-3] 참조).

[그림 7-2] 주요국의 생애 관점 균등화 가구 소득과 자산 분포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였음.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5-4]를 재배열한 것임.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소결하면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는 연령 효과가 존재한다, 즉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에 일련의 생애 궤적이 유효하다. 오히려 동일 연령대에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소득과 자산을 누리는 수준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전 출생코호트, 즉 현세대 노인이나 중장년에 비해 현세대 중장년이나 청년들이 동일 생애주기에 누리는 경제력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에 반하는 발견이다.

둘째, 경제력, 즉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계층, 혹은 세대 내 격차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면 이렇하다. 우선 현세대 청년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숙련을 쌓으면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구 단위 분석을 보면 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공유하면서 실제 경제적 생활 수준은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그림 7-1], [그림 7-2] 참조).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빈곤 분포에서 후기 청년부터 초기 중장년 집단 중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높지 않지만(〈표 3-10〉 참조),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표 5-6〉 참조) 또한 이 세대에서 부모의 자산을 공유하는 실태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의 소득 빈곤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에서와 같이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 자산 빈곤율은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소 높다(〈표 5-6〉 참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부모 세대의 조력으로 생애주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는 것일 수 있다.

생애주기에서 청년기는 소득과 자산을 운용하는 재무관리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전 생애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 수준을 누리리라고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세대 청년 중에서도 과중채무나 다중채무, 불법사금융 등 채무의 질, 연체 등 다차원적인 금융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김성아 외, 2023a).

중장년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이다. 이들은 소득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그림 3-1), [그림 5-4]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세대 중장년, 특히 1960년대 출생코호트는 가구 단위 경상소득은 급감하는데 개인노동소득은 높다([그림 4-9], [그림 4-10] 참조). 노후를 앞둔 중장년들은 부모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온 세대이다.

그런데 정작 현세대 중장년들은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4-17], [그림 4-18], [그림 4-19] 참조).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소득이 감소할 것인데, 노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30대 중반부터 50대 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그림 4-9] 참조), 50대 이상 중장년의 노후 준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현세대 노인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에서 모두 취약하다(〈표 3-10〉 참조). 중장년 이후에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경향과는 상이한 것이다(〈표 5-6〉 참조).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소득과 빈곤 간 결합 빈곤 양상은 현세대 노인의 코호트 효과가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11] 참조). 그러므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다.

비교 대상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노인은 생애에 걸쳐 축적해 온 자산 수준이 중고령기의 최고점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영위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 수준은 독립하기 시작하는 청년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여전히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그림 7-2〕 참조). 그럼에도 현세대 빈곤한 노인 중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규모가 존재한다(〈표 3-10〉 참조).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자산 활용 제도, 즉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이다. 자산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김성아 외, 2021), 현세대 노인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유효한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활용해 생활을 영위하고 자산을 형성,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애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지만, 기존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정책과의 정합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탐색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고 있는 청년기를 위한 현재의 자산 형성 정책은 소득 유동성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의 생애 과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등 자산 활용 제도는 현세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 정책 수요와 공급 간 정합성을 고려하면 청년과 중장년, 노인의 생애 궤적과는 다소 상이해 보인다. 결국, 생애 관점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다차원을 고려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함의

1.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생애 관점 적용

기존의 자산 기반 복지는 자산 형성과 활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공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생애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간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양상을 생애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런 보통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 기반 복지의 범위를 소득과 자산의 중첩성과 생애 전반의 소득 유동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제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경제적 유동성 확보를 첫 번째 지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후 입직하는 청년은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을 스스로 감당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점차 자산을 형성해가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형성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과도한 부채로 미래의 삶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년은 숙련이 쌓이면서 생애에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주주택 등 자산을 완비해간다.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해 가구를 통해 은퇴한 부모 세대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녀 세대를 부양한다. 동시에 은퇴 이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과업까지 지고 있다. 노후 준비는 연금 등 공사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고(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13-15) 자녀 부양 부담이

연장될수록 정작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담보하기 어렵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완속하지 않은 후기 노인은 자녀 세대로부터의 사적 이전으로 부양받거나 불충분한 공적이전소득 혹은 여전히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1999년 국민연금의 전국민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20년 정도가 흐른 최근에 노인 연령대에 진입한 현대대 전기 노인은 공적 연금제도를 이용하며 여전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상당 부분 후기 노인의 코호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빈곤하지만 집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표 1-1〉 참조),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 자산을 소득으로 이동화하기도 쉽지 않다(김도균, 유보배, 2017, p. ii).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는 소득과 자산을 연동하여 생애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기에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해 중장년기에 고점을 보이고 은퇴 이후 감소하는 일련의 생애 궤적과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또 다른 생애 궤적을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부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표적집단(targeted group)으로 설정하여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국 국가퇴직연금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에서 운영하는 사이드카 세이빙스(Sidecar Savings)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비상금저축계좌로서, 근로자는 자동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이외 위기 상황에서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추가하도록 하여,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게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위기 자금으로서 사이드카 세이빙스는 위기 상황에서 인출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Prabhakar, 2021, pp.5-7).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자영업자, 기경제 종사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Prabhakar, 2021, p.9).

무엇보다 소득을 활용한 자산 형성과 활용에 선제되어야 할 것은 저비용 사회로의 전환이다. 특히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는 가격 합리화와 공유 자원 확대와 같은 비용 부담 절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절감하고, 고등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최수의 딜레마 상황을 풀어낼 방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Nowak & Highfield, 2012).

2. 세대 내 소득·자산 격차 완화

가. 소득을 이용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재무관리 역량 제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입직 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자신의 생애에서 점차 숙련을 쌓으면서 소득 수준이 점증한다. 생애주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 불충분한 자산의 취약성은 원가족, 특히 부모 세대로부터 경제적 조력으로 상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적 제도로서 다양한 대상자를 표적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유동성을 해치지 않으며 생애 과업을 중심으로 대상자 포괄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납입액에 지원금을 매칭하는 자산형성 제도는 완납한다면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의 소득 유

동성을 제약하여 실질적인 제도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경제활동 등의 생애 과업이 지연된 청년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활용 프로그램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생애 과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는 저소득층은 영국 사이드카 세이빙스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등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기보다 가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녀의 경제력이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중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물림되는 부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고 오히려 빛과 함께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77-137). 자신의 능력보다 과증하거나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빛은 청년으로 하여금 채무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융 취약 청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상환 능력보다 과중한 수준의 부채를 지는 과증채무라거나 부채의 건수가 많은 다중채무는 재무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무지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연체 기록을 누적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김성아 외, 2023a).

나. 낡은 세대로서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

현세대 중장년은 자녀 독립 지원과 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을 지면서 자신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위험은 높은 편이다.²⁵⁾ 자녀 세대, 즉 현세대 청년이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이 지연되면서(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13-15),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집이라도 해주려는 부모 세대인 중장년이 소득 활동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게다가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정년은 정해져 있고,²⁶⁾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공적연금을 개시할 연령은 늦춰지고 있다.²⁷⁾ 은퇴 이후 삶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의 노후 준비는 발등에 떨어지려는 불과 같다.

2015년 12월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30대 이상 성인 중 92.6%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황남희 외, 2020, p.176), 실제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에 불과하다(ibid, pp.188-189). 지원 체계와 사업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25)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가 2,25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국민연금공단, 2023.8.7.), 자료의 이용 가능성 제약으로 인해 공사적 연금이나 위기상황 및 노후를 염두에 둔 사적 보험은 이 연구의 자산 범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2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7)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0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 개정 시행된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에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현세대 중장년의 삶의 질 제고 및 미래 노인의 빈곤 예방의 맥락에서 중장년의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적 노후준비 지원에 의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 노후 준비가 중고령자의 필수적인 과업이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영국 비상금저축계좌인 사이드카 세이빙스(Sidecar Savings)의 사례를 보면,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가 은퇴 이후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rabhakar, 2021, pp.13-14). 또한 자녀 세대인 청년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부모 세대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중장년의 이중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 현세대 노인 코호트의 빈곤 완화

현세대 노인 코호트의 빈곤을 완화를 위한 적극적 소득보장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OECD, 2023),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노후 소득보장을 통해 완화해 왔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전기 노인의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지만,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여전히 50%를 넘는 수준이다(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b, pp.19-22).

노인 빈곤율, 특히 후기 노인 코호트의 빈곤율 완화는 소득보장정책 분야에서 아직 남아 있는 과업이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최대 32만 원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23b, p.117). 최대액을 받더라도 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0% 수준으로 가정하는 빈곤선인 여전히 132만 원²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적 이전

이나 여전히 노동소득에 의존하거나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후기 노인 코호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르웨이와 영국, 미국에서는 생애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노년기에는 소득도, 자산도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표 5-6〉 참고), 한국에는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비빈곤한 노인 집단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1〉, 〈표 3-10〉 참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정책 기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만, 특히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산을 이용하는 데에 자녀 세대와의 관계가 작동할 수 있지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을 자신의 생애 동안 모두 소비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의 원칙을 상기한다면 주택 등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정책의 점진적 확대는 바람직한 변화일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 등 자산 활용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일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보다 오늘의 이득에 더 예민하다고 가정하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역모기지는 모기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CFPB, 2021, pp.2-3), 영국의 사이드카 세이빙스는 퇴직연금에 연동할 수 있다(Prabhakar, 2021, p.8).

또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에서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기본재산액 기준을 적

28)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3,174만 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후 50%로 계산함(통계청, 2022.12.1.).

용하고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대상으로 기본재산액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 시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세대의 자산, 특히 거주주택을 다루는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전 생애 소득·자산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체계 구조화

소득과 자산의 중첩적 취약성에 대응하고 소득 유동성을 확보하여 전 생애 재무 건전성을 지원하는 소득·자산 기반 복지 정책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자산 기반 복지는 주로 청년기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년기 자산 활용 제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결합하는 경제적 삶은 전 생애에 걸쳐 있다.

우선, 청년 및 중장년은 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형성하고 완비해가는 일련의 궤적을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산으로서 효용성이 있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주택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자산을 형성하는데에 유용한 금융정책은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산으로서 거주주택 평가액의 변동폭이 불안정하면 주택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대되는, 그래서 주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청년기에는 거주지역을 이동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20-24), 거주주택 매입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제약 조건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 등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접근

성을 강화하고 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 보유 의지를 대체할 수 있고 노인 빈곤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Dewilde & Raeymaeckers, 2008), 향후 주택연금과의 연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김성아 외, 2021, p.135).

또한 노년기에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자산 활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역모기지(주택연금)를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연계하고 있고, 영국국가퇴직연금신탁(NEST)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 사이드카 세이빙스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대출액을 완납한 이후 노년기에는 주택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일련의 궤적이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가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김성아 외, 2021, p.131).

아동·청소년, 혹은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무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재무 관리 교육은 경제적 웰빙이 뒷받침되는 삶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리고 독립된 결정을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기에는 늦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서 재무 관리 역량 강화를 필수 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애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기반으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소득·자산분배지표로 확대하고, 연금 자산 및 장기저축을 포함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자산조사(LWS)에서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 범위에서 일부 국가의 자산 구성요소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외에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그림 5-1] 참조)을 고려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연금자산 및 장기저축 변수는 생명보험(life insurance), 개인연금(individual voluntary pension accounts), 직역연금 혹은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s), 공적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의 미래 수령예정액이 아닌 현재 기여분을 포함한다. 아직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유효값이 비어 있는 사례가 많지만(〈표 5-3〉 참조), 기존의 자산 범위를 확장한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 통계청에서 「연금통계(2016~2021)」를 개발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자산지표 생산자료에 포함할 가능성을 타진할 때이다.

[그림 7-3] 연금통계(2016~2021) 작성 구조



자료: 통계청. (2023.10.26.).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list_no=427645&act=view&mainXml=Y에서 2023.11.24.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소득과 자산 결합 양상을 생애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횡단면 분석과 패널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효과 분석, 그리고 국제비교를 통해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전 생애 소득·자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한계에 대응하는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분석의 수준이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실질적인 행태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소득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산을 형성, 활용하는 일련의 생애 궤적이 실현되는 선택과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 과정은 개인 단위에서 가구, 사회로 확장되지만 데이터 이용 가능성 제약으로 인해 일부 실증분석은 가구 단위의 정보를 균등화하는 등 분석과 실제 간 간극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소득 및 자산 관련 정책에서 개별 가구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개인 단위의 실증분석이 풍부해져야 한다.

셋째, 코호트 효과 분석을 위해 16년 정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진 패널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장기 시계열의 현상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국복지패널 등 향후 패널자료의 시계열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대 간 혹은 세대 내 소득과 자산의 결합 양상에 대한 종단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구 단위 조사자료를 주된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국민계정 등 거시 데이터에 의한 결과와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시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해 분석을 반복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자산 기반 복지 정책으로 분류되는 사업군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제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지만 정책 방향과 향후 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모색하는 데에 그친다. 향후 충분한 기초자료를 축적해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1. 국내 문헌

- 강영신, 변병도, 김찬효, 최경진. (2022.12.). 국내·외 주택연금 관련 사례 및 시사점. 부산: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원.
- 국방부. (2023a).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국방부
- 김도균, 유보배. (2017). 주택연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 김도균. (n.d., 2020).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e-book 버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민정.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및 자산 결합분포 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4), 225-248. doi:10.15790/cope.2016.12.4.225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 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김성아, 김문길, 나원희, 강예은, 한영섭. (2023a).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b).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2021).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409, 1-15.
- 김수정. (2018). 1990년대 이후 코호트 간 소득 격차와 빈곤위험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69-102.
- 김수현. (2013).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 논의와 시사점 - 자산기반 복지 논의를

- 중심으로 -. 주택연구, 21(2), 93-118.
- 김수현. (2022).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택의 금융화' 논의,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
할까?. 주택연구, 30(2), 161-195.
- 김용창. (2013).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공간과 사회, 23(2), 5-39.
- 김진영. (2017).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예산정책연
구, 6(1), 68-95. doi:10.35525/nabo.2017.6.1.003
- 농촌진흥청. (2021).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 가이드북. 전주: 농촌진흥청
- 문병효. (2009).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
한 비판. 민주법학, 39, 237-279.
- 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 백가현, 홍백의. (2015).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연령, 소득
집단별 영향력 분석. 사회보장연구, 31(3), 93-117.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자활사업 안내(II)-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성명재. (2011).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세종: 한국
조세연구원.
- 신광영. (2014). 세대, 생애과정과 계급 불평등. 신광영, 강은애, 김경희, 남정민,
신진욱, 우명숙, ... , 이병훈(편저).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신진욱, 이민아. (2014).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
향: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경제와사회,
101, 151-183.
- 신진욱, 이은지. (2012).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국제 비
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경제와사회, 218-253.
- 신진욱. (2020). 세대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386' 담론의 구조와

-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1990~ 2019년. 경제와사회, 407-442.
-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강원: 도서출판 개마고원.
- 여유진, 김미곤, 김수정, 박종현, 백승호, 이상호, ..., 조한나. (2017).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 이병훈, 남정민. (2014).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만족에 대한 시계열분석. 신광영, 강은애, 김경희, 남정민, 신진욱, 우명숙, ... , 이병훈(편저).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철승, 정준호, 전병유. (2020). 세대·계급·위계 II: 기업 내 베이비 부머/386 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한국사회학, 54(2), 1-58.
- 이철승, 정준호. (2018).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1990~ 2016. 동향과 전망, 104, 316-373.
- 이철승. (2019).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1-48.
- 임소영, 김수린. (2022).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병목. (2021).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병유, 정준호. (2014). 소득 자산의 다중격차. 경제발전연구, 20(1), 105-134.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서울: 보험연구원.
-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21). 임금과 일자리 기회의 코호트 간 차이에 관한

- 연구. 동향과 전망, 112, 334-374.
- 정준호, 전병유. (2020). 사회복지지출이 가구의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연구, 36(2), 69-91.
- 정준호. (2018). 지역 차원의 소득과 자산 간 결합 분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52(2), 159-176.
- 정준호. (2022).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의 원인과 효과. 경제와사회. 70-117.
- 중소벤처기업부. (2023).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II - 유관기관편. 세종: 중소기업부.
- 천창민. (2014). 일본판 개인저축계좌(ISA) 제도와 현황. KCMJ, 6(3), 1-32.
- 최경진. (2021). 주택연금 개요 및 주요현안,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세미나 발표 자료
- 최승문. (2022). 민간자산 중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의 비중 추정. 경제발전연구, 28(3), 71-96.
- 최현수, 오미애, 서광국, 한창근, 김예슬, 전지수. (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설계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 (2022).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호). 서울: 한국은행.
- 황남희, 김경래, 박은자, 주보혜, 임정미, 김혜수, ... , 이금룡. (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해외 문헌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http://www.jstor.org/stable/1817129>
- Balestra, & Oehler. (2023). Measuring the Joint Distribution of hh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11. Paris: OECD Publishing.
- Benites-Gambirazio, E., & Bonneval, L. (2022). Housing as asset-based welfare. The case of France. *Housing Studies*, 1-15.
- 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pplied Services.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 Blanden, J., & Machin, S. (2010). Education and Inequality. In P. Peterson, E. Baker, & B. McGaw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Third Edition)*(pp.272-281). Oxford: Elsevier
- Brandolini, A., Magri, S., & Smeeding, T. M. (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267-284.
- Bryant, G., Spies-Butcher, B., & Stebbing, A. (2022). Comparing asset-based welfare capitalism: wealth inequality, housing finance and household risk. *Housing Studies*, 1-22.
- Buchman & Kriesi, 2011
- Buchmann, M., & Kriesi, I. (2011).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Burton-Jeangros, C., Cullati, S., Sacker, A., & Blane, D. (2015).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health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Berlin: Springer.
- CFPB. (2021). *Reverse mortgages: A discussion guide*. Washington, D.C: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hauvel, L., & Hamilton, P. (2013). Specificity and consistency of cohort effects: The APCD model applied to generational inequalities, France-United States, 1985-2010.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54(4), 665-705.
- Chauvel, L., Bar Haim, E., Hartung, A., & Murphy, E. (2021). Rewealthization in twenty-first century Western countries: the defining trend of the socioeconomic squeeze of the middle class.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8(1), 1-17.
- Chauvel, L., Bar-Haim, E., Hartung, A., & Van Kerm, P. (2018). Increasing Inequality in Joint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5 to 2013. In LIS Conference Online Programme & Papers.
- De Decker, P., & Dewilde, C. (2010). Home-ownership and asset-based welfare: the case of Belgium.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 243-262.
- Delfani, N., De Deken, J., & Dewilde, C. (2014). Home-ownership and pensions: Negative correlation, but no trade-off. *Housing Studies*, 29(5), 657-676.
- Dewilde, C., & Raeymaeckers, P. (2008). The trade-off between home-ownership and pension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old-age poverty. *Ageing & Society*, 28(6), 805-830. doi:10.1017/S0144686X08007277

- Dewilde, C., & Ronald, R. (Eds.). (2017). *Housing wealth and welfar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Doling, J., & Ronald, R. (2010). Home ownership and asset-based welfar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 165-173.
- Gilbert, N., & Terrell, P. (201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8 ed.). New Jersey: Pearson Higher Ed.
- Kuhn, M., Schularick, M., & Steins, U. I. (2020).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1949–201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9), 3469-3519.
- Kuypers, S., Figari, F., & Varbist, G.. (2021). Redistribution from a joint income-wealth perspect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57. Paris: OECD Publishing.
- Lowe, S. G., Searle, B. A., & Smith, S. J. (2012). From housing wealth to mortgage debt: the emergence of Britain's asset-shaped welfare state. *Social Policy and Society*, 11(1), 105-116.
- Mannheim, K. (n.d., 2021). 세대 문제 [e-book 버전]. (이남석 역). 서울: 책 세상. (원서 1952년 출판)
- Mosciaro, M., & Aalbers, M. B. (2020). Asset-based welfare in Brazil. *Housing Studies*, 35(2), 376-389.
- Nowak, A. M., & R. Highfield. (2012).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협력의 법칙(허준석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원서 2011년 출판).
- Prabhakar, R. (2021). *Sidecar Savings*. London: Househod Commons Library.
- Rist, C. (2022). Wealth and health exploring asset poverty as a key measure of financial security. *North Carolina medical journal*, 83(1), 11-16.
- Shammas, C. (1993). A new look at long-term trends in wealth

-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8(2), 412-431.
- Shorrocks, A. F. (1978).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46(5), 1013-1024.
- UN. (2011).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nd edition)*. New York: United Nations.
- Wallace, A. (2017). Financial resilience and security: the impacts of the housing market downturn on low-income home owners in Northern Ireland. In Dewilde, C., & Ronald, R. (Eds.), *Housing wealth and welfar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Wood, G. A., Ong, R., & Haffner, M. E. (2022). Housing wealth and aged care: Asset-based welfare in practice in three OECD countries. *Housing Studies*, 37(4), 511-536.
- Yang, Y., & Land, K. C. (2013).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Oxfordshire: Taylor & Francis.
- Yang, Y., Fu, W. J., & Land, K. C. (2004).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Age-Period-Cohort Models: The Intrinsic Estimator and Conventional Generalized Linear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34, 75-110.
- 谷口聡. (2009). わが国におけるリバースモーゲージの展開. *産業研究*, 45(1), 30-40.
- 小島 俊郎. (2018). リバースモーゲージの今日 (特集 住宅金融最前線). *住宅*, 67(3), 54-61.
- 小島俊郎. (2020). *リバースモーゲージに関する調査研究: 我が国の普及に向けて*. 公益財団法人アーバンハウジング
- 日本証券業協会. (2019). *NISA概論: 少額投資非課税制度*. 東洋経済新報社.
- 風呂内垂矢 (2023.7.). *誰でも簡単新NISAはじめてガイド: 2024年スタートの新*

制度がまるわかり!。メディアソフ.

3. 인터넷 인출 자료

- e-나라지표. (2023).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72 에서 2023.8.31. 인출
- 고용노동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do> 에서 2023. 9. 5. 인출.
- 고용노동부. (2023.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SBC_JSESSIONID=871dd7bfbe4742b684dda61f198d16d94376b75fa2bbae21408a!-1609882988?mCode=E020000000&cfgIdx=14&introGbn=02&op=view&idxId=878 에서 2023.9.5.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3.3.23.). 가계 저축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51> 에서 2023.8.31.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23.8.7.).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5호) 발간. 국민연금 보도자료. https://www.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526 에서 2023.9.5. 인출
- 국방부. (2021.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2022년부터 사회복지준비금 지급. 국방부 보도자료.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2745&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EC%A0%81%EA%B8%88&findOrganSeq= 에서 2023.9.5. 인출.

- 국방부. (2023b).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2060000 에서 2023.9.5. 인출.
- 국방부. (2023c).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리플릿(23년). https://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73869354&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O_290732&page=1&command=view&boardSeq=O_323047 에서 2023.9.5. 인출.
- 국세청. (2019.4.30.).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에서 2023.9.5. 인출
- 금융위원회. (2023.1.30.).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설명자료. <https://www.fsc.go.kr/po02030103> 에서 2023.9.5. 인출.
- 금융위원회. (2023.3.8.). 청년의 증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po010101/79546?srchCtgr=1¤t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에서 2023. 9. 5.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23).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part1=DIFGODR001&difSer=d951779c-b5be-48b3-b66c-3d91873a2017&temp=2022&temp2=HALF001> 에서 2023.9.5. 인출.
- 내일채움공제.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2010000> 에서 2023.9.5. 인출.
- 농림축산식품부. (2023.2.21.).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QzNiUyRmFydGNsVmllZy5kbyUzR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lMQlMjZiYnNPeGVuV3JkU2VxJTNEJTl2>

- 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JvdYUzRDEwJTl2aXNWaWV3TWluZSUzRGZhbHNlJTl2cGFnZSUzRDElMjZzcmNoV3JkJTNEJUVDJTk3JUlwUVBJUI4JTg4JTl2 에서 2023.9.5. 인출
- 농지은행·농지연금. (2023.9.5.). 농지연금 소개.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에서 2023.9.5. 인출.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22.6.30.).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976에서 2023.9.5. 인출
- 보건복지부. (2021.9.3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에서 2023.9.5. 인출
- 서민금융진흥원. (n.d.).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menuCode=01331&menuCategory=00160#none> 에서 2023.3.30. 인출.
- 서민금융진흥원. (2023.3.10.).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공고. <https://www.kinfa.or.kr/promotion/noticeDetail.do?seq=27652> 에서 2023.9.5. 인출.
- 서민금융진흥원. (2023.3.30.). 연 10% 이자 지급, 저소득·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 <https://www.kinfa.or.kr/promotion/newsDetail.do?seq=25941> 에서 2023.8.23. 인출.
- 임은진. (2021.7.3.).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3900088>
-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2023a).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 에서 2023.10.10. 인출.
-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2023b).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잔액현황.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4773126728137.do> 에서 2023.10.10. 인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10M0.do> 에서 2023.9.5. 인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3.14.).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운영지침 및 약관.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10000000&cfgIdx=1&op=view&idxId=884&introGbn=01> 에서 2023.9.5. 인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8.15.). 주택연금_지급방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에서 2023.9.5. 인출.
- 최재현. (2023.6.21.). 10% 금리 주는데...‘청년적금’ 68만명 증도해지 왜.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150019>
-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에서 2023.11.25. 인출
- 통계청. (2022.6.28.).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8919 에서 2023.8.17. 인출
- 통계청. (2022.8.29.). 미혼남녀(19~49세)의 결혼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도, 가족과출산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CG028&conn_path=I2 에서 2023.2.21. 인출
- 통계청. (2023.1.3.).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2011.6.=100), 전국주택가격동.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N_04_00001&conn_path=I3 에서 2023.8.16. 인출
- 통계청. (2023.10.26.).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list_no=427645&act=view&mainXml=Y에서 2023.11.24.
- 통계청. (2023.11.23.). 유형별 매매가격지수(2021.6.=100), 전국주택가격동향.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I3 에서 2023.8.16. 인출
- 통계청. (2023.11.29.).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에서 2023.11.30.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n.d.a). 세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6464&searchKeywordTo=3에서 2023.8.28.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n.d.b). 코호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945&searchKeywordTo=3에서 2023. 8. 28. 인출.
- 한국농어촌공사. (2023a). 주요사업현황-농지은행 및 농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https://www.ekr.or.kr/index.krc?contentUid=402880317d0c5551017d22d17673058e> 에서 2023.9.5. 인출.
- 한국농어촌공사. (2023b). 농지관리기금. <https://www.ekr.or.kr/index.krc?contentUid=402880317d0c5551017d22ce04bc0570>에서 2023. 9. 5. 인출.
- 한국은행. (2007.7.16.).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12752&menuNo=200690&searchWrd=%EC%A3%BC%ED%83%9D%EA%B8%88%EC%9C%B5%EC%9D%98+%ED%98%84%ED%99%A9%EA%B3%BC+%EB%B0%9C%EC%A0%84%EB%B0%A9%ED%96%A5&s>

- 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에서 2023.8.16. 인출
한국은행. (2023). 기준금리 변동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에서 2023.8.16. 인출.
- 한국은행. (2023.9.26.).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한국은행 보도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9725&menuNo=200690> 에서 2023.9.30. 인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주택연금이란.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에서 2023.9.5. 인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10.6.).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59573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에서 2023.10.7. 인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8.29.). 주택연금, 문턱은 낮추고 만족은 높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595548&title=%E2%80%9C%EC%A3%BC%ED%83%9D%EC%97%B0%EA%B8%88%2C+%EB%AC%B8%ED%84%B1%EC%9D%80+%EB%82%AE%EC%B6%94%EA%B3%A0+%EB%A7%8C%EC%A1%B1%EC%9D%80+%EB%86%92%EC%9D%B4%EA%B3%A0%E2%80%9D
- Amy Fontinelle. (2022.5.19.). *How to Choose a Reverse Mortgage Payment Plan*. Retrieved from <https://www.investopedia.com/mortgage/reverse-mortgage/payment-plan/> 2023.10.1.
- BENEFITS.GOV. (2023).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HECM)*. Retrieved from <https://www.benefits.gov/benefit/709> 2023.10.1.
-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a). *Methodological Notes*.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5.11.

-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b). *LW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3.3.
-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3c). *LWS VARIABLE LIST*.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files/data-lws-variables.pdf> 2023.3.3.
- HUD. (2016).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Handbook (4235.1)*. Retrieved from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4927/home-equity-conversion-mortgages-handbook/> 2023.10.1.
-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n.d.).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our-data/lws-database/> 2023.6.6.
- METIS. (n.d.). Retrieved from <https://www.lisdatacenter.org/frontend#/home> 2023.5.11.
- OECD. (2023).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3.11.25.
- REBECCA LAKE. (2022.8.31.). *Interest Rates for Reverse Mortgages, investopedia*. Retrieved from <https://www.investopedia.com/interest-rates-reverse-mortgages-5224296> 2023.10.1.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Retrieved from <https://www.acf.hhs.gov/orr/programs/refugees/ida> 2023.10.1.
- 京都府社会福祉協議会. (2023). *不動産担保型資金貸付*. Retrieved from <https://www.kyoshakyo.or.jp/minsei/fudousantanpokashitsuke/> 2023.10.1.
- 金融庁. (2023). *NISAとは?*. Retrieved from <https://www.fsa.go.jp/policy/nisa2/about/index.html> 2023.10.1.
- 社会福祉法人 愛知県社会福祉協議会. (2017.3.). *貸付制度のご案内*. https://www.aichi-fukushi.or.jp/intoro/minsei/pdf/fudousan_tanpo_hogo_05

12.pdf

厚生労働省. (2011.11.12.). 「生活福祉資金の貸付けについて」の一部改正について. Retrieved from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b7873&dataType=1&pageNo=1 20223.10.1.

厚生労働省. (2023). 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 Retrieved from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su-fukushi-shikin1/index.html 20223.10.1.

4.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 제33858호. (20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646호. (2023).

국민연금법, 법률 제19294호.(2023)

노후준비지원법, 법률 제17611호. (2021)

5. 데이터 베이스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데이터].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데이터].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데이터].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org



[부록 1] 횡단면 자료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부표 1-1〉 자산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구분	로그 총자산							
	(1)	(2)	(3)	(4)	(5)	(6)	(7)	(8)
여성 (준거집단=남성)	-1.050*** (0.014)	-1.049*** (0.014)	-1.042*** (0.014)	-0.116*** (0.018)	-0.157*** (0.018)	-0.107*** (0.018)	-0.036* (0.018)	0.157*** (0.019)
연령		0.035*** (0.003)	0.219*** (0.007)	0.098*** (0.007)	0.095*** (0.007)	0.100*** (0.007)	0.073*** (0.007)	0.071*** (0.007)
연령제곱(/100)			-0.183*** (0.007)	-0.080*** (0.007)	-0.080*** (0.007)	-0.075*** (0.007)	-0.048*** (0.006)	-0.049*** (0.006)
가구주와의 관계(준거집단=기타 가구원)								
가구주				2.967*** (0.045)	2.817*** (0.044)	2.675*** (0.044)	2.372*** (0.043)	2.118*** (0.045)
배우자				1.338*** (0.045)	1.259*** (0.044)	1.149*** (0.044)	1.098*** (0.043)	0.545*** (0.048)
자녀/자녀의 배우자				0.631*** (0.051)	0.564*** (0.051)	0.463*** (0.050)	0.395*** (0.048)	0.433*** (0.051)
가구원 수					-0.141*** (0.009)	-0.137*** (0.009)	-0.132*** (0.009)	-0.199*** (0.010)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408*** (0.027)	0.425*** (0.025)	0.403*** (0.025)
(전문)대학 졸업 이하						0.819*** (0.030)	0.853*** (0.029)	0.819*** (0.029)
대학원 이상						0.977*** (0.041)	1.050*** (0.040)	1.005*** (0.040)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65*** (0.022)	-0.534*** (0.022)

238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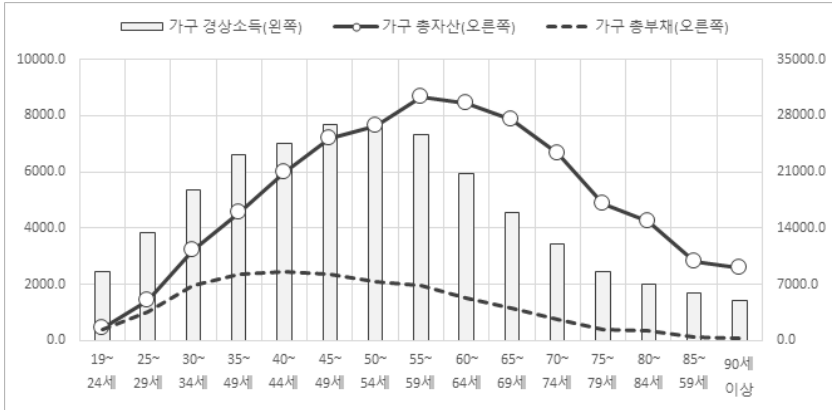
구분	로그 총자산							
	(1)	(2)	(3)	(4)	(5)	(6)	(7)	(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910*** (0.030)	0.903*** (0.0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782*** (0.021)	0.763*** (0.021)
무급가족종사자							-0.086* (0.036)	-0.092* (0.03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0.215*** (0.047)	-0.182*** (0.047)
비경제활동인구							-0.468*** (0.018)	-0.445*** (0.018)
혼인상태(준거집단=배우자 있음)								
이혼/별거								-0.651*** (0.031)
미혼								-0.508*** (0.038)
로그 가구 경상소득	0.875*** (0.012)	0.882*** (0.013)	0.871*** (0.012)	1.166*** (0.012)	1.250*** (0.014)	1.152*** (0.014)	1.034*** (0.014)	1.000*** (0.014)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출생코호트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	-1.129+ (0.651)	-4.692*** (0.717)	-4.336*** (0.725)	-7.333*** (0.479)	-7.273*** (0.491)	-7.574*** (0.496)	-6.138*** (0.488)	-4.943*** (0.498)
유효표본	220277	220277	220277	220277	220277	220277	220277	220277
adj. R-sq	0.263	0.265	0.272	0.378	0.382	0.393	0.420	0.425

주: 전체 연령집단 기준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가구 단위 군집 표준오차 (clusterd standard error)임. 가가중치를 적용함. +p<0.1 * p<0.05 **p<0.01 ***p<0.001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차 분석

[부그림 1-1]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

(단위: 만 원/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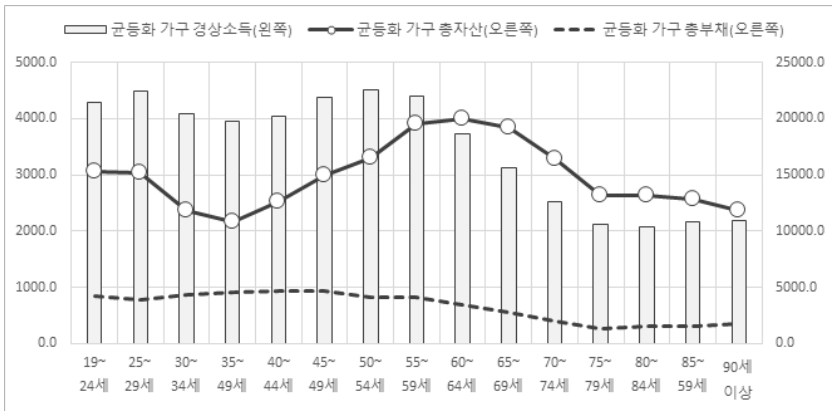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그림 1-2] 연령집단별 균등화 가구 소득, 자산, 부채

(단위: 만 원/년, 만 원)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2〉~〈부표 1-4〉는 경상소득과 총자산, 총부채의 연도별 10분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의 분석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조사자료로 구축되었다.

〈부표 1-2〉 2012~2022년 경상소득 10분위별 분포

(단위: %)

분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10.1	10.1	10.1	10.0	10.0	10.0
2	9.9	10.0	10.0	10.0	10.0	10.0
3	10.0	10.0	9.9	9.9	10.0	10.0
4	10.0	10.0	10.0	10.2	10.0	10.0
5	10.0	10.0	10.0	9.8	10.0	10.0
6	10.0	10.0	10.0	10.0	10.0	10.0
7	10.0	10.0	10.0	10.0	10.0	10.0
8	10.0	10.0	10.0	10.0	10.0	10.0
9	10.0	10.0	10.0	10.0	10.0	10.0
1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3〉 2012~2022년 총자산 10분위별 분포

(단위: %)

분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10.7	10.0	10.7	11.1	10.3	10.0
2	9.3	10.4	9.4	9.1	9.8	10.7
3	10.0	9.7	10.5	10.7	10.0	9.3
4	10.0	10.1	9.5	9.2	10.1	10.3
5	10.0	9.9	10.1	10.0	9.8	9.8
6	10.0	10.0	9.9	10.0	10.0	10.0
7	10.0	10.0	10.0	10.0	10.0	9.9
8	10.0	10.0	10.0	10.0	10.0	10.0
9	10.0	10.0	10.0	10.0	10.0	10.0
1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2021년〉

소득	총자산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	2.6	1.6	1.5	1.4	1.2	0.8	0.6	0.3	0.1	0.0	10.0
2	2.0	1.6	1.4	1.2	1.0	1.0	0.8	0.6	0.3	0.2	10.0
3	2.1	1.8	1.5	1.4	0.9	0.8	0.7	0.5	0.3	0.1	10.0
4	1.4	1.5	1.5	1.2	1.1	1.0	0.8	0.6	0.6	0.3	10.0
5	0.9	1.2	1.2	1.2	1.1	1.1	1.0	0.9	0.9	0.7	10.0
6	0.6	0.9	1.0	1.3	1.2	1.3	1.2	1.0	0.9	0.7	10.0
7	0.4	0.6	0.8	1.1	1.2	1.3	1.3	1.2	1.2	0.9	10.0
8	0.3	0.4	0.5	0.8	1.1	1.3	1.4	1.6	1.5	1.2	10.0
9	0.1	0.2	0.4	0.4	0.7	1.0	1.5	1.7	2.0	2.0	10.0
10	0.1	0.1	0.1	0.2	0.3	0.6	0.9	1.5	2.4	3.9	10.0
전체	10.3	9.8	10.0	10.1	9.8	10.0	10.0	10.0	10.0	10.0	100.0

〈2022년〉

소득	총자산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	2.6	1.7	1.5	1.5	1.1	0.7	0.5	0.3	0.1	0.1	10.0
2	2.0	1.9	1.1	1.2	1.1	0.8	0.8	0.5	0.4	0.1	10.0
3	1.9	1.9	1.4	1.3	1.0	0.8	0.6	0.6	0.4	0.2	10.0
4	1.3	1.6	1.4	1.2	1.0	1.1	0.9	0.7	0.6	0.3	10.0
5	0.8	1.2	1.2	1.2	1.2	1.2	1.0	0.8	0.9	0.6	10.0
6	0.6	0.9	0.9	1.3	1.2	1.2	1.2	1.0	0.9	0.7	10.0
7	0.4	0.7	0.8	1.0	1.2	1.4	1.3	1.1	1.1	0.8	10.0
8	0.2	0.5	0.5	0.7	1.1	1.2	1.4	1.6	1.4	1.4	10.0
9	0.2	0.2	0.4	0.5	0.6	1.0	1.4	1.8	1.9	2.1	10.0
10	0.1	0.1	0.2	0.3	0.3	0.6	0.9	1.5	2.3	3.8	10.0
전체	10.0	10.7	9.3	10.3	9.8	10.0	9.9	10.0	10.0	1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가 동일한 집단은 볼드체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6〉~〈부표 1-8〉은 경상소득과 총자산, 총부채의 연도별 5분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44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부표 1-6〉 2012~2022년 경상소득 10분위별 분포

(단위: %)

분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20.0	20.0	20.2	20.0	20.0	20.0
2	20.0	20.0	19.8	20.0	20.0	20.0
3	20.0	20.0	20.0	20.0	20.0	20.0
4	20.0	20.0	20.0	20.0	20.0	20.0
5	20.0	20.0	20.0	20.0	20.0	2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7〉 2012~2022년 총자산 10분위별 분포

(단위: %)

분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20.0	20.4	20.0	20.2	20.1	20.7
2	20.0	19.8	20.0	19.8	20.1	19.6
3	20.0	19.9	20.0	20.0	19.8	19.8
4	20.0	20.0	20.0	20.0	20.0	19.9
5	20.0	20.0	20.0	20.0	20.0	2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8〉 2012~2022년 총부채 10분위별 분포

(단위: %)

분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69.0	68.3	67.8	67.3	67.4	67.4
2						
3						
4	11.0	12.4	12.3	12.8	12.7	12.7
5	20.0	19.3	19.9	20.0	20.0	1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2020년〉

소득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7.4	5.5	4.2	2.5	0.6	20.1
2	7.1	5.4	3.8	2.5	1.4	20.2
3	3.6	4.5	4.7	4.1	2.9	19.8
4	1.7	3.4	4.8	5.3	4.8	20.0
5	0.5	1.2	2.5	5.6	10.3	20.0
전체	20.2	19.8	20.0	20.0	20.0	100.0

〈2021년〉

소득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7.7	5.5	4.0	2.2	0.5	20.0
2	6.7	5.7	3.7	2.6	1.2	20.0
3	3.5	4.6	4.7	4.1	3.1	20.0
4	1.7	3.3	4.9	5.4	4.8	20.0
5	0.4	1.1	2.6	5.6	10.3	20.0
전체	20.1	20.1	19.8	20.0	20.0	100.0

〈2022년〉

소득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8.1	5.3	3.8	2.2	0.7	20.0
2	6.7	5.3	3.8	2.7	1.5	20.0
3	3.5	4.7	4.7	4.0	3.0	20.0
4	1.8	3.0	4.9	5.5	4.7	20.0
5	0.5	1.3	2.5	5.6	10.1	20.0
전체	20.7	19.6	19.8	19.9	20.0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량(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표 1-10〉은 연도별 소득·자산 결합 빈곤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부표 1-10〉 2017~2022년 소득·자산 결합 빈곤 집단 분포

(단위: %)

〈소득 비빈곤/자산 비빈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9~24세	18.9	17.5	17.2	15.9	15.3	15.2	100.0
25~29세	18.0	17.4	16.5	16.1	15.8	16.2	100.0
30~34세	20.8	17.5	16.1	14.5	14.4	16.7	100.0
35~49세	18.5	17.9	17.2	15.5	15.6	15.4	100.0
40~44세	18.2	17.9	16.6	16.0	15.2	16.1	100.0
45~49세	17.0	17.8	17.1	16.5	16.3	15.2	100.0
50~54세	16.4	16.3	16.6	16.4	16.7	17.6	100.0
55~59세	16.6	17.5	17.4	16.5	15.7	16.3	100.0
60~64세	14.2	15.1	16.7	17.3	18.0	18.8	100.0
65~69세	13.7	15.1	16.0	17.6	18.1	19.6	100.0
70~74세	14.6	15.5	16.4	17.7	17.4	18.5	100.0
75~79세	13.6	15.2	16.4	17.6	18.6	18.5	100.0
전체	16.9	16.9	16.8	16.4	16.3	16.8	100.0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9~24세	17.1	15.7	15.5	16.9	17.6	17.3	100.0
25~29세	16.2	13.8	14.5	16.6	18.0	20.9	100.0
30~34세	16.9	15.0	15.1	14.7	18.0	20.3	100.0
35~49세	14.6	15.8	16.1	17.0	17.8	18.8	100.0
40~44세	14.5	14.6	16.0	17.7	18.3	19.0	100.0
45~49세	15.1	15.8	15.4	16.5	18.5	18.7	100.0
50~54세	14.4	13.8	16.7	17.6	18.8	18.7	100.0
55~59세	15.8	14.7	15.9	17.2	17.7	18.8	100.0
60~64세	12.6	14.5	17.0	18.1	19.0	19.0	100.0
65~69세	13.5	14.1	14.9	19.7	20.0	17.9	100.0
70~74세	17.9	16.6	15.9	15.4	16.0	18.2	100.0
75~79세	12.8	15.5	17.3	16.9	18.6	18.9	100.0
전체	15.1	15.0	15.8	17.0	18.2	18.9	100.0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9~24세	19.0	21.7	17.8	15.7	13.0	12.8	100.0
25~29세	16.9	19.0	14.6	12.9	16.0	20.6	100.0
30~34세	22.6	22.8	13.5	13.0	12.5	15.6	100.0
35~49세	23.9	20.5	16.7	12.6	13.3	13.1	100.0
40~44세	20.7	17.4	16.8	14.9	15.4	14.9	100.0
45~49세	19.7	18.3	16.6	15.7	15.6	14.2	100.0
50~54세	16.5	18.3	16.4	15.5	17.1	16.3	100.0
55~59세	17.0	19.4	16.6	16.6	16.5	14.0	100.0
60~64세	16.9	17.5	15.8	17.5	16.8	15.4	100.0
65~69세	16.6	16.2	17.1	17.2	17.0	16.0	100.0
70~74세	14.7	15.3	17.5	16.8	18.0	17.7	100.0
75~79세	13.6	15.4	16.4	18.9	17.8	17.9	100.0
전체	16.7	17.3	16.5	16.7	16.6	16.2	100.0

〈소득 빈곤/자산 빈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9~24세	21.8	15.9	16.2	18.4	13.7	14.1	100.0
25~29세	19.5	17.1	17.1	12.7	15.6	18.0	100.0
30~34세	21.2	18.0	14.9	14.9	13.9	17.1	100.0
35~49세	19.2	21.5	15.7	14.7	14.4	14.6	100.0
40~44세	18.8	17.1	17.5	16.5	14.8	15.3	100.0
45~49세	21.5	17.1	17.5	15.1	15.6	13.2	100.0
50~54세	16.9	15.9	16.0	19.5	15.9	15.9	100.0
55~59세	19.0	16.8	17.1	15.1	13.7	18.4	100.0
60~64세	15.2	15.8	16.3	15.8	17.9	19.1	100.0
65~69세	17.1	18.0	16.8	17.4	15.3	15.5	100.0
70~74세	18.7	16.7	16.4	17.4	16.0	14.7	100.0
75~79세	16.5	16.4	16.8	18.4	15.8	16.1	100.0
전체	18.1	16.9	16.6	17.0	15.4	15.9	100.0

주: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7~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 저자 분석

[부록 2] 코호트별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부표 2-1〉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093***	(0.024)	-0.136***	(0.022)
	c1937-41	-0.056**	(0.021)	-0.050**	(0.017)
	c1942-46	-0.021	(0.020)	0.010	(0.016)
	c1947-51	-0.002	(0.021)	0.064***	(0.017)
	c1952-56	0.093***	(0.023)	0.111***	(0.018)
	c1957-61	0.046*	(0.021)	0.050**	(0.017)
	c1962-66	0.059**	(0.020)	0.020	(0.019)
	c1967-71	0.074***	(0.018)	0.047**	(0.016)
	c1972-76	0.049**	(0.017)	0.036*	(0.015)
	c1977-81	0.022	(0.016)	-0.020	(0.015)
	c1982-86	-0.012	(0.017)	-0.048**	(0.016)
	c1987-91	-0.067***	(0.018)	-0.071***	(0.017)
	c1992-96	-0.092***	(0.021)	-0.012	(0.020)
연령	20-24	-0.151***	(0.014)	-0.037**	(0.014)
	25-29	-0.042***	(0.012)	-0.054***	(0.011)
	30-34	-0.033**	(0.011)	-0.019	(0.010)
	35-39	-0.012	(0.012)	0.058***	(0.011)
	40-44	0.014	(0.012)	0.070***	(0.012)
	45-49	0.119***	(0.012)	0.070***	(0.011)
	50-54	0.170***	(0.012)	0.012	(0.013)
	55-59	0.181***	(0.013)	-0.029*	(0.014)
	60-64	0.089***	(0.012)	-0.087***	(0.012)
	65-69	-0.023*	(0.011)	0.032**	(0.010)
70-74	-0.134***	(0.011)	0.000	(0.011)	
75-79	-0.178***	(0.014)	-0.016	(0.014)	
기간	2006	-0.004	(0.004)	-0.004	(0.004)
	2011	-0.000	(0.006)	-0.002	(0.006)
	2016	0.013	(0.007)	0.015*	(0.006)
	2021	-0.008	(0.005)	-0.010*	(0.004)
rescacoh		1.814***	(0.051)	1.063***	(0.051)
rescaage		0.481***	(0.025)	0.553***	(0.023)
여성				-0.120***	(0.012)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156***	(0.018)
	고졸			0.383***	(0.019)
	대학 이상			0.677***	(0.023)

25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구분		Coef.	S.E.	Coef.	S.E.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290***	(0.031)
	배우자			-0.037	(0.032)
	자녀			-0.256***	(0.035)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0.526***	(0.021)
피부양가구원 비율				-0.381***	(0.024)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20	(0.014)
	농어촌			-0.084***	(0.021)
cons.		7.866***	(0.008)	7.605***	(0.040)
N		48,683		48,683	
ll		-45777		-39941	
chi2		3426		8676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균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2> 개인노동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070	(0.080)	-0.029	(0.067)
	c1937-41	-0.337***	(0.073)	-0.168**	(0.059)
	c1942-46	-0.264**	(0.083)	-0.206**	(0.063)
	c1947-51	-0.361***	(0.100)	-0.210**	(0.068)
	c1952-56	0.189	(0.108)	-0.034	(0.078)
	c1957-61	0.422***	(0.099)	0.112	(0.076)
	c1962-66	0.514***	(0.095)	0.347***	(0.075)
	c1967-71	0.549***	(0.086)	0.513***	(0.070)
	c1972-76	0.097	(0.088)	0.262***	(0.068)
	c1977-81	-0.072	(0.088)	-0.028	(0.068)
	c1982-86	0.134	(0.082)	0.126	(0.069)
	c1987-91	-0.298**	(0.095)	-0.234**	(0.081)
	c1992-96	-0.502***	(0.108)	-0.451***	(0.095)
	연령	20-24	-2.226***	(0.087)	-1.760***
25-29		-0.210**	(0.069)	-0.535***	(0.061)
30-34		0.259***	(0.059)	0.103*	(0.051)
35-39		0.406***	(0.060)	0.547***	(0.054)
40-44		0.941***	(0.057)	1.101***	(0.052)
45-49		1.180***	(0.059)	1.217***	(0.053)
50-54		1.002***	(0.061)	0.796***	(0.060)
55-59		0.730***	(0.063)	0.409***	(0.064)

구분		Coef.	S.E.	Coef.	S.E.
	50-64	0.267***	(0.059)	0.099	(0.058)
	65-69	-0.281***	(0.053)	-0.420***	(0.050)
	70-74	-0.830***	(0.051)	-0.683***	(0.050)
	75-79	-1.238***	(0.060)	-0.875***	(0.054)
기간	2006	-0.029	(0.017)	-0.022	(0.013)
	2011	0.050*	(0.024)	0.011	(0.019)
	2016	-0.011	(0.026)	0.043*	(0.020)
	2021	-0.009	(0.018)	-0.032*	(0.014)
rescacoh		3.963***	(0.180)	1.685***	(0.155)
rescaage		0.217*	(0.090)	-0.764***	(0.075)
여성				-0.569***	(0.057)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163*	(0.077)
	고졸			0.397***	(0.074)
	대학 이상			0.667***	(0.081)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1.763***	(0.106)
	배우자			-0.847***	(0.113)
	자녀			-0.197	(0.120)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4.726***	(0.062)
피부양가구원 비율				0.538***	(0.094)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38	(0.038)
	농어촌			-0.198**	(0.064)
cons.		4.748***	(0.024)	1.501***	(0.131)
N		48,806		48,683	
ll		-128167		-117540	
chi2		6683		31993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3〉 소득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074	(0.078)	0.185*	(0.089)
	c1937-41	0.170**	(0.062)	0.170*	(0.069)
	c1942-46	0.097	(0.054)	0.001	(0.059)
	c1947-51	0.082	(0.063)	-0.098	(0.067)
	c1952-56	-0.092	(0.072)	-0.182*	(0.079)
	c1957-61	-0.075	(0.082)	-0.044	(0.087)
	c1962-66	-0.079	(0.094)	0.064	(0.106)
	c1967-71	-0.119	(0.104)	-0.016	(0.104)
	c1972-76	-0.352**	(0.109)	-0.332**	(0.107)
	c1977-81	-0.323**	(0.125)	-0.239*	(0.122)
	c1982-86	0.020	(0.121)	0.075	(0.116)
	c1987-91	0.206	(0.129)	0.151	(0.128)
c1992-96	0.391**	(0.142)	0.267	(0.145)	
연령	20-24	0.532***	(0.111)	0.013	(0.117)
	25-29	0.168	(0.102)	0.153	(0.107)
	30-34	0.116	(0.099)	0.132	(0.102)
	35-39	-0.276**	(0.098)	-0.412***	(0.105)
	40-44	-0.202*	(0.083)	-0.314***	(0.090)
	45-49	-0.271***	(0.076)	-0.059	(0.081)
	50-54	-0.369***	(0.066)	0.181*	(0.079)
	55-59	-0.317***	(0.056)	0.393***	(0.073)
	50-64	-0.179***	(0.046)	0.391***	(0.064)
	65-69	0.023	(0.037)	-0.230***	(0.049)
	70-74	0.285***	(0.043)	-0.210***	(0.055)
75-79	0.491***	(0.062)	-0.039	(0.073)	
기간	2006	0.110***	(0.023)	0.152***	(0.027)
	2011	-0.111**	(0.035)	-0.144***	(0.041)
	2016	-0.107**	(0.037)	-0.169***	(0.043)
	2021	0.109***	(0.024)	0.161***	(0.028)
rescacoh		-1.994***	(0.281)	-0.267	(0.311)
rescaage		0.519***	(0.137)	0.348*	(0.153)
여성				0.456***	(0.065)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609***	(0.076)
	고졸			-1.162***	(0.082)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대학 이상			-1.857***	(0.103)
	가구주 배우자			1.141***	(0.184)
	자녀			0.229	(0.180)
				1.739***	(0.250)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2.403***	(0.107)
피부양가구원 비율				1.382***	(0.132)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34	(0.070)
	농어촌			0.460***	(0.085)
cons.		-2.073***	(0.036)	-1.848***	(0.219)
N		48,683		48,683	
II		-14490		-12033	
chi2		2249		3266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4〉 총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261***	(0.078)	-0.395***	(0.074)
	c1937-41	-0.015	(0.067)	-0.052	(0.063)
	c1942-46	0.179**	(0.060)	0.225***	(0.055)
	c1947-51	0.102	(0.071)	0.231***	(0.066)
	c1952-56	0.157*	(0.077)	0.239***	(0.072)
	c1957-61	-0.272**	(0.084)	-0.170*	(0.082)
	c1962-66	-0.144	(0.076)	-0.166*	(0.075)
	c1967-71	0.110	(0.063)	0.088	(0.061)
	c1972-76	0.171**	(0.064)	0.153*	(0.061)
	c1977-81	0.164**	(0.062)	0.071	(0.059)
	c1982-86	0.291***	(0.065)	0.139*	(0.062)
	c1987-91	-0.203*	(0.085)	-0.289***	(0.081)
c1992-96	-0.278**	(0.085)	-0.074	(0.082)	
연령	20-24	-0.069	(0.062)	-0.049	(0.062)
	25-29	-0.013	(0.046)	-0.085	(0.045)
	30-34	-0.056	(0.046)	0.030	(0.045)
	35-39	-0.104*	(0.042)	0.091*	(0.043)
	40-44	-0.036	(0.045)	0.108*	(0.047)
	45-49	0.091*	(0.044)	0.063	(0.044)
	50-54	0.070	(0.049)	-0.125*	(0.055)
	55-59	0.174***	(0.044)	-0.123*	(0.055)
	50-64	0.253***	(0.038)	-0.013	(0.051)
	65-69	0.106**	(0.033)	0.163***	(0.038)
70-74	-0.070*	(0.035)	0.091*	(0.040)	
75-79	-0.343***	(0.045)	-0.150**	(0.048)	
기간	2006	0.027	(0.017)	0.037*	(0.017)
	2011	-0.020	(0.025)	-0.029	(0.025)
	2016	-0.041	(0.025)	-0.052*	(0.025)
	2021	0.034	(0.017)	0.044**	(0.017)
rescacoh		3.820***	(0.180)	1.875***	(0.194)
rescaage		2.014***	(0.089)	2.332***	(0.094)
여성				-0.489***	(0.056)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379***	(0.081)
	고졸			0.796***	(0.081)
	대학 이상			1.744***	(0.096)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412***	(0.108)
	배우자			0.627***	(0.111)
	자녀			0.664***	(0.126)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0.652***	(0.087)
피부양가구원 비율				-0.563***	(0.112)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100	(0.058)
	농어촌			-0.042	(0.089)
cons.		8.786***	(0.030)	7.784***	(0.148)
N		48,220		48,220	
II		-110548		-108539	
chi2		731.8		1979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5〉 부동산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430***	(0.099)	-0.535***	(0.095)
	c1937-41	0.008	(0.075)	-0.018	(0.069)
	c1942-46	0.191**	(0.067)	0.237***	(0.062)
	c1947-51	0.204**	(0.071)	0.313***	(0.066)
	c1952-56	0.229**	(0.072)	0.302***	(0.067)
	c1957-61	-0.130	(0.073)	-0.039	(0.069)
	c1962-66	-0.119	(0.071)	-0.157*	(0.070)
	c1967-71	0.032	(0.063)	-0.005	(0.062)
	c1972-76	0.076	(0.067)	0.053	(0.064)
	c1977-81	0.031	(0.072)	-0.049	(0.068)
	c1982-86	0.318***	(0.067)	0.175**	(0.065)
c1987-91	-0.087	(0.091)	-0.164	(0.087)	
c1992-96	-0.325***	(0.093)	-0.113	(0.087)	
연령	20-24	-0.041	(0.058)	-0.087	(0.057)
	25-29	-0.231***	(0.052)	-0.319***	(0.051)
	30-34	-0.270***	(0.051)	-0.164***	(0.049)
	35-39	-0.080	(0.045)	0.136**	(0.046)
	40-44	0.178***	(0.049)	0.336***	(0.051)
	45-49	0.248***	(0.048)	0.242***	(0.048)
	50-54	0.211***	(0.045)	0.048	(0.052)
	55-59	0.256***	(0.045)	-0.006	(0.055)
	50-64	0.278***	(0.038)	0.037	(0.048)
	65-69	0.141***	(0.037)	0.189***	(0.039)
	70-74	-0.100*	(0.041)	0.031	(0.045)
75-79	-0.591***	(0.056)	-0.442***	(0.058)	
기간	2006	0.029	(0.016)	0.041*	(0.016)
	2011	-0.015	(0.023)	-0.024	(0.022)
	2016	-0.058*	(0.024)	-0.073**	(0.024)
	2021	0.044*	(0.017)	0.057***	(0.017)
rescacoh		2.807***	(0.186)	0.901***	(0.196)
rescaage		1.353***	(0.088)	1.769***	(0.094)
여성				-0.546***	(0.052)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465***	(0.078)
	고졸			0.949***	(0.075)
	대학 이상			1.754***	(0.086)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513***	(0.125)
	배우자			0.640***	(0.128)
	자녀			0.843***	(0.144)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0.464***	(0.075)
피부양가구원 비율				-0.529***	(0.104)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59	(0.055)
	농어촌			-0.416***	(0.090)
cons.		8.624***	(0.029)	7.792***	(0.152)
N		48,572		48,572	
II		-111113		-108960	
chi2		527.0		1970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6〉 자산 빈곤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101	(0.089)	0.295**	(0.093)
	c1937-41	-0.043	(0.080)	0.018	(0.082)
	c1942-46	-0.164*	(0.075)	-0.212**	(0.076)
	c1947-51	0.056	(0.088)	-0.063	(0.088)
	c1952-56	-0.008	(0.096)	-0.122	(0.099)
	c1957-61	0.296**	(0.095)	0.178	(0.103)
	c1962-66	0.244**	(0.093)	0.233*	(0.098)
	c1967-71	-0.182*	(0.093)	-0.214*	(0.094)
	c1972-76	-0.210*	(0.102)	-0.239*	(0.102)
	c1977-81	-0.249*	(0.101)	-0.178	(0.102)
	c1982-86	-0.413***	(0.106)	-0.276*	(0.108)
c1987-91	0.265**	(0.103)	0.393***	(0.106)	
c1992-96	0.309**	(0.102)	0.187	(0.104)	
연령	20-24	0.345***	(0.089)	0.227*	(0.097)
	25-29	0.031	(0.078)	0.063	(0.080)
	30-34	-0.111	(0.082)	-0.204*	(0.086)
	35-39	-0.045	(0.077)	-0.203*	(0.081)
	40-44	-0.041	(0.074)	-0.150	(0.080)
	45-49	-0.195**	(0.072)	-0.118	(0.075)
	50-54	0.011	(0.070)	0.295***	(0.080)
	55-59	-0.135*	(0.062)	0.232**	(0.077)
	50-64	-0.209***	(0.057)	0.090	(0.073)
	65-69	-0.123*	(0.053)	-0.205***	(0.059)
	70-74	0.061	(0.052)	-0.167**	(0.060)
75-79	0.410***	(0.065)	0.140	(0.072)	
기간	2006	-0.024	(0.025)	-0.027	(0.026)
	2011	0.017	(0.037)	0.020	(0.038)
	2016	0.038	(0.042)	0.040	(0.043)
	2021	-0.031	(0.028)	-0.033	(0.028)
rescacoh		-1.925***	(0.275)	-0.192	(0.295)
rescaage		-0.818***	(0.135)	-1.140***	(0.148)
여성				0.538***	(0.066)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266**	(0.088)
	고졸			-0.597***	(0.095)
	대학 이상			-1.498***	(0.132)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635***	(0.129)
	배우자			-0.501***	(0.137)
	자녀			-0.222	(0.166)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1.130**	(0.118)
피부양가구원 비율				0.567***	(0.141)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194*	(0.077)
	농어촌			-0.134	(0.111)
cons.		-2.279***	(0.035)	-1.598**	(0.185)
N		48,683		48,683	
II		-14480		-13493	
chi2		204.6		816.8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7〉 공적이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520***	(0.074)	-0.467***	(0.075)
	c1937-41	-0.098	(0.065)	-0.098	(0.066)
	c1942-46	0.461***	(0.051)	0.437***	(0.056)
	c1947-51	0.836***	(0.058)	0.678***	(0.054)
	c1952-56	0.332***	(0.068)	0.346***	(0.064)
	c1957-61	-0.223**	(0.077)	-0.109	(0.070)
	c1962-66	-0.497***	(0.076)	-0.427***	(0.067)
	c1967-71	-0.532***	(0.073)	-0.575***	(0.065)
	c1972-76	-0.492***	(0.076)	-0.561***	(0.067)
	c1977-81	0.360***	(0.071)	0.403***	(0.060)
	c1982-86	0.364***	(0.078)	0.380***	(0.068)
c1987-91	-0.110	(0.084)	-0.081	(0.077)	
c1992-96	0.119	(0.094)	0.075	(0.086)	
연령	20-24	0.352***	(0.066)	-0.370***	(0.062)
	25-29	0.024	(0.058)	-0.089	(0.054)
	30-34	0.686***	(0.058)	0.606***	(0.054)
	35-39	0.524***	(0.055)	0.221***	(0.052)
	40-44	-0.264***	(0.055)	-0.508***	(0.051)
	45-49	-0.864***	(0.053)	-0.479***	(0.051)
	50-54	-1.205***	(0.055)	-0.179**	(0.059)
	55-59	-1.012***	(0.058)	0.274***	(0.057)
	50-64	0.293***	(0.049)	1.408***	(0.053)
	65-69	0.696***	(0.032)	0.119***	(0.036)
	70-74	0.368***	(0.032)	-0.503***	(0.036)
75-79	0.403***	(0.047)	-0.500***	(0.049)	
기간	2006	-0.114***	(0.021)	-0.092***	(0.021)
	2011	0.101***	(0.030)	0.080**	(0.029)
	2016	0.142***	(0.035)	0.115***	(0.034)
	2021	-0.128***	(0.023)	-0.104***	(0.023)
rescacoh		5.564***	(0.220)	6.435***	(0.220)
rescaage		4.385***	(0.105)	3.924***	(0.107)
여성				0.048	(0.051)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190**	(0.067)
	고졸			0.019	(0.069)
	대학 이상			-0.309***	(0.081)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661***	(0.103)
	배우자			-0.653***	(0.107)
	자녀			0.668***	(0.125)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1.092***	(0.081)
피부양가구원 비율				3.222***	(0.095)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88	(0.056)
	농어촌			0.568***	(0.083)
cons.		3.457***	(0.028)	3.078***	(0.134)
N		48,683		48,683	
II		-113786		-109431	
chi2		9507		14529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8〉 공적이전(공적연금 제외)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197**	(0.076)	-0.112	(0.074)
	c1937-41	0.012	(0.071)	0.019	(0.068)
	c1942-46	0.201**	(0.064)	0.158**	(0.056)
	c1947-51	0.455***	(0.070)	0.244***	(0.064)
	c1952-56	0.105	(0.075)	0.080	(0.066)
	c1957-61	-0.139	(0.072)	-0.051	(0.062)
	c1962-66	-0.272***	(0.071)	-0.156*	(0.061)
	c1967-71	-0.370***	(0.069)	-0.373***	(0.063)
	c1972-76	-0.374***	(0.069)	-0.441***	(0.062)
	c1977-81	0.344***	(0.064)	0.388***	(0.057)
	c1982-86	0.152*	(0.069)	0.245***	(0.059)
	c1987-91	-0.096	(0.081)	-0.000	(0.073)
c1992-96	0.179*	(0.089)	0.000	(0.081)	
연령	20-24	0.242***	(0.063)	-0.210***	(0.058)
	25-29	-0.256***	(0.054)	-0.270***	(0.051)
	30-34	0.459***	(0.057)	0.234***	(0.051)
	35-39	0.694***	(0.054)	0.168**	(0.051)
	40-44	0.082	(0.054)	-0.318***	(0.051)
	45-49	-0.324***	(0.052)	0.000	(0.051)
	50-54	-0.602***	(0.053)	0.440***	(0.057)
	55-59	-0.852***	(0.054)	0.504***	(0.056)
	50-64	-0.882***	(0.049)	0.338***	(0.051)
	65-69	0.103*	(0.043)	-0.506***	(0.047)
	70-74	0.448***	(0.040)	-0.421***	(0.043)
	75-79	0.889***	(0.052)	0.042	(0.054)
기간	2006	-0.081***	(0.020)	-0.069***	(0.019)
	2011	0.077**	(0.028)	0.063*	(0.026)
	2016	0.089**	(0.033)	0.080*	(0.032)
	2021	-0.085***	(0.022)	-0.074***	(0.021)
rescacoh		5.602***	(0.205)	7.538***	(0.197)
rescaage		3.625***	(0.100)	2.713***	(0.104)
여성				0.102*	(0.045)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412***	(0.069)
	고졸			-0.925***	(0.071)
	대학 이상			-1.436***	(0.081)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0.677***	(0.098)
	배우자			-0.956***	(0.101)
	자녀			-0.628***	(0.117)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0.740***	(0.078)
피부양가구원 비율				3.603***	(0.090)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114*	(0.051)
	농어촌			0.762***	(0.084)
cons.		2.567***	(0.028)	2.939***	(0.128)
N		48,683		48,683	
II		-112801		-107760	
chi2		3189		821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9〉 소득 비빈곤/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314*	(0.160)	0.482**	(0.161)
	c1937-41	-0.391**	(0.151)	-0.315*	(0.153)
	c1942-46	-0.252*	(0.125)	-0.286*	(0.126)
	c1947-51	-0.005	(0.116)	-0.110	(0.115)
	c1952-56	0.115	(0.133)	0.019	(0.137)
	c1957-61	0.455***	(0.123)	0.324*	(0.131)
	c1962-66	0.318**	(0.111)	0.287*	(0.115)
	c1967-71	-0.150	(0.104)	-0.184	(0.105)
	c1972-76	-0.206	(0.109)	-0.230*	(0.109)
	c1977-81	-0.258*	(0.104)	-0.199	(0.105)
	c1982-86	-0.367**	(0.113)	-0.241*	(0.114)
	c1987-91	0.174	(0.115)	0.304**	(0.117)
	c1992-96	0.255*	(0.119)	0.149	(0.120)
연령	20-24	0.201	(0.103)	0.195	(0.112)
	25-29	-0.025	(0.089)	0.020	(0.091)
	30-34	-0.117	(0.093)	-0.181	(0.096)
	35-39	0.027	(0.085)	-0.099	(0.089)
	40-44	0.071	(0.086)	-0.032	(0.093)
	45-49	-0.121	(0.087)	-0.103	(0.090)
	50-54	0.062	(0.096)	0.200	(0.105)
	55-59	-0.076	(0.096)	0.120	(0.112)
	50-64	-0.216*	(0.102)	-0.034	(0.118)
	65-69	-0.122	(0.108)	-0.168	(0.112)
70-74	-0.009	(0.107)	-0.119	(0.113)	
75-79	0.325*	(0.128)	0.202	(0.133)	
기간	2006	-0.026	(0.034)	-0.034	(0.034)
	2011	0.011	(0.049)	0.019	(0.050)
	2016	0.054	(0.058)	0.063	(0.058)
	2021	-0.040	(0.038)	-0.049	(0.038)
rescacoh		-1.662***	(0.372)	-0.283	(0.392)
rescaage		-1.152***	(0.188)	-1.321***	(0.204)
여성				0.435***	(0.086)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021	(0.119)
	고졸			-0.379**	(0.128)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대학 이상			-1.218***	(0.167)
	가구주			0.420**	(0.156)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배우자			-0.522**	(0.161)
	자녀			-0.403*	(0.193)
피부양가구원 비율				-0.569***	(0.165)
지역규모 (ref. 대도시)				0.408*	(0.189)
중소도시 농어촌				-0.231*	(0.093)
				-0.201	(0.144)
cons.		-2.683***	(0.046)	-2.058***	(0.236)
N		38,011		38,011	
		-9425		-9074	
chi2		151.4		448.5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균집표준오차

3) 기준 종속 변수(base outcome)는 소득 비빈곤/자산 비빈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10〉 소득 빈곤/자산 비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062	(0.089)	0.158	(0.098)
	c1937-41	0.153*	(0.069)	0.129	(0.077)
	c1942-46	0.152**	(0.059)	0.038	(0.064)
	c1947-51	0.092	(0.070)	-0.088	(0.076)
	c1952-56	-0.117	(0.081)	-0.182*	(0.090)
	c1957-61	-0.089	(0.090)	-0.036	(0.096)
	c1962-66	-0.139	(0.109)	0.036	(0.132)
	c1967-71	-0.101	(0.121)	0.021	(0.122)
	c1972-76	-0.322*	(0.128)	-0.300*	(0.124)
	c1977-81	-0.315*	(0.156)	-0.216	(0.149)
	c1982-86	0.160	(0.144)	0.178	(0.136)
	c1987-91	0.041	(0.173)	-0.020	(0.169)
c1992-96	0.424*	(0.206)	0.282	(0.213)	
연령	20-24	0.469***	(0.121)	-0.064	(0.130)
	25-29	0.210	(0.126)	0.178	(0.133)
	30-34	0.099	(0.111)	0.100	(0.112)
	35-39	-0.176	(0.114)	-0.308*	(0.122)
	40-44	-0.113	(0.096)	-0.229*	(0.104)
	45-49	-0.247**	(0.088)	-0.025	(0.095)
	50-54	-0.493***	(0.076)	0.100	(0.093)
	55-59	-0.452***	(0.070)	0.318***	(0.090)
	50-64	-0.207***	(0.052)	0.394***	(0.073)
	65-69	0.044	(0.041)	-0.257***	(0.054)
70-74	0.325***	(0.048)	-0.202**	(0.062)	
75-79	0.539***	(0.069)	-0.005	(0.082)	
기간	2006	0.127***	(0.028)	0.164***	(0.032)
	2011	-0.131**	(0.040)	-0.159***	(0.046)
	2016	-0.120**	(0.042)	-0.173***	(0.048)
	2021	0.124***	(0.029)	0.168***	(0.033)
rescacoh		-1.940***	(0.327)	-0.314	(0.370)
rescaage		0.679***	(0.158)	0.516**	(0.177)
여성				0.384***	(0.083)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644***	(0.085)
	고졸			-1.242***	(0.095)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대학 이상			-1.935***	(0.119)
	가구주			1.193***	(0.227)
	배우자			0.404	(0.220)
	자녀			2.040***	(0.322)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2.228***	(0.129)
피부양가구원 비율				1.552***	(0.172)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58	(0.085)
	농어촌			0.536***	(0.096)
cons.		-2.312***	(0.045)	-2.242***	(0.283)
N		42,823		42,823	
II		-11042		-9270	
chi2		1941		2772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3) 기준 종속 변수(base outcome)는 소득 비빈곤/자산 비빈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2-11> 소득·자산 빈곤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구분		Coef.	S.E.	Coef.	S.E.
출생코호트	c1931-36	0.187	(0.128)	0.508***	(0.151)
	c1937-41	0.128	(0.104)	0.278*	(0.121)
	c1942-46	-0.057	(0.090)	-0.189	(0.106)
	c1947-51	0.096	(0.115)	-0.150	(0.126)
	c1952-56	-0.179	(0.124)	-0.435**	(0.144)
	c1957-61	0.089	(0.136)	0.009	(0.155)
	c1962-66	0.129	(0.156)	0.139	(0.175)
	c1967-71	-0.182	(0.169)	-0.193	(0.175)
	c1972-76	-0.345	(0.192)	-0.378	(0.197)
	c1977-81	-0.243	(0.200)	-0.132	(0.208)
	c1982-86	-0.722***	(0.201)	-0.557**	(0.208)
	c1987-91	0.557**	(0.190)	0.652**	(0.198)
c1992-96	0.542**	(0.203)	0.447*	(0.216)	
연령	20-24	0.692***	(0.195)	0.202	(0.210)
	25-29	0.106	(0.158)	0.111	(0.166)
	30-34	-0.081	(0.174)	-0.225	(0.190)
	35-39	-0.277	(0.191)	-0.553**	(0.193)
	40-44	-0.280*	(0.135)	-0.424**	(0.146)
	45-49	-0.286*	(0.136)	-0.017	(0.146)
	50-54	-0.148	(0.110)	0.575***	(0.137)
	55-59	-0.196*	(0.087)	0.715***	(0.112)
	50-64	-0.189**	(0.070)	0.569***	(0.102)
	65-69	-0.068	(0.060)	-0.408***	(0.083)
	70-74	0.178*	(0.073)	-0.438***	(0.090)
75-79	0.549***	(0.102)	-0.107	(0.118)	
기간	2006	0.028	(0.030)	0.071	(0.037)
	2011	-0.040	(0.047)	-0.074	(0.057)
	2016	-0.006	(0.056)	-0.065	(0.065)
	2021	0.017	(0.035)	0.068	(0.041)
rescacoh		-2.569***	(0.439)	0.364	(0.487)
rescaage		0.038	(0.212)	-0.545*	(0.239)
여성				0.917***	(0.107)
교육수준 (ref. 초졸 이하)	중졸			-0.760***	(0.125)
	고졸			-1.377***	(0.131)
	대학 이상			-2.653***	(0.177)
가구주와의 관계 (ref. 기타 가구원)	가구주			1.306***	(0.214)
	배우자			-0.600**	(0.217)
	자녀			0.675*	(0.302)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3.557***	(0.223)
피부양가구원 비율				1.662***	(0.214)
지역규모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31	(0.109)
	농어촌			0.328*	(0.140)
cons.		-3.222***	(0.054)	-2.346***	(0.298)
N		37,843		37,843	
		-5333		-3930	
chi2		794.2		1787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

3) 기준 종속 변수(base outcome)는 소득 비빈곤/자산 비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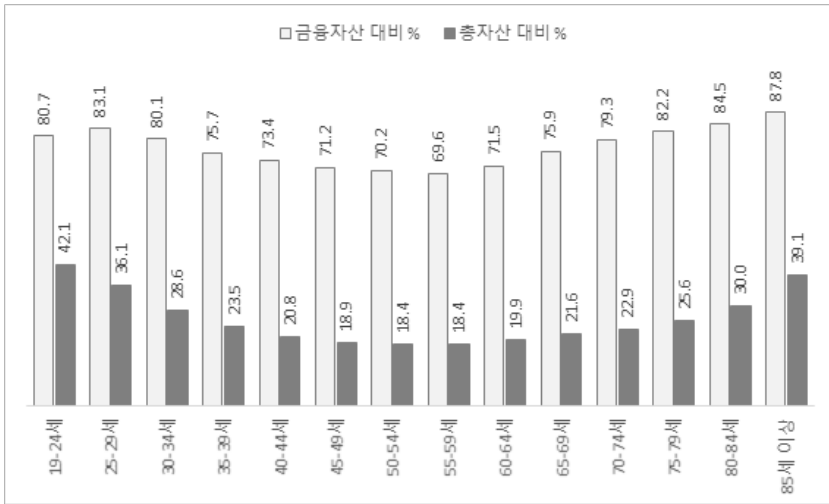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17차 원자료 저자 분석

[부록 3] 국제비교로 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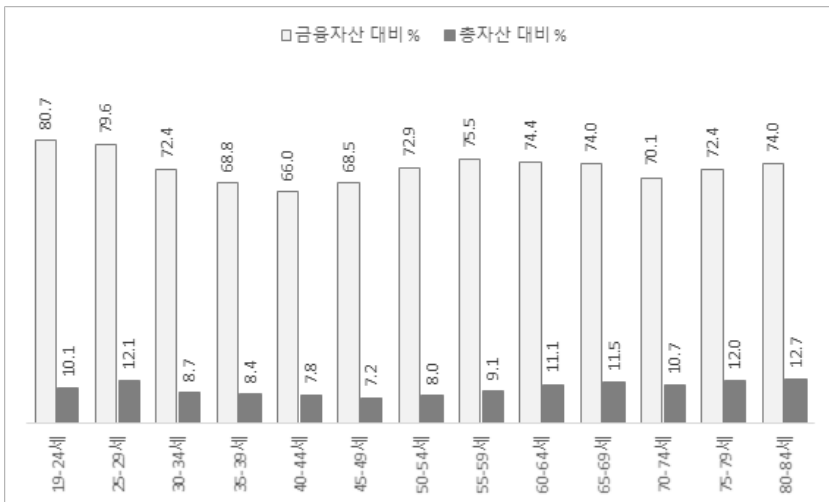
[부그림 3-1] 비교 대상 국가의 연령집단별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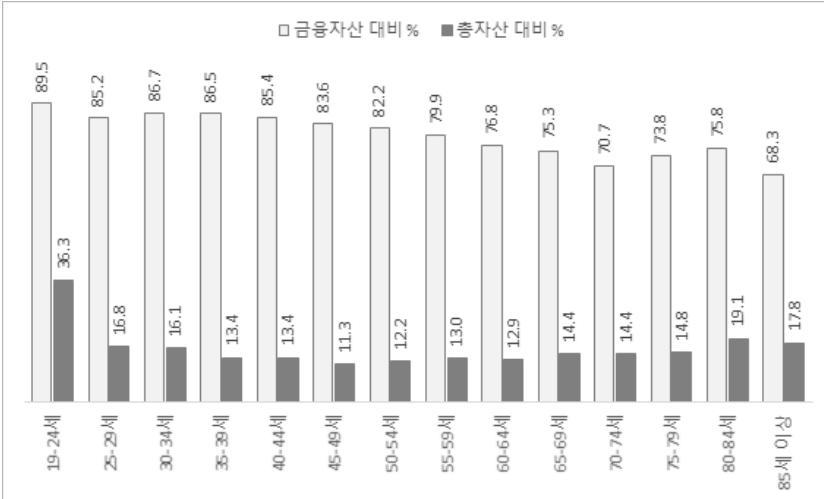
< 노르웨이,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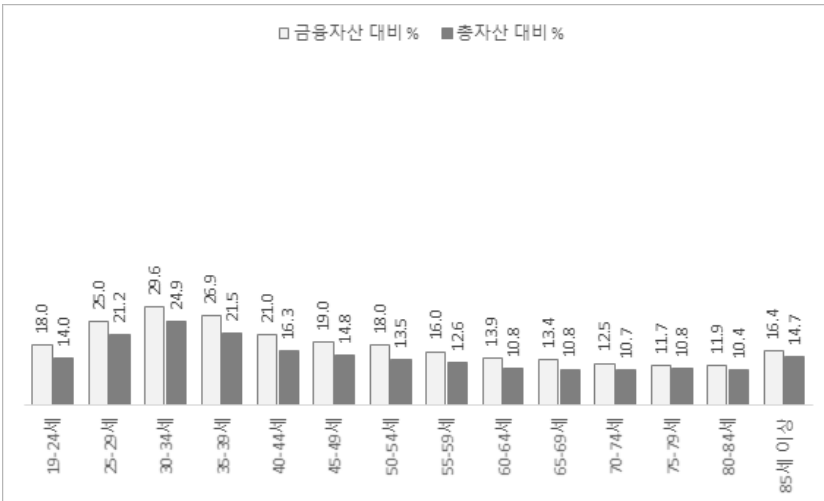
< 영국, 2019 >



< 미국, 2019 >



< 대한민국, 2019 >



주: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deposit accounts and cash)의 비율임.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미국, 2019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	3.8	1.7	1.4	1.3	0.4	0.3	0.3	0.4	0.2	0.2	10.0
2	2.8	2.4	1.4	1.3	1.0	0.5	0.4	0.3	0.1	0.0	10.0
3	1.5	1.9	1.4	1.8	1.3	0.9	0.7	0.4	0.1	0.1	10.0
4	1.1	1.8	1.6	1.5	1.4	1.0	0.6	0.5	0.4	0.1	10.0
5	0.4	1.1	1.5	1.5	1.3	1.6	1.3	0.7	0.5	0.2	10.0
6	0.2	0.5	1.0	0.9	2.0	1.6	1.4	1.2	0.8	0.4	10.0
7	0.1	0.4	1.1	0.7	1.4	2.0	1.6	1.3	0.9	0.5	10.0
8	0.1	0.1	0.4	0.4	0.8	1.3	2.0	2.2	1.9	0.8	10.0
9	0.0	0.1	0.3	0.5	0.5	0.5	1.3	2.4	2.6	1.8	10.0
10	0.0	0.0	0.0	0.1	0.1	0.2	0.3	0.7	2.5	6.0	10.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대한민국, 2022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	3.1	1.7	1.1	0.8	0.7	0.6	0.5	0.4	0.4	0.5	10.0
2	2.0	1.7	1.4	1.1	0.9	0.8	0.8	0.5	0.5	0.4	10.0
3	1.5	1.4	1.3	1.2	1.1	0.9	0.9	0.7	0.5	0.5	10.0
4	1.2	1.3	1.4	1.2	1.1	1.1	0.8	0.9	0.6	0.4	10.0
5	0.8	1.2	1.3	1.3	1.2	1.1	1.1	0.7	0.9	0.5	10.0
6	0.5	0.9	1.2	1.4	1.1	1.4	1.1	1.1	0.8	0.6	10.0
7	0.4	0.8	0.9	1.2	1.1	1.3	1.3	1.2	1.1	0.9	10.0
8	0.3	0.5	0.9	0.8	1.2	1.1	1.3	1.3	1.4	1.1	10.0
9	0.1	0.4	0.5	0.7	1.0	1.1	1.2	1.8	1.8	1.6	10.0
10	0.1	0.1	0.2	0.3	0.5	0.7	1.0	1.6	2.1	3.5	10.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3-2〉 비교 대상 국가의 처분가능소득 및 총자산 5분위별 결합 분포

(단위: %)

〈 노르웨이, 2020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11.8	3.5	2.0	1.6	1.1	20.0
2	4.5	6.0	4.4	3.2	1.9	20.0
3	2.2	5.4	5.5	4.3	2.7	20.0
4	1.2	3.6	5.3	5.7	4.3	20.0
5	0.4	1.5	2.8	5.3	10.0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 영국, 2019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9.1	4.7	2.7	2.0	1.6	20.0
2	6.0	5.4	4.3	2.8	1.6	20.0
3	3.1	4.8	5.1	4.3	2.6	20.0
4	1.5	3.4	5.1	5.7	4.4	20.0
5	0.4	1.7	2.9	5.3	9.8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 미국, 2019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10.8	5.3	2.2	1.3	0.5	20.0
2	6.2	6.3	4.6	2.3	0.7	20.0
3	2.3	4.9	6.5	4.6	1.8	20.0
4	0.7	2.6	5.5	7.1	4.1	20.0
5	0.1	0.9	1.3	4.8	12.9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 대한민국, 2022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총자산					전체
	1	2	3	4	5	
1	8.6	4.4	3.0	2.2	1.8	20.0
2	5.5	5.0	4.2	3.3	2.0	20.0
3	3.4	5.1	4.7	4.0	2.8	20.0
4	2.0	3.8	4.7	5.0	4.5	20.0
5	0.6	1.7	3.3	5.5	8.9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LW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multiple countries; {include the dates of the interval during which microdata runs completed}). Luxembourg: LIS; 대한민국은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